

독립정신 69호

2013년 5,6월호

| 특별기획
비운의 국가사적 465호 경교장

| 특별기고
'아베 망언'의 본질과 배경을 캔다

| 독립운동사의 재조명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홍사단 100년

선열들의 숨결이 묻어있고,
우리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중국 화북지역을 답사하며...

2012년
제 8기 독립정신 답사단

카이로의 그 소식

조 소 앙

카이로의 그 소식 만국에 전해지는데
장사들 환호성 천지를 진동하네
백림(伯林)을 소탕 하는 일 온갖 계책 정해진 것이
바로 나가 강호를 섬멸하고 큰 공을 온전히 하오리

요해를 수복함은 옛 터전 다시 찾는 것이
청구의 독립은 선착이 틀림없네
온 누리 지금부터 평등으로 되는 것이
문명 공덕 가져다 두루두루 선양하세나

■ 작 자 : 趙素昂(1887~1958.9.10)

■ 출 전 : 《臨時政府史》

■ 선 자 : 홍 일 선

* 1943년 11월 27일 당시의 미국대통령 루즈벨트, 영국수상 처칠, 중국총통 장개석이 모여 대일 전쟁의 수행과 전후 일본영토의 처리에 관해서 발표한 카이로 선언에서 우리나라의 독립이 약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즐거운 심정을 나타내는 감회와 희망을 노래한 시다
그러나 조소앙선생을 비롯한 애국지사들이 열망, 환호했던 조국의 독립은 분단으로 이어졌으니 통탄치 않을 수 없다.

시에서 백림은 오늘의 독일 베를린이고 청구는 오천년 배달민족 한겨레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시 편 고틀머리의 온 누리상 기원은 조소앙 사상의 요체인 삼균주의의 핵심이기도 하다. 북한에서 1958년 9월 10일 서거한 선생의 묘소는 평양 애국열사묘역에 있다.

독립정신

2013 5*6

통권 69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고자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김학민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용, 곽태원, 이상준, 이일선, 김용수,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76-3 오양수산 B/D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04 권두언
2013년 한반도의 봄,
동북아 협력과 갈등의 분기점
| 김 종 대



08 특별기획
비운의 국가사적 465호 경교장
| 김 정 룡

22 경교장 건축의 역사

25 특별기고
'아베 망언'의 본질과 배경을 캔다
| 김 삼 웅

34 독립운동사의 재조명_세번째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흥사단 100년
| 반 재 철



44 부부 독립운동가 열전_세번째
김규식과 김순애
| 윤 경 로

54 종교 속의 독립운동_여섯번째
일제식민통치시대 기독교와 민족운동
| 박 정 신

63 우리 고장의 독립운동_여섯번째
정읍 항일 운동사의 재조명
| 이 홍 로

75 청년학생이 간다_
'친일재산환수법'을 만들어내는데
중심에 섰던 최용규 변호사를 만나다
| 정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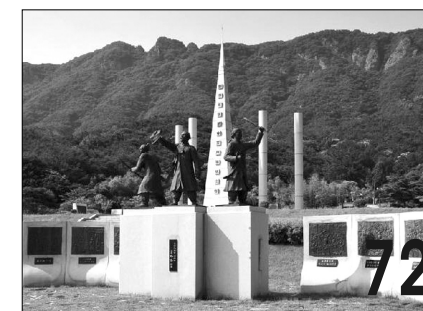
80 100년 편지_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
| 성 대 경

83 영화읽기_
영화 <제로 다크 서티>,
전쟁과 인간의 얼굴
| 이 두 희

87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_네번째
또 다시 억압의 역사를 꽃피우리라
| 이 윤 옥

89 임정서거_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조봉암 평전
돌베개
장준하 평전
| 편집부

100 독립정신 이모저모



2013년 한반도의 봄, 동북아 협력과 갈등의 분기점



김 종 대
디펜스21+ 편집장

2013년 한반도의 봄은 경제와 안보 양면에서 쌍끌이 위기가 표출되고 있다. 남쪽에서는 일본의 환율 공세로 세계 15위의 한국경제의 수출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은 이참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를 통해 한반도에 역사·문화적 침략도 병행함으로써 한반도는 21세기판 임진왜란의 형국이다. 북쪽으로부터는 어떠한가? 지난해 12월의 로켓 발사에 이어 올해 핵실험과 추가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북한에 미국이 무력시위로 강압적인 대응을 하는 지금은 21세기판 병자호란과 같은 안보위기다.

경제의 임진왜란과 안보의 병자호란을 동시에 겪고 있는 한반도의 2013년은 시련과 도전의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선을 더 먼 곳으로 돌리면 작금의 진통은 사실 동북아시아 질서의 새판을 짜는 과정에서 표출되는 불안정한 단면이다. 대륙과 해양의 지각판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한반도에서 먼저 분화구가 폭발한 셈이다.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일어나는 지각변동, 즉 국제정치에서 세력균형이 변화하려는 조짐이다. 지난 3~4월, 약 70일 간 지속된 한반도 안보위기는 이 심대한 변화 속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이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촉구하는 새 아침의 모닝콜이었다.

2013년 한반도 핵 위기는 과거 유사한 한반도 위기와 다른 맥락에 배치되어 있다. 북 핵 위기는 미중 간의 세력균형의 변화가 국가 간 갈등과 폭력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는가, 아니면 점진적이고 수용가능한 평화적 방식으로 진행되는냐를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 만일 북 핵 위기가 동북아시아의 신냉전체제를 강화하는 대결과 긴장으로 이어진다면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국면이 출현하게 되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공세적 현실주의자들이 경고하는 대로 미중 간에는 피할 수 없는 대결과 대치의 구조가 정착되는 ‘벽이 있는 세계(walled world)’로 이어진다. 반면에 북 핵 위기가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으로 원만하게 해소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국가 간 상호의존이 자연스럽게 증진되는 국면이 출현하게 되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평평한 세계(flat world)’로 이어진다.

위 두 가지 경로 중에 어느 것이 바람직하냐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없다. 다만 과거 1994년 제네바합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2007년의 10·3 합의와 달리 이번 위기는 그 해결방식이 매우 모모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우선 과거의 위기의 경우는 미국과 북한 어느 한쪽이 상대방으로부터 제시된 금지선(red line)을 넘으면 곧바로 전쟁 위기로 발전했으나, 다시 그 금지선을 되넘어 오면 위기가 해결되었다. 예컨대 1994년의 경우 미국에 북한에 제시한 금지선은 영변 핵 재처리시설에서 핵 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것이고,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금지선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이었다. 쌍방이 이 금지선을 넘어가려는 벼랑 끝 위기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져 서로 금지선을 넘지 않기로 합의하면 그것으로 위기는 끝이었다.

이렇듯 과거에는 갈등과 협력을 결정짓는 시점과 조건이 명확했다면 지금의 위기는 그 금지선이 무엇인지 혼란스럽다. 우선 미국의 경우 대북정책이 비핵화인지, 비확산인지 명료하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확산방지에만 주력할지 모른다는 의구심이 나타나면서 한국 내에서도 독자적인 핵 무장론자까지 출현하는 형국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도 핵 개발에 바탕을 둔 노골적인 협박을 구사하는 것이 핵무기 보유 자체가 목적인지, 아니면 핵을 내세워 통 큰 협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인지 명확치 않다. 게다가 북한은 과거에 협상의 대상이었던 경제적 지원문제까지도 배제하면서 오직 핵 보유국이라는 목적으로만 치닫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의 대화제의를 기다리며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는 이중적인 행태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협력을 한다면 무엇을 협력하자는 것인지, 협력을 안 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는 장기간 소강상태로 돌입할 조짐을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반도 위기의 본질을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필요도 있다. 지난 20여년 간 북한이 미국에게 요구한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미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즉 북미 수교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즉 평화협정 체결 셋째, 미국으로부터의 경제 지원이다. 이 중에서 세 번째 경제지원은 최근 북한의 행태로 볼 때 우선순위가 낮다. 그렇다면 핵 문제의 본질은 앞의 두 가지인 안보문제라고 할 수 있다. 적어도 이 점에서 북한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자본주의 방식을 수용해서라도 경제를 개선하겠다는 실용주의 노선에 입각해 있다. 그러나 군부를 중심으로 한 북한 내 보수파들은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한 어떠한 경제 개혁과 개방조치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일관되게 선군노선을 고수해 왔다. 통치기반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김정은은 군부와 친화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을 위협하여 적대관계를 청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이것이 성공해야만 경제개선도 도모할 수 있다는 보수적인 사고로 기운 듯 하다.

이 점에서 우리는 북한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수정해야 한다. 지금껏 우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경제교류와 문화협력을 활성화하면 한반도 안보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에 머물렀다. 때로는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면 평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기능주의적 사고로 남북관계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어 왔다. 즉 우리의 경제력으로 북한의 호전성을 변화시키는 경제-안보 교환모델에 익숙해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돈으로 평화를 사자”는 접근법이 2007년의 10·4 남북공동선언과 개성공단에서 그 결실을 맺었고, 지난 대선 때는 서해 평화를 해결하는 처방으로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엄연한 진실은 남북 간에 경제협력으로 관계가 증진되는 상황에서도 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더 이상 경제와 안보를 일대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직 안보-안보 교환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안보와 안보를 교환한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경제지원이 아니라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있다면 이를 해소하는 것, 즉 평화협정 체결을 필두로 한 한반도 평화체제 밖에 없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이 평평한 세계로 나오기 위해서는 북한 스스로 안보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인식해야 하고 적대관계가 종식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비정상적인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전망이 열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아직도 북한 코앞에서 돈지갑이나 흔들어대는 식으로 북한 문제를 접근하거나, 불량한 북한에 체벌을 가한다는 명분으로 진술핵과 첨단무

기를 마구 반입하는 식으로는 그 어떤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너무 멀리 와 있다는 느낌이다.

이 점에서 북한 문제가 갈등이나, 협력이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고 한다면, 안보의 당사자인 우리가 강대국이 한반도를 문제를 주도하는데 끌려갈 경우 새로운 동북아 질서에서 낙오될 가능성이 크다. 아직도 평화협정이 그 자체로 평가받지 못하고 북한의 기만전술로 치부되는가 하면, 대화와 협상 그 자체도 불온시 되는 소위 중북 바람몰이 속에서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어떤 긍정의 확신을 도모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구도가 지속되는 현상유지 논리로서의 안보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현상 타파의 논리로서 긍정과 낙관의 전망을 열어야 한다. 그것이 지금 실낱같이 나타나는 대화의 국면을 기회의 공간으로 전환하려는 마음가짐이다. 



비운의 국가사적 465호 경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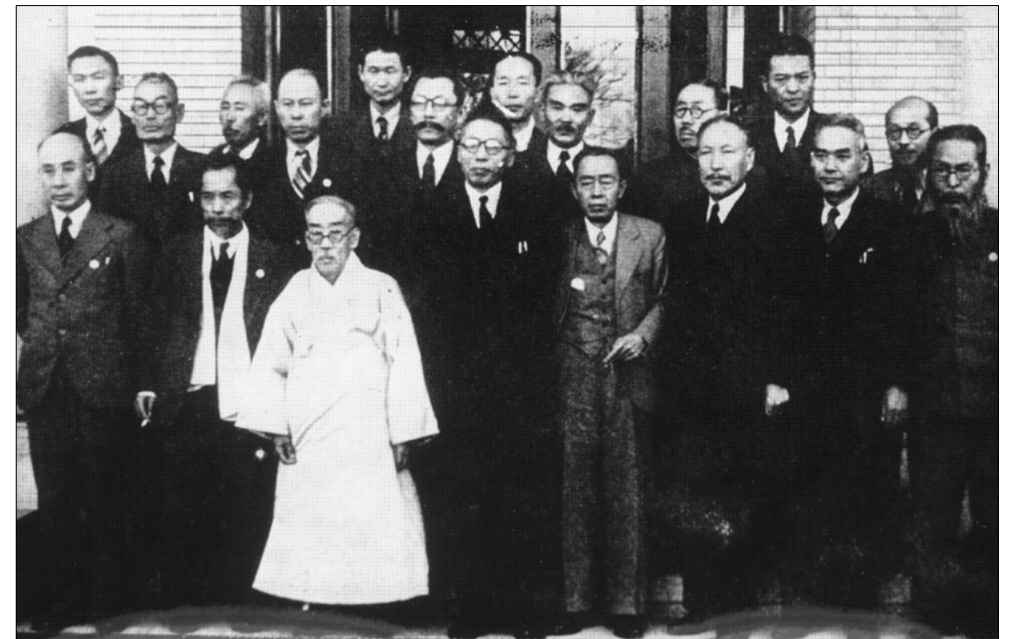
김 정 룩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부회장

경교장. 해방 조국으로 귀국한 임시정부 김구 주석과 몇 분 국무위원의 거처였고, 미군정 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청사가 없는 임시정부 기능을 이어가게 한 활동공간이었다. 김구 주 석께서 흉탄에 쓰러진 후 중화민국대사관저로, 6.25사변 때는 미군의료시설로, 다시 월남대 사관을 거쳐 강북삼성병원으로 전전하던 이 비운의 건물은 2005년 6월 13일 국가사적 제 465호로 지정되면서 복원되어 비로소 경교장 본래의 모습으로 역사의 장에 돌아온 것이다.

오늘의 국가사적 경교장은 따지고 보면, 역사의 발원지는 일본이라는 역설이 가능하다. 그 들의 찬탈로 우리나라를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만들었고, 동족상잔의 비극은 현재진행형 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백번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또 다시 병이 도져 우리 땅을 노리고 있다. 이것이 원죄를 뉘우칠 줄 모르는 일본 근성이다.

지금 일본 우익단체들은 이성을 잃고 우리 대한민국을 음해하느라 거리로 뛰쳐나와 날뛰 고 있다. 거의 짱패수준이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이다.

이번 기회에 일본의 단면을 보여서 일본을 겪지 못한 후대들이 굳건한 민족혼으로 뭉칠 수 있는 촉매제로 삼고자 한다.



▲ 환국한 임시정부 요인들이 역사적인 첫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교장 입구 계단에 서서 찍은 기념사진(1945.12.6)

과거 일본은 영토에 대한 정복욕으로 그들의 역사는 침략의 오욕으로 얼룩져 있다.

수단은 하나같이 불의로워 국제법을 어기는 기습작전으로 시작했다.

중국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 조작한 노구교 7.7사변이 그랬고, 러시아와의 극동해전도 기 습이었고, 진주만 또한 그랬다. 그들이 침략의 교두보로 우리나라를 36년간 강점하는 동안 우리 어진 백성들은 수탈과 압박의 고통 속에 신음해야 했다.

패전으로 애써 강탈한 땅 모두를 잃고만 일본은 이제 와서 또 옛 버릇이 도져 한 점 독도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것은 간단명료하다. 그들은 잡 다한 근거를 내세워 그들 땅이라고 우기고 있으나 천박한 잔꾀일 뿐이다.

일본 막부 것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료(史料)에 독도는 분명 한국 땅이라 기록되어 있고 그 들의 지도에도 획이 선명하다. 그리 오래되지도 않은 일본의 근대사다.

그러므로 일본은 정사(正史)를 내세우지 못하고 잔꾀를 부린 것이 시마네현 공시이다.

우리 땅을 도둑질하는 소굴이 되기 이전에는 어느 구석에 박혀있는지조차 몰랐던 시골 시 마네현의 공시판에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 붙여놓고 저들끼리 살짝 보고서 들킬세라 뜯어버 린 것이 그들의 영토라 주장하는 시마네현 공시다.



땃땃하다면 중앙 정부의 정사에 기록된 자료를 들고 나와 주장해야 할 것이다.
시마네현 의회에서는 2005년 3월 16일 기어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고 3월 25일 조례안을 제정, 공포했고 점차 국가 행사로 격상하고 있다.

우리 독도 수호 단체에서는 2006년 제 1회 다케시마 기념식 때부터 계속 항의 방문단을 보내 독도나, 다케시마나를 가르는 토론을 제의해오고 있으나, 시마네현측은 어쩔 수 없이 좋다해놓고 이런저런 구실을 달고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있다. 남의 땅으로 들통 나면 도둑놈이 되기 때문에 두려운 심보인 것이다.

일본은 공항에서 입국 수속하는 항의 방문단의 여권수첩에 “法10-8”이라는 스텐프를 찍어 내보내고 이 표시를 본 경찰은 온갖 방법으로 활동을 틀어막아 기념식장 접근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 방문단이 항의하면 우익단체의 위해 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차원이라고 한다. 폭력을 쓴다면 가해자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참으로 교활하고 해괴한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조직적이고도 총체적으로 영토의 사실 규명을 막음으로서 독도는 한국땅임을 드러냈고, 이는 그들 역시 독도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증좌다.

일제 강점기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조국광복을 되찾으려 했고, 저항의 심장은 임시정부였다. 침탈의 오욕은 이미 역사에 상처를 입히고 지나갔다.

이제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상습적으로 뻔히는 이웃의 독수를 끊으려면 임시정부 기념관을 세워 반면교사의 교훈을 후대들에게 남기고, 하나 된 결속과 살아있는 민족혼이 절실하다.

이런 때에 경교장이 국가사적으로 살아나 민족혼의 버팀목으로 우뚝 선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경교장의 존재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는 잃어버렸던 우리의 소중한 역사적 가치를 되찾은 뜻을 기리기 위해 특별기획을 세우고, 회보 <독립정신>에 새겨두려 하면서 내게 당시 경교장의 생활상을 담고 싶다며 기고를 부탁해왔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 꽤 오래 참여해온 터여서 당연히 수락하는 것이 옳겠으나,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보 <독립정신>은 박학다식한 필진이 번갈아가며 선대 어른들의 뜻을 기리며 잊혀가는 민족혼을 일깨워주는 주옥같은 필치를 담고 있는지라 줄필이 끼어들어 누를 끼칠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늘 긴장된 정치공간이었던 그 곳에 당시 12살 초등학교 5학년 소년의 눈에서 보는 정경은 또 다르고, 경교장 그 너른 녹색 그라운드를 구석구석 누비고 다

닌 개구쟁이가 본, 어른들은 모르는 꽤 알려지지 않은 세상이 거기에 있었기에 쓰기로 마음을 고쳐 잡은 것이다.

먼저 초등학교 학생이 경교장을 돌아다니는 배경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 요인 1진이 귀국하던 날, 김구 주석과 함께 서울에 입성한 국무위원 중 문화부장 김상덕, 선전부장 엄항섭은 주석과 함께 경교장에 입주했다. 엄항섭 선생은 독립운동 시절 주석과는 늘 밀착한 관계였으니 입주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으나 김상덕은 경우가 달랐다. 주석의 한독당과는 노선이 다른 민족혁명당 소속이어서 입주가 극히 한정된 경교장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고는 어려웠다. 김상덕은 경북 고령 시 골출신인데다가 빈농의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에는 연고가 없다. 독립운동은 풍찬노숙이라 모두가 가시밭길을 걸어왔으니 집 한 칸 장만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마도 이런 형편이 배려된 듯하다.

임정요인 가족들은 해를 넘겨서 속속 귀국했고, 김상덕의 가족은 1946년 3월 10일 새벽 서울에 도착하면서 경교장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나는 가족의 일원인 아들이어서 머물게 된 것이다. 기고문을 쓰기에 앞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이일선 사무처장과 복원된 경교장부터 찾아봤다.

67년 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동심을 심은 곳이라 몹시도 설레었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노정에 들어선 세월이 서글퍼 만감이 교차했다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 수많은 풍상이 할퀴고 지나간 경교장은 어쩔 수 없이 시대의 변화에 떠밀려 달라진 모습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지금의 통로는 병원 시설에 맞게 자리 잡고 있으나, 경교장 시절에는 들어오는 입구가 전혀 다른 반대방향에 있었다. 세종로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큰 길로 가다보면 당시에는 잘 알려진 동양극장(지금의 문화일보 자리)지점의 맞은편 오른쪽으로 꺾어 올라가는 오르막이 통로였고 지금의 강북 삼성 병원에서 기상청으로 가는 쪽 입구는 막혀 있었던 것이 다르고, 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은 잘 다듬어진 잔디가 깔린 그린필드였다.

이 길을 굳이 짚으려 하는 것은 옛 통로가 경교장의 사연을 담고 있어서이다.

경교장 내부에 들어서니 호화관 응접실, 귀빈 식당, 당구장 방 등이 보이는데 당시의 탁자, 의자, 집기 종류는 주석 어른답게 소탈하고 단정하게 차려진 것이라 시설이 낡설었고 2층 계단에 오르고서야 복도와 숙소가 그대로여서 옛 생각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서울시 관람 안내용 팸플릿에서 소개하고 있는 국무위원 숙소는 사실과 같았고, 복도의 오른쪽 방이 문화부장 김상덕, 왼쪽이 선전부장 엄항섭 두 분 국무위원 숙소였고, 끝쪽에 김구



▲ 2층 발코니에서 연설하시는 김구 선생

주석 큰 머느리이자 안중근 의사의 조카인 안미생의 방이 있었다.

북도 맨 오른쪽 주석 거실 방을 열어놓았는데 당시에는 닫혀있었고 북도를 돌아 건물 앞 쪽으로 출입문이 있었다. 조금 더 지나면 우리가 눈여겨 봐야할 경교장 2층 발코니가 나오는데 이곳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서 고마운 생각마저 들게 했다.

당시 김구 주석과 임시정부는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다. 이것이 두렵고 못마땅한 세력들은 청년들을 선동해서 남북협상을 이념 매도했고, 신탁통치 찬반 등 시국 사태의 사사건건 주석어른의 거동을 꼬투리 잡고 걸핏하면 폐거리로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는데 그 출입구가 옛 통로 쪽이었으며 주석계선 바로

이 발코니에 우뚝 서서 왜 이북으로 가야 하는지, 분단으로 치닫고 있는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비분강개를 목청껏 내뿜었던 곳이라 발코니 원형이 살아있는 것이 마음 저리게 고마웠던 것이다.

2층 각 방의 다다미는 옛 모습 그대로였으나 미닫이문은 고층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경교장은 일제 시 금광사업가 최창학의 저택이다. 그는 당시 총독부의 눈치를 보며 그들 취향에 맞춰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지금의 창호문이 아니라 일본식 문양으로 문을 짰다. 큰 차이는 없으나 원형은 짙은 커피색에 문살이 좀 더 촘촘한 왜색 느낌이 드는 것이었다.

식사 시간은 거의 기계적으로 정확해 때가 되면 흰 모자, 흰 가운을 단정하게 입은 요리사

가 방문을 노크해서 알렸고, 식당은 지금의 1층이 아닌 지하층에 주방과 마주한 긴 식탁이 놓여 있었다. 식단은 1식 3찬 정도의 소박한 차림이었으나 독립운동 시절 조악한 음식이 몸에 배어서인지 성찬 느낌이어서 식사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졌고, 특히 카레라이스가 입에 맞아 맛있게 먹던 기억이 난다.

김구 주석계선 임시정부가 대륙을 전전하던 시절 장사시의 남목청에서 당 통합문제를 논의하던 중 이운환이란 흥한의 기습 충격을 받고 몸에 박힌 탄환을 뽑지 못해 이것이 내내 괴롭혔고, 연세 또한 많으신지라 요리사가 교자상을 들고 2층으로 올렸었다.

주석 어른의 체격은 당시로는 거구였으나 몸 상태 때문인지 의외로 식사량이 많지 않아 남기는 때가 많았다. 거의 비슷한 시간에 식사가 끝나는데 2층 우리 방으로 올라가면 꼬마의 발자국 소리를 알아들으신 주석께서 어른 방으로 불러들이곤 했다.

평소에 근엄하신 주석 어른을 주변에서는 어려워하므로 자연 외로운 면도 있는 것 같고, 한편 아이들을 은근히 좋아하시는지 주석 상에만 오르는 특식 디저트를 주시며 인심을 쓰셨다.

주로 과일 종류이고, 가끔은 귀한 아이스크림도 상에 오르는데 당시의 아이들은 어른 앞에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 무릎 꿇고 앉아 먹는 것이 영 불편하고 주석 어른이 풍기는 위압감으로 맛도 모르겠고, 도망갈 궁리로 머리만 복잡했다.

다음부터 경계구역에 들어서면 살금살금 소리 나지 않게 뒤편치를 치켜들고 지나다녔는데, 간혹 깜빡 잊고 장난기가 튀어나와 까불다가 걸려들어 무릎 꿇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면 꿈쩍 못하고 꿇어앉아 있는 것이 재미가 있어 심심풀이를 즐기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했다. 불러 들어갈 때 보일 듯 말 듯 웃음 머금은 표정이 드러나는 것이 느낌상 그랬다.

먹는 이야기가 나오니 까맣게 잊었던 기분 좋은 추억이 떠오른다.

경교장의 찬거리는 남대문 재래시장에서 사들였다. 주로 초보 요리사가 맡았고, 지금의 경향신문사에서 오른쪽 길로 꺾어 이화여고, 정동극장을 지나 덕수궁 돌담길을 끼고 가는 코스다. 자전거 뒤에 리어카를 고정시켜 화물칸으로 쓰고 가는 것인데 나는 종종 여기에 올라타고 따라나섰다. 경향신문사까지는 오르막이라 엉덩이를 치켜들고 페달을 밟고 가야하니 힘이 드는 것이 미안해 립서비스를 날리며 온갖 아양을 떠 기억이 나고, 내 서툰 말투가 웃기는지 요리사는 힘들어도 기분이 별로 나빠 보이지 않은 모습이였다. 경교장 대식구 몫의 장거리다보니, 분량이 꽤 많아 단골집 주인들은 텀 인심이 후했고, 그 덕에 나는 부정없이 군것질을 하는 그 재미가 쏠쏠해 따라다니는 시간이 참 좋았었다.

지금의 경교장은 세종로에서 서대문 방향으로 가다가 강북삼성병원 오른쪽 기상청 가는 길로 들어 올라가는 길에 입구가 있으나 원래는 큰 길을 직진하다가 옛 동양극장(지금의 문



화일보 자리) 쯤에서 오른쪽 오르막 길 위에 통로가 있었다.

오르막 중간 지점에 묵직한 나무대문이 출입구이고, 경계선을 따라 담이 쌓여 외부를 가렸다. 지금의 출입구는 석재상 점포가 외부에 있고, 내부의 경교장과 경계였는데 이 경계선이 철조망을 허술하게 걸쳐 놓은 것이라 시내로 나갈 때면 이 지름길로 철조망을 들추고 쉽게 나다닐 수 있었다. 경교장 출입문 바로 안쪽에 경비실이 있고 경찰이 교대로 경호하고 있었다.

귀국하기 전에는 중국 소학교에 다녔기에 친구 모두를 두고 떠난 터라 친구도 없고 말도 서툴러 자연 경교장 경내에서 맴돌게 되어 심심, 답답하고 이리저리 생각해보니 그래도 상대가 되는 것은 경찰아저씨들이라 경비실을 기웃거리며 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경찰 아저씨들도 일상 똑같은 일만 되풀이 하다 보니 지루하고 은근히 반기는 눈치라 친분을 굳히기 위해 집에 있는 아버지 술안주인 마른 오징어를 가끔 몇 마리씩 들고 나와 아부성 뇌물을 쓰니 경찰 아저씨들 입이 귀 밑에 걸린다.

이래서 경비실은 내 집 드나들 듯 편한 사이가 되어 들락거리며 소일하게 되었다. 들어오는 큰길가 오른쪽에는 자전거 점포가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귀국하기 직전에 화재를 만나 자전거들이 불에 타 잔해가 나뒹굴고 있었다. 하루는 그 중에 친한 경찰 아저씨가 점포주인에게 사정해서 처박혀 있는 바퀴 하나를 얻어 흰 부분을 두들겨 잡더니 근사한 굴렁쇠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 경교장 안 지금의 주차장 자리는 원래 잔디밭이었으므로 이 드넓은 그린 필드는 내게 최적의 굴렁쇠 놀이터가 되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되어 주었다.

경교장은 평소에는 조용하고 정적에 잠겨 있으나 가끔 임정요인 어른들이 모여들면 분위기는 긴장 국면으로 바뀌곤 했다. 왜 그러는지 저간의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보자.

1945년 11월 23일 임시정부가 해방을 맞아 귀국하던 날 주한 미군사령관 하지중장은 임정을 철저히 견제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경향 방방곡곡의 민심은 귀환하는 이 충절의 노정객들을 열화와 같이 환영했고, 도하 신문 모두가 임시정부 귀환을 대서특필해서 세상에 알렸다. 친일 매국 무리들은 전전긍긍했고, 권탐 계층은 이 거대한 물결이 불안하여 그들 사이에 되어서는 안 될 잘못된 투합이 이루어져 해방 정국은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소란스런 세상이 된 것이다.

임시정부가 귀국한지 채 며칠도 되지 않아 임정을 매도하는 음모가 시작되었고, 임정 요인을 한낱 노인으로 폄하하였으며 수권능력조차 없는 집단으로 욕보여 국민의 열광을 시샘하는 소인배 짓을 펴뜨리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점차 정도를 넘어서는 이 사태를 의제로 상정하고 오랜 토론 끝에 이에 대처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구난방의 혼선을 막기 위해 조소앙 1인 창구에서만 발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음해 계층의 작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결의문을 요약해보면 알겠기에 밝힌다.

결의 1. 한민족의 주권은 한민족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약탈한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운동의 공구(工具)로서 국내외 인민이 합작하여 수립한 것이 임시정부이며,

결의 2. 무릇, 정부는 개인 신경이 아니고 집체적 신경인 정치기관으로서 활동한 것이요, 구 성 인물의 개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음해 세력에게 사리분별을 독바로 하라는 경고였고, 때는 1945년 12월 6일 오후 2시였다.

국무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경교장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했는데 지금 백범 김구기념사업회와 독립운동 유관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임정요인 기념사진은 바로 이 때 찍은 역사적인 장면이다.

또한, 임정요인이 풍찬노숙의 노정을 끝내고 해방 조국에 귀환하던 날, 미군정 하지 사령관은 김구 주석을 비롯한 요인과 수행원을 외부와 차단한 채, 밀폐된 장갑차에 태워 국민이 모르게 서울에 입성하도록 조치했는데, 이 때 하지 사령관이 취한 통치행위는 참으로 무식하고 우직했다. 진주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버마 등지에 전개해 있는 스틸웰 장군 휘하 부대 지휘관으로서 전차부대를 이끌고 일제 황군의 화력을 분쇄하여 동양의 패튼으로 평가받은 만큼의 전공으로 승승장구 삼성장군에 오른 미군 사상 최초의 사병 출신 장군이였다. 그는 장교의 엘리트 코스인 웨스트포인트 육사의 정규 교육을 받지도 못했으며, 더더욱 정치의 문외한이다보니 매우 미숙한 통치감각으로 해방 정국을 수습하는 책무를 훼손하고 만 것이다.

하지는 우리나라 실정을 이해하는 스틸웰 직속상관이 아닌 비정상적인 채널을 통해 일본에 편향적인 맥아더 원수로부터 한국 진주군 사령관으로 명받았고, 주둔지는 오키나와에서였다.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것이 우리나라 불행의 단초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군정의 최고 통치자라면 당연히 직접 혹은 보좌진을 통치 대상국에 보내 실정을 면밀히 분석 파악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만나 문화와 국민 정서에 걸맞은 협의 조율을 거쳐 통치 구도를 설계하는 것이 기본 수순이었는데, 이 정치 문외한은 방향 착오를 헤매며 우리나라를 침탈한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과 정권 인수 작업을 통신으로 한 것이다.

통화를 주고 받는 과정에서 정무총감이란 자는 한국민을 무지몽매한 민족으로 깎아내려 은연 중 그들의 침탈강점 행위를 정당화하려했고, 통역놈은 한술 더 떠 아예 미개인들이라 통역을 해대니 이런 선입견이 짙은 정치미숙아 머리로 하지의 군정은 애초부터 싹수가 노래져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 턱이 없는 어진 백성들은 하지가 인천에 상륙하자 해방 우군을 환영하러 연안에 몰려들었고, 하지는 무식한 시위군중으로 오판한 것이 그가 받은 우리나라의 첫 인상이었다.

정치의 권모술수에 능한 이승만은 임시정부보다 한발 앞서 귀국하면서 뒤로는 동경의 맥아더 사령부부터 들러 맥아더와 모종의 협의를 주고받은 정황이었고, 하지는 맥아더의 지휘를 받은 예하 사령관이다 보니 이미 이승만에게는 환대를, 임정에게는 박대가 가게끔 되어 있는 판세였다.

청사 하나 없이 갈 곳 없는 유랑신세가 될 뻔한 임시정부는 비교적 공간이 넓은 경교장을 건물주 최창학으로부터 기증받아 주석의 거처로, 임시정부의 활동 근거지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순국선열의 돌봄이었다고 여긴다.

가끔 국무회의가 열리면 악랄한 일제도 꺾지 못한 노 혁명가들의 드높은 기상은 잘못 돌아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 울분을 터뜨리는 장(場)이 되어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모여서 조짐이 심상찮아 보이면 겁부터 나고 굴렁쇠고 뛰고 얼른 걷어치우고 경교장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상책이었다.

훗날, 하지 중장을 비롯한 미군정 고위층은 한국의 지성들과 교류하면서 세련된 인품에 감복하고 우리를 폄훼한 일본인들에게서는 교감되지 못했던 미풍양속이 몸에 배인 우리 고유의 예절에서 풍기는 고매한 향기를 느끼면서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외경을 보였다고 알려져 있고, 특히 김규식 부주석이 구사하는 유려한 영어에 매료되었다고 한다.

경교장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될 무렵이니 아마도 1946년 초여름쯤으로 기억된다.

조용하던 경교장이 발각 뒤집어졌다. 주석께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것이다.

어른들은 경비실로 몰려가 주석어른이 빠져나가도록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두고 뭘 했느냐며 경찰 아저씨들을 혼내느라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다.

그러나 경교장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닌 내 생각은 경찰 아저씨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 귀빈 응접실에서 김구 선생과 조완구 선생(1947.05)

는 판단이었다. 그렇다고 어린 녀석이 함부로 나설 수도 없고, 내심 방방 뜨고 있는데 마침 급보를 받은 아버지도 쫓아 들어오셨다. 나는 급히 아버지를 붙잡고 상황설명을 했다.

경교장문은 묵직해서 아무리 조심해도 문을 열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 몰래 나갈 수도 없거니와 열 개도 넘는 경계 눈초리가 번득이는 앞으로 몰래 빠져 나갈려는 초딩 같은 생각을 주석어른이 할리도 만무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출구는 경호 시야를 벗어난 허술한 석재상 쪽이 분명하다며 내가 좋아하는 경찰 아저씨들의 누명을 벗기려고 했다.

가만히 자식이 하는 설명을 듣고 보니 제법 일리가 있다. 아버지는 사실 파악 전에 일단 어른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는데 힘을 쓰신다.

한식경이 지난 뒤 정문을 통해 주석 어른께서 지금쯤은 난리가 났을 거라 뻔히 알면서도 들어오시는 품이 태평도 그런 태평이 없고, 시치미를 톡 떼고 능청을 부리며 뭘 일이 있었냐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평소엔 주석을 외경하던 임정 요인들은 오늘은 달랐다. 귀한 공인의 몸을 함부로 내던졌다면 대드는 장면이 벌어진 것이다.

민발치에서 조마조마하게 지켜보자니 어른들이 텅비고 있어 영 불안해 죽겠는데 주석께서는 그러던가 말던가 그쪽에는 신경도 쓰지 않고 웃음조차 머금어 보이는 것이 행복에 겨워



보이기까지 했다.

당시 김구 주석을 노리는 음모가 도처에 깔려 있어 신변 안전에 노심초사하던 요인 어른들 인지라 덤빌 만도 했고, 특히 펄펄 뛰는 다혈질의 조완구 선생이 두드러지게 몸 한번 푼 장면이었다. 반면, 주석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늘 인의장막에 갇혀 답답했고 평소에 꼭 하고 싶은 소박한 꿈이 있어서 이 날을 버리고 결행한 것인데 탈출에 성공하자 주석께선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서대문 재래시장으로 들어가 허름한 좌판에 척하니 걸터앉아 빈대떡 한판에 막걸리 한 잔으로 꿈을 만끽하고 소원을 푼 셈이니 굳이 시비를 가리자면 양쪽 다 옳았다고 보는 것이 정답일 것 같다. 석재상 쪽으로 빠져 나간 것이 맞는 것 같고, 태산 명동에 애매한 경찰아저씨들만 잡은 경교장편 단막극 해프닝이었다.

독립운동시절, 야당인 민족혁명당은 중경남안 다프단(大佛段) 172호 손가화원에 본부를 두고 있었다. 지도부는 현지인들이 부르는 양팡즈(洋房子)에 집중해서 살았고, 대표적인 인사는 부주석 김규식, 최석순, 윤기섭, 김원봉, 성주식, 아버지 김상덕, 거구 장신의 문일민 등 당대의 걸출한 인물군이였다.

이 취락 속에서 자라다보니 아버지의 엄격한 훈육도 있고, 어른을 대하는 나름의 요령도 생긴데다가 천성이 모질지 못한 것이 어른들께 불임성으로 느끼게 한 것인지 그 때는 접근이 쉽지 않은 경찰 아저씨와 주석 어른의 운전기사에게 잘 보였고 특히, 얼굴이 둥그스레한 중년의 기사 아저씨는 시간이 나면 한 번씩 차에 태워 서대문 로타리를 지나 세종로까지 한 바퀴씩 돌아주고는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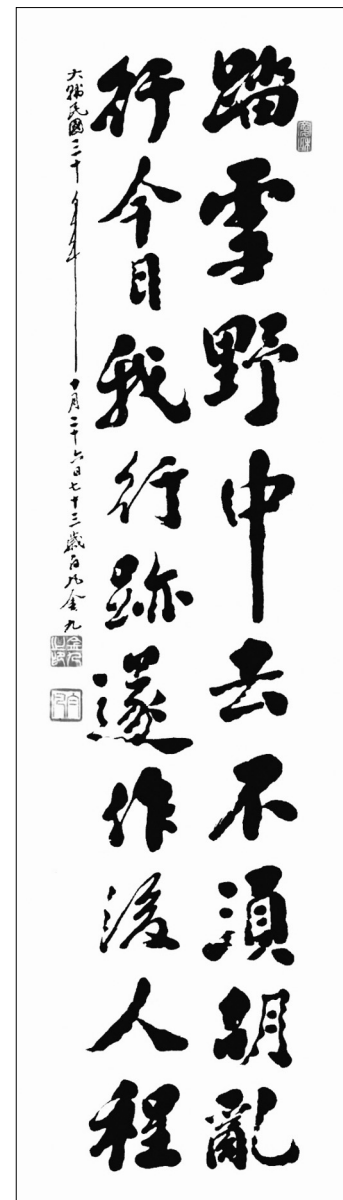
목탄차도 귀하던 시대에 서울 도심 메인 스트리트에는 마차를 버스로 개조해서 달리던 풍경이었던 만큼 주석의 세단차를 타는 기분은 지금의 롤스로이스와는 비교도 아니었다.

이렇게 기사 아저씨는 내 어깨를 가끔씩 치켜세워 주었다.

최근 백범김구기념사업회 측에서 <백범김구사진자료집>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 실린 여러 편 사진 중에 그 승용차와 유형이 비슷한 차가 배경에 나와아득히 동심의 그 때가 떠올랐다.

주석 어른의 탈출 사건도 어느 정도 가라앉은 무렵, 마침 주석의 스케줄이 잡힌 것이 없어 쉬고 있는 기사 아저씨가 보이기에 다가가서 슬쩍 애교 한방을 날리고는 한 바퀴를 돌자고 조르니 아저씨는 간지러웠는지 헛웃음을 날리며 차에 타라고 한다.

늘 가던 길로 차가 서대문 로타리를 지날 때쯤 “지난번 주석 탈출 때에 기상청 쪽 길가에 차를 몰래 대놓고 빠져 나간 거죠?” 라고 물으니 기사아저씨가 어허! 어른에게 함부로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란다. 기사아저씨는 차마 내뱉을 수 없는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시인한



▲ 휘호 답설시

것이고, 이 사실을 퍼뜨리면 내가 좋아하는 이 차 드라 이브도 날아갈 것이니 이런 허당 같은 짓을 할 내가 아니었다.

경교장에 자주 보이는 임정요인은 엄항섭 선생, 조완구 선생, 아버지 김상덕, 선우진 비서는 거의 매일 만났고 조소앙 선생, 윤기섭 선생도 자주 보이는 편이었다.

이 중에 어린 잣대로 보면 윤기섭 선생이 온화하고 편했으며, 김규식 부주석, 조완구 선생이 가장 겁이 나서 두 분만 보이면 36계 줄행랑을 쳤다.

경교장 생활 반 년 만에 숙소 문제가 해결되어 떠났는데 바로 지척에 있는 죽점장 주택, 훗날 자유당 이기붕씨가 살던 세칭 서대문 경무대로 알려진 그 곳이며 지금은 원형을 완전 허물고 4.19 혁명 기념관으로 쓰고 있는 자리이다.

경교장을 떠났으나 학교 복학 때까지 한동안 계속해서 이곳을 찾았고, 굴렁쇠도 굴리며 경비실에서 소일을 했다.

주석께서 평소에 많은 휘호를 남겼는데 거실 얇은뱅이책상 위에는 문방사우(文房四友) 지, 필, 묵, 연이 놓여 있어서 언제든지 붓글씨를 쓸 수 있었고, 붓을 들 때에는 항상 정신을 가다듬고 몸을 경건하게 단속하시어 어린 눈에도 숙연하게 와 닿았다.

당시의 중국은 붓 문화라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붓으로 시작하고 글 체형의 습관은 이 때 형성되어 평생 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글 교본을 주어 초기 서예교육과 지도가 엄격했고, 초교 5학년쯤 되면 단련된 과정을 통해 상당한 경지의 필력을 다듬게 되는지라 붓의 세계는 어느 정도 보였던 것이다.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자재상은 위치만 맞을 뿐 이보다는 허름한 책상이었고, 경교장의 소품 하



나하나가 화려하지 않았으며 겸손하고 소박하되 품격은 의젓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주석 어른의 필체는 독특한 떨림체이다. 이는 독립운동시절 흥한의 충격을 받고 박힌 탄환을 빼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글씨의 획에 주는 힘이 마디마디 고통으로 오는 현상이다.

주석의 유작을 보면 거의 모두 혼도의 뜻을 담고 있다. 고통으로 떨려 나오는 글을 멈추지 않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온 우리 겨레의 몸에 베인 미풍과 양속을 지키려는 훈육의 고통이었기에 주석께서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다고 나는 믿으며, 이것이 가까이에서 본 신념이 강렬하고 굳건했던 김구상(金九像)이었다.

김구 주석의 수많은 작품 중에 대표작으로 뽑으라면 나는 서슴없이 “踏雪...”을 꼽는다.

“踏雪...”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내재된 뜻이 심오해 모르는 후대들에게 꼭 알리고 싶고, 또한 겨레의 스승 백범 김구의 가르침이라 여겨 여기에 옮긴다.

踏雪野中去, 不須胡亂行, 今日我行跡, 遂作後人程
흰 눈이 덮인 들길을 가매, 어지러히 걷지 마라.
오늘의 내 발자국은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

서산 대사가 짓고 김구 주석이 널리 혼도란 것으로서 어지러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새겨야 할 길잡이가 되리라 믿는다.

경교장 복원을 보고

지난 2012년 11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서울시 경교장 복원팀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경교장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만큼 원형으로 복원하려는 세심한 의지가 보여 고맙게 생각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본 거슬리는 부분은 고증 과정에서 각색이 끼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경교장은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 함께 영속하는 사적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고증은 역사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다소 아쉬웠으나 역대에 위정의 오만으로 버려졌던 비운의 경교장이 국가 사적 465호로 그 자리에 우뚝 서게 한 서울시에 무한감사를 마음에 담고 복원 현장을 둘러보았다.

또한 이 역사의 장을 관람하러 오신 많은 시민 의식을 보고 지난 날 서러웠던 경교장의 수

난기가 떠올라 가슴 아프게 했다. 김구 주석을 쓰러뜨려正道(正道)를 허물어버린 불행한 역사가 다시는 이 땅에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경교장을 떠났다.

맺으면서

민주주의는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오브 더 피플’이 아니던가.

민주국가의 모든 것은 국민에게로, 또한 국민들로부터 발원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치이다.

국민들로부터 열화와 같은 환영과 추앙을 받았던 김구 주석은 이 상식적인 이치에 충족되어 있었다. 그러나 주석계선 행(行)함에 의(義)를 먼저 생각했다.

조국을 분단케 하는 단정(單政)의 권력을 거부했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쏟았으나 어른의 고뇌는 정권의 탐욕 앞에 좌절했고, 권력욕에 초연했던 주석은 끝내 구국의 길을 곧게 걸어가다가 흉탄에 쓰러져 악을 구축하는 양심은 구심점을 잃고 만 것이다.

오늘날, 풍요만을 좇느라 아름다웠던 우리의 미풍양속 모두를 잃어 어지러운 혼돈의 세상이 되고 보니 미래를 걱정했던 선각자들의 우국 충정했던 그 의연한 모습이 그지없이 뵈고 싶다. 또한 경교장이 복원되어 그 자리에 의젓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 새삼 임정어른들의 기개와 체온이 그립다. 옷깃을 여미고 돈수백배하고 삼가 명복을 빈다.

그 투명한 살결이 곱디고운 어린 시절 추억에 잠시 머물게 해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기획진에 감사를 드린다. 

※ 사진제공 : 백범김구기념관 <백범김구사진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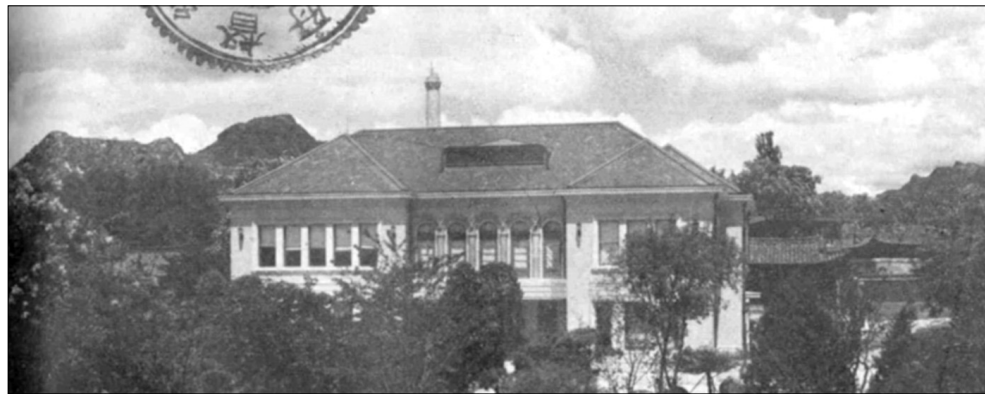


경교장 건축의 역사

☞ 1930년대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 경교장

경교장은 일제강점기 건축구조 전문가로 활약했던 김세연(1897~1975)이 설계하고, 일본의 건축회사 대림조(大林組)에서 시공한 서양식 건물이다.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비례와 아치창을 이용한 단아한 외관이 특징이며, 1930년대 근대 건축 성숙기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 건립당시의 경교장 모습(1938년)



▲ 경교장 정면과 측면 조감도

☞ 경교장의 건축주 최창학(崔昌學 : 1891년~1959년)은



▲ 비행기 1대를 일본 군부에 기증한 최창학의 기사가 게재된 1937년 7월 18일자 동아일보

일제 강점기에 광산업(鑛産業)으로 큰 부(富)를 축적한 인물로, 1937년 중일전쟁(中日戰爭)이 일어나자 일본 군부(軍部)에 비행기를 헌납하는 등 친일행위를 하였다.

1945년 11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환국준비를 위해 조직된 임시정부환국봉영회(臨時政府還國奉迎會)에서 경교장을 임시정부의 활동공간으로 선정함에 따라, 최창학은 임시정부와 김구 주석에게 경교장을 제공하였다.

☞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로 사용된 경교장

경교장은 1945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후 사실상 청사로 사용된 곳으로 국무위원회 개최 및 신탁통치 반대운동의 주무대가 되었다. 또한 김구 선생이 약 4년간(1945.11.23~1949.6.26) 거주할 당시 남북이 하나된 통일정부를 세우기 위해 힘쓰다 서거한 우리나라 현대사의 중요한 현장이다.

☞ 각국 대사관 및 병원시설로 사용된 경교장

경교장은 1949년 김구 선생의 서거 이후 중화민국(오늘날의 대만) 대사의 관저로 사용되다가 1957년부터 10년간 월남대사관으로 사용되었다.

1967년 고려병원(강북삼성병원의 전신)에서 인수하여 40년 가까이 병원시설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 경교장은 병원시설에 적합하도록 내부가 완전히 리모델링 되어 벽체나 창호 등의 원형이 훼손되었다.



▲ 고려병원시절의 경교장



▲ 강북삼성병원 원무과로 쓰이던 경교장 내부

※ 자료 제공 : 서울시 역사문화재과

‘아베 망언’의 본질과 배경을 캔다



김삼웅
前 독립기념관장

일본정부 수뇌부의 망언은 괴질 수준

일본정부 수뇌부의 망언 시리즈는 고질병을 넘어 괴질 수준이다. 괴질이 발작하면 광기에 이른다. 조선침략, 청일전쟁, 러일전쟁, 진주만 폭격 등은 하나같이 집단광기의 발작이었다.

역사상 한번도 밑으로부터의 혁명을 겪지 못한 일본의 경우 정부 수뇌부에 광기가 발작하면 곧 국민전체, 열도 전체가 발광한다. 개인적으로는 그토록 예의 바르고 상냥하며 지적인 데도 불구하고 집단화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광적 집단주의는 전체주의로 가는 고속도로다. 이것은 고금동서가 다르지 않다.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침략전쟁을 자행할 때에 단 한 사람의 지식인도, 어떤 종교단체도 반전을 주장하거나 반전 시위에 나선 자가 없었다. ‘만세일계(萬世一系)’를 자랑하는 일본의 획일주의적 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난다. 독일, 이탈리아, 소련에서도 없는 현상이다. 1945년 8월 15일 카이로 선언과 포스담 선언의 수용을 전제로 일왕이 항복의 조서를 발표할

때에 일본은 달라지는 듯 했다. 며칠 전까지 ‘1억총 옥쇄’를 선전하며 ‘귀축영미’에 성전을 다짐하던 사람들이 점령군의 배설용으로 여성정신대를 꾸렸다. 무서운 변신이고 믿기 어려운 처신을 지켜보면서도 달라지기를 기대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지난 4월 23일 국회답변에서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 가운데 ‘침략’에 대해 “학계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정해지지 않았다. 국가 관계에서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한 발언은 그들의 항복선언에 대한 도전이고 국제사회에 새로운 침략을 예비하는 잠재적 선전포고로 볼 수 있다.

아베는 3월 12일에도 태평양전쟁 책임자들을 처벌한 도쿄국동전범재판에 대해 “승자의 판단에 의한 단죄”라고 전쟁 책임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였다. 아베의 역사인식은 일제의 침략전쟁도, 전범재판도 모두 부인하는 일본식 ‘황국사관’의 결정판이다. 일본 국회의원 168명이 떼 지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서도 일본 우익세력의 집단 의식에 나타난 침략주의 근성을 볼 수 있다. 현재 일본에는 이를 견제할 민주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써 ‘우익세력=일본’이라는 등식에서 더욱 위험성을 느끼게 된다.

다양성을 원칙으로 하는 현대사회(국가)에서 전쟁이나 침략을 미화하는 한 목소리의 독주곡은 파시즘으로 가는 길목이다. 파시즘은 전쟁을 등에 업고 다니는 괴물이다. 히틀러·뮌헨·소련·스탈린·도조 히데키 등은 파시즘의 괴물이었다. 파시즘 체제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침략전쟁 아니면 내전이라도 일으킨다.

일본 정부 수뇌부의 불치병인 ‘망언 시리즈’는 정신박약성이 아닌 괴질의 유전성이 강한 질병이다. 풍토병일 수도 있고, 왜구 이래 유전인자(DNA)의 혈통이기도 할 것이다.

아베 수상만 해도 침략자의 화려한 혈통을 갖고 있다.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만주침략과 지배의 원흉으로 흔히 ‘쇼와(昭和)의 요괴’로 불린다. 기시는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 대신으로 전시동원을 지휘하여 패전 뒤 A급 전범으로 3년간 복역하다가 ‘정치적 요술’로 풀려나고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전비(前非)를 뉘우치는 듯 하면서 결코 극단주의 노선을 취하지는 않았다.

익히 알려진대로 야스쿠니신사는 태평양전쟁 주모자로 도쿄국동전범재판에서 처형된 14명이 합사돼 있는 일본군국주의의 상징물이다. 자기네들에게는 전몰자 추모시설일지 모르지만 한국과 중국 등에는 침략의 상징이고 원부의 대상이다. 한국의 현충원이나 다른 나라들의 국립묘지와는 전혀 다른 곳이다. 일본 각료들과 국회의원, 극우세력이 틈만나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려는 의도에는 ‘침략전쟁’을 희석시키고 신군국주의 노선을 추구하려는 복심이 깔려 있다.

최근에 아베 수상은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수상이 종전 50돌을 맞아 특별사와 발언을 하였다. “과거의 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나라 정책을 그르쳐 전쟁의 길을 걸어 국민을 존망의 위기에 떨어뜨렸고, 식민지 지배 및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내용의 담화였다.

아베 정권은 이 정도의 이웃나라 침략에 대한 사과 발언까지도 견뎌드리겠다는 의도인 것이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일 뿐 아니라 일본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가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침략의 칼’을 품은 망언 시리즈

일본 정부 고위 인사들의 역사인식은 ‘침략’이라는 강도의식에 젖어 있다.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의 서두를 “강도 일본이…”로 시작했듯이,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국제강도’적인 행태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다. 1910년 한국을 병탄하면서 일왕은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제국의 안전을 장래에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여 짐의 정부로 하여금 조선 정부와 협정케 하여 조선을 제국의 보호하에 두며…”라고 총칼과 대포로 위협하여 병탄하고도 ‘동양평화’를 내세웠다. 일본 정부 수뇌부의 반이성적 주요 망언을 살펴보자.

이승만 정권시기 한일국교정상화 회담의 일본측 수석대표 구보타는 “일본에 의한 36년간 한국통치는 한국인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라는 망언을 토했다.

요시다 초대 수상은 “이토 공(公)의 길을 따라 우리는 한국에 뿌리를 심어야 한다.”라고 침략주의 근성을 숨기지 않았다. 기시 전 수상은 “일본의 자위권은 남한과 대만까지 확대 돼야 한다”라고 침략주의 근성을 숨기지 않았다.

일본 보수파의 거두 기시 전 수상은 한국에서 5·16쿠데타가 일어나기 직전에 “한국에 군사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 적은 돈으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떠들었다. 그들의 ‘희망’대로 일본군 출신들에 의해 쿠데타가 발생하자 일본 주류 세력은 이를 적극 환영했다.

박정희가 민정이양 형식으로 대통령에 취임하자 기시는 경축사절로 방한하면서 “박정희 대통령과는 부자지간과 같은 사이”라고 떠벌였다. 아무리 만주국 시절에 절친한 관계였다해도 이웃나라 대통령에게 ‘부자지간’ 운운한 것은 A급 망언이었다. 발미를 준 이쪽의 책임은

별개로 치더라도,

일본 수상의 이와 같은 국제관례를 무시하는 오만무례함에는 박정희의 비굴함과 저자세가 기인하는 측면도 없지 않았다. 박정희는 5·16쿠데타 직후 방미에 앞서 일본에 들러 이케다 수상 등 고위 정객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일본 고위 정객들에게 “선배님들”이라고 호칭하면서 “잘 모실 터이니 도와달라”고 읊소했다. 그들은 “명치유신 때의 의사(義士)를 보는 것 같다”고 만족스러워했다.

이후 일본 극우파의 한국에 대한 태도는 더욱 오만해지고, 1965년 박정희 정권의 한일 굴욕회담으로 ‘과거청산’을 마무리했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개 외무부 참서관이란 이시미가 “한국은 야만국”이라고 거침없이 내뱉고, 전두환 정권시기 후지오 문부상이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 “불만을 말하는 놈(야쓰)들은 세계사 속에서 그런 일을 안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라”는 망발을 했다. 또한 오쿠노 국토부장관은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비판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발언을 하여 외교문제를 일으키기도 했다.

미무라 오사무 내각법제부장관은 “일왕은 국내법과 국제법 어느 쪽을 보더라도 전쟁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다케시타 수상은 “2차 대전에 침략행위가 있는지는 몰라도 전쟁 자체를 침략전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침략전쟁 여부의 규정은 후세의 역사가들이 평가할 문제다”라고 아베 망언과 똑같은 발언을 하였다. 니시오카 다케오 문부상은 “일본은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켰으며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향상시켰다. 따라서 러일전쟁 당시의 해군제독 도고헤이 하치로 등 42명의 역사적 인물들을 새로 개정된 교과서에 넣는 것은 정당하다”고 망언을 늘어났다. 이같은 일본 정부 고위층의 망언 속에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DNA가 유전되고 있다.

카이로선언 등에 도전하는 망발

최근 아베 수상의 일련의 발언이 자신의 가계(家系) 혈통이거나 일시적 발작성이 아닌 일본 보수세력 본류의 역사인식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아베 정권의 ‘침략전쟁 미화’ 발언은 망언 수준을 넘어서 대단히 중대한 국제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키는 연합국의 일련의 ‘선언’을 짓밟는 행위라 하겠다.

첫째, 카이로선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카이로선언은 연합국 측의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 처칠 영국 수상, 장개석 중국 총통이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회담을 갖고 대일본전의 기본목적에 관해 채택한 코뮤니케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①3국은 일본에 대한 장래의 군사행동을 협정했다. ②3국은 야만적인 적국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압력을 가할 저지·응징을 하지만 3국 모두 영토 확장의 의도는 없다. ③제1차 세계대전 후 일본이 탈취한 태평양 제도를 박탈하고, 또 만주·대만·펑호제도 등을 중화민국에 반환하며,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에서 일본세력을 구축한다. ④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놓여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한국을 자유독립국가로 할 것을 결의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둘째, 알타회담은 1945년 2월 4일부터 미·영·소 3국 수뇌가 크림반도의 알타에서 회담을 갖고 발표한 코뮤니케이다. 이들은 전쟁수행과 전후처리, 국제연합 창설 등에 관해 합의했다. 독일의 분할점령과 비무장화, 폴란드의 국경선, 그리고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관한 협정 등이 체결되었다.

즉, 독일항복 후 3개월 이내에 소련은 대일전에 참전하며, 그 대가로 사할린과 지시마 열도를 회복하고, 만주의 중국 주권회복, 대련의 국제항 인정, 소련의 여순조차 회복 등이 합의 되었다.

셋째, 포츠담선언은 1945년 7월 26일 독일의 포츠담에서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화민국의 장개석 총통이 참석하고, 알타회담에 따라 소련이 대일 선전포고를 함으로써 8월에는 스탈린 소련 수상도 참석했다.

회담은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촉구하고, 전후의 대일 처리 방침을 밝힌 13개조 선언을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항후 일본의 군국주의 배제 △카이로선언의 실행과 일본 영토 한정 △일본군의 무장해제 △전쟁 범죄자 처벌 △군수산업 금지 △일본군의 무조건 항복 △한국의 독립보장 등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즉, 전후 세계사는 카이로 선언, 알타회담, 포츠담 선언을 중심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연합국들은 전쟁을 도발한 일본과 독일 등에 군국주의의 배제와 무장해제, 영토 제한을 엄격하게 규정하였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자신들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이들 선언과 협정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자, 국제평화체제에 대한 도발행위인 것이다.

도쿄국동전범재판의 교훈 잊지 말라

나치 독일과 일제가 항복을 선언하면서 연합국 측이 독일의 뉴렌베르크와 일본의 도쿄에 각각 국제전범재판소를 설치한 것은 포츠담선언의 규정에 따른 전후 처리의 일환이었다. 뉴렌베르크 전범재판은 나치에 대한 재판이고, 도쿄국동전범재판은 일본군국주의 전범들을 처벌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다시는 세계에서 “군국주의의 부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인류의 준엄한 이성의 심판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도쿄국동전범재판은 1946년 1월 19일 맥아더사령부 일반명령으로 공포되었다. 재판관은 일본의 항복문서의 서명 9개국인 미국·영국·중국·소련·호주·캐나다·프랑스·네덜란드·뉴질랜드와 옵서버로 인도·필리핀이 참가한 11개국의 대표로 구성되었다.

이 재판소가 다루는 범죄는 ①평화에 대한 죄(침략전쟁의 기획, 준비, 개시, 실행 또는 그 중의 것에 대해 공동 모의한 자), ②전쟁법규 또는 관계를 위반한 죄, ③인도(人道)에 대한 죄(전쟁 전 또는 전시중의 살육, 섬멸, 노예적 잔학사, 추방, 그밖의 비인도적인 행위)의 세 가지였다.

국제검사단 수석검사로 임명된 조셉 키넨은 38명의 국제 검사단을 이끌고 1945년 11월 6일 도쿄에 도착하여, 전범의 기소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피력, 재판의 의미를 제시했다.

나는 일본의 침략전쟁을 계획하고 조장한 결과 세계에 큰 파괴를 가져온 일본의 주된 지도자를 재판한다. 그러나 피정복자에게 정복자의 의사를 강요하는 일은 추호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재판은 어디까지나 공정하게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행사하겠다. 장래에도 오늘날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판의 준거법은 문명국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행해온 관습법에 의거한다. 나는 맥아더 원수로부터 임명을 받았다. 맥아더 원수가 연합군 최고사령관인 이상 나 역시 연합국을 대표한다.

맥아더 사령부는 도쿄만 미주리호 함상에서 항복문서 조인식이 끝난 9일 후인 9월 11일 39명의 A급 전범 용의자에 대한 체포명령을 내렸다.

도조 히데키 - 전 수상
도고 시게노리 - 전 외상
사마다 시게타로 - 전 해군상

가야 오키노리 - 전 대장상
기시 노부스케 - 전 국무상 겸 군수차관
테라시카 다케시 - 해군 중장, 전 우정상 등 39명이었다.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얼마 뒤 11명의 군계통의 전범 용의자를 추가한데 이어 민간인 등 각계 전범 59명에게도 체포령을 내렸다. 총 109명에게 전범 용의자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 전범에 대한 체포령이 내리자 A급 전범 도조 히데키의 자살미수에 이어 일본 본토방위 제 11총군사령관 스카야마 원수가 자살하는 등 핵심 전범들의 자살 소동이 일어났다.

3년 여의 재판 끝에 1948년 11월 12일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관들은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인사들로 구성되고, 피고인들에게는 국제재판답게 변호인이 선임되었으며 전범들의 법정진술도 충분히 보장되었다.

재판 결과 전 수상 도조 히데키 등 7명에게 교수형, 기도 고이치(전 내무대신) 등 16명에게 종신형, 도고 시게노리(전 주독일 대사) 등 2명에게는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되었다.

스가모 구치소에 수감된 7명의 교수형을 선고받은 전범들은 1948년 12월 23일 새벽 1시에 구치소에서 형이 집행되었다. 야스쿠니신사는 이 때에 처형된 A급 전범들의 유해를 중심으로 합사되었다.

전범들이 처형된 다음날《아사이 신문》은 사설을 통해 “일본 국민의 책임”을 준열하게 제기하였다. 사설의 요지다.

우선 반성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우리 국민 사이에 이 재판의 비극적 종말로 인하여 과거에 있었던 일본의 잘못이 완전히 보상되고, 국민은 일체의 책임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안이한 생각은 없는가.

또 이를 모면하여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자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이 기회에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용기가 없이 전쟁의 불길이 타오르는 대로 내버려 둔 국민성의 나약함과 도의적 책임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일곱 피고의 처형도 도쿄재판 자체도 그 의미의 태반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유네스코 현장 서두에는 “전쟁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속에서 평화의 방위가 건설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미국이 역사적 책임 깨닫기를

지금 아베 정부가 저토록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동북아 평화를 교란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는 것은 일본국민 70%의 지지율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는 데서 출발한다.

아베는 재집권과 더불어 일본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2% 수준을 목표로 통화를 발행하면서 자동차, 가전제품 등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이 회복되고, 이에 따른 기업들의 임금인상으로 소비증대, 주가 급등, 엔 약세 현상의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나타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일본은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으로 거품경제가 무너지면서 실업과 물가고에 허덕이던 청장년 세대가 아베정권을 지지하면서 지난해 12월 취임 당시 52%가 최근 70%대의 지지율로 상승하기에 이르렀다.

아베는 이와 같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2006~2007년 1차 내각의 총리 당시에 하지 못한 개헌을 통해 전범국가의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다시 침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른바 ‘자주 헌법’을 만들겠다는 야심이다.

일본은 최근 주변국들과 첨예한 영토문제를 분쟁화시키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문제, 중국과는 센카쿠열도(다오이위오) 문제, 러시아와는 쿠릴 4개섬(북방 4도) 문제 등이 그렇다. 국민들에게 가장 민감한 영토문제를 분쟁화시키면서 수구보수 세력을 응집시키고, 이를 토대로 평화헌법을 팽개치고 제국헌법 체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술책인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오만무례해 진 데는 미국의 책임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1951년 9월 4~8일 샌프란시스코의 오페라 하우스에서 열린 대일강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대일전에 참가했던 54개국이 초청되었지만 가장 피해가 많았던 한국과 중국을 제외시켰다.

두 나라의 참가에 부담을 느꼈던 일본이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로비한 결과였다. 이들은 특히 “한국의 임시정부가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 승인받지 않았다”는 것과 함께, “만약 한국이 서명국이 되면 대부분이 공산주의자인 100만 명에 이르는 재일한국인이 연합국 국민으로서 재산권과 보상청구권을 행사하게 된다”면서 반대하였다. 재일한국인들을 공산주의자로 부각시키면서, 결국 미국이 이를 수용하여 한국과 재일조선인들은 승전국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정당한 배상권도 갖지 못하고 말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가 진주만을 폭격한 직후인 1941년 12월 10일 주석 김구와 외무총장 조소앙의 공동명의로 일제에 공식적으로 선전을 포고하는<대일선전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앞서 임시정부는 1940년 9월 15일<한국광복군선언문>의 발표와 더불어 국군

으로서 광복군을 창건하였다. 광복군이 미군 OSS부대와 연대하여 항일전을 치른 것 등은 역사적 사실이다. 임시정부가 일제에 선전을 포고한 데는 광복군의 창건을 전제로 가능하였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미·영과 일본은 ‘국제법상의 교섭단체 불승인’을 이유삼아 한국의 참여를 봉쇄하면서 일본의 아시아 각국에 대한 전쟁책임, 구체적으로는 배상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소시켜 버린 것이다. 이로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국과 중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전쟁책임의 문제를 날려버렸다.

그리고 1952년 4월 28일자로 ‘평화조약’이 발효되면서 연합국의 일본점령은 끝나고, 반성하지 않은 일본은 주권을 회복하기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희생양이 되고 전범국가 일본은 국제사회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은 나아가서 전후 소련의 팽창을 막기 위해 일본의 부흥을 돕고, 과거 침략전쟁을 묻어주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반세기도 더 지난 오늘에는 중국에 대해 똑같은 이유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묵인하거나 부추기는 형세가 되고 있다.

일제가 한국을 침탈할 때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에 기회를 준 미국과 영국이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도 일본의 편을 들어 주었다. 이제 두 나라가 ‘국화와 칼’로 상징되는 일본의 이중성을 정확히 관찰하면서 평화헌법체제를 뒤엎으려는 극우파의 모험주의를 제지해야 할 차례다. 이것은 역사적인 채무일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를 담보하는 첫 길이기도 하다.

남북 대결 속에 커가는 ‘침략주의’

일본 열도에서 휘몰아치는 광풍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반도 분단의 원초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이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이유삼아 신군국주의 체제를 서둘르고 있는 현상은 참괴, 그것이다. 6·25 동족상쟁을 “하늘이 준 기회”라고 반기면서 경제부흥을 일으킨 일본이, 이제는 남북 대결의 틈을 이용하여 재무장에 나서게 되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소극으로”- 7천만 한민족에게 주는 충고이기도 할 터이지만, 남북은 적대관계만 심화시키고 있다. 일본 지도층은 한민족의 ‘동족상잔’을 즐기면서, 비웃으면서 ‘망언’을 쏟아낸다. 그 망언은 ‘침략주의’의 다른 형식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와 흥사단 100년



반 재 철
흥사단 이사장

1. 흥사단 설립자 도산 안창호

1894년 9월 15일, 청일간의 평양성전투는 매우 치열했다. 소년 안창호가 산과 들로 뛰어 놀며 자란 대동강 자락은 순식간에 쑥대밭이 되었다. 마을은 불타고 여기저기서 살육이 벌어졌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16세 안창호의 충격은 의문에 그치지 않았다. '나라에 힘이 없다.' '우리가 무력하고 약한 민족이 되었기 때문이다.' '조정은 부패하고 백성은 게으르고 나약해 졌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 '힘을 길러야 한다.'

안창호는 서울 정동에 있던 선교사 언더우드의 구세학당에 들어갔다. 그리고 고학을 하면서 열심히 공부했고 기독교 세례도 받았다. 서재필의 시국강연회를 열심히 쫓아다녔고 독립협회에 가입하고 만민공동회에도 참여하였다. 졸업을 하고 고향으로 가서 독립협회 관서지



▲ 도산 안창호 선생

부를 결성하는 과정에서 웅변으로 이름을 떨쳤다. 약관 19세를 전후하여 평안남도 일대의 애국지사들과 깊이 교류하였다. 이 무렵 안창호는 유길준의 《서유견문》을 탐독하고 그를 존경했다.

1898년 11월 독립협회가 강제 해산되고, 12월에 독립신문이 폐간되었다. 안창호는 고향으로 돌아가 점진학교를 세우고 교육 사업에 매진하였다. 그러다가 유학을 결심하고 1902년 10월에 부인 이혜련 여사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였다. 안창호는 동포 사회의 열악함과 무질서를 체험하면서 교포의 단결과 계몽을 위한 조직사업으로 삶의 방향을 바꿨다. 많은 선각 지식인들이 안창호와 결합하고 일을 도왔다. 한인친목회, 공립협회가 조직

되고 공립신보가 발행되었으며 잇따라 지방회들이 설립되었다.

1907년 세력이 커진 공립협회는 안창호를 국내로, 이강을 연해주로 각각 파견하여 조직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안창호는 1월 20일에 동경을 거쳐 귀국하였다. 동경에서는 유학생 단체인 태극학회에서 힘과 단결을 강조하는 애국 연설을 하고, 책을 통해 존경해 마지않던 유길준 선생을 만나 시국에 관해 뜻을 함께 했다. 유길준 선생은 안창호를 뒤탈라 국내로 환국하여 고종의 후원으로 흥사단을 일으켰다.

1907년 귀국해서 1910년 망명길에 오를 때까지 안창호의 활약은 눈부셨다. 각계 인사들과 신민회를 조직하고, 신민회 사업으로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전쟁준비를 해 나가자는데 합의했다. 대성학교, 마산동자기회사, 태극서관 설립 등은 안창호가 직접 나서서 선배님들을 앞장세워 설립한 것들이다. 뿐만 아니라 신민회가 일제에 눈을 피한 정치비밀결사 단체임으로 그 산하에 청년조직이 필요하여 1909년 청년학우회를 따로 일으켰다.

2. 흥사단 창립 배경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안중근의자가 있었고 이 일로 국내에서 안창호와 몇몇 인사들이 체포되어 용산헌병대에 2차례 수감되었다. 그리고 1910년 3월 26일, 안의사는 여순감옥에서 사형 집행되어 순국했다. 안창호와 신민회 간부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독립전쟁론을 최고의 구국전략으로 채택했다. 그리고 각자의 방법으로 국내를 탈출하여 국외에 독립근거지 개척과 무관학교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안창호와 일행은 4월 7일 국내를 탈출하여 회담을 약속한 청도로 갔다. 청도회담에서 여러 동지들과 신민회의 구국운동 전략을 재확인했으나 자금이 여의치 않았다. 안창호는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동지들을 다시 만났고 러시아 동포사회를 둘러보았다. 그 와중에 8.29 망국 소식을 듣고 통곡했다.

마침 미주지역의 동지들이 공립협회를 발전시켜 대한인국민회로 외연을 확대하고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연해주와 인접해 있는 북만주 봉밀산에 기지개척을 위한 토지 매입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안창호는 동지들을 설득하여 기지개척을 구체화하려 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좌절했다. 갈등과 반목의 과정에서 안창호는 인격수양과 단결훈련의 절실함을 느끼고 청년학우회의 정신을 잇는 청년훈련단체로 흥사단을 구상했다. 곁에 있던 동지 이강이 유길준의 흥사단과 명칭이 같아도 되겠는가 하고 반문했으나 안창호는 명칭이 훌륭하니 계승하겠다고 답했다.

1911년 9월 28일,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와 대한인국민회 지방회들을 아우르는 중앙총회를 발기하고 총회장에 취임하여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리고 1913년 5월 13일에 흥사단을 발기했다. 흥사단은 당시 8도를 대표하는 애국 청년들을 창립위원으로 구성했다.

안창호는 처음에 흥사단이 정치조직이 아닌 독립운동의 기초훈련단체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랐다. 안창호는 독립이후의 '복스러운 새 나라' 건설을 설계했다. 그의 민족운동은 국민기초훈련에서 출발하여 민주적사회건설로 민족의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는 결국 독립전쟁을 준비 하는 것이고 마침내 국권을 회복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최고 도달점이었다. 그래서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진정한 독립도 이를 수 없다고 웅변한 것이다. 흥사단은 바로 이렇게 국민각자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민주적 훈련을 쌓아서 사회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는 것을 기초로 삼았다.

3.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계파 간 갈등

1919년 3.1운동은 한국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알리는 적극적인 계기가 되었다. 중국, 러시아, 미국 등으로 망명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애국지사들에게는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결집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성과 노령 그리고 상해의 임시정부였다. 당시 상해에는 국내를 탈출한 지사들이 신한청년당을 중심으로 모여들었고 이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이후 국제질서 재편의 기회를 살려 국제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외교전을 벌이고 있었다.

상해 망명 인사들은 4월 10일 프랑스 조계 김신부로에서 임시의정원을 소집하고 이동녕을 의장으로, 손정도를 부의장으로 서기에는 이광수와 백남철을 각각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참여한 제헌의원원은 30인이다. 본 회의에서 조소앙, 신익희 등이 초안한 헌법을 축조심의 하였다. 신석우가 제청한 '대한민국' 국호와 연호를 제정하고 민주공화제를 골간으로 하는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채택하고 다음 날 4월 11일 이를 공포하였다. 제헌 임시의정원은 행정수반으로 국무총리제를 두고 이승만을 국무총리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내무총장에 안창호, 외무총장에 김규식, 군무총장에 이동휘, 재무총장에 최재형, 법무총장에 이시영, 교통총장에 문창범 등 6부의 총장을 임명한 뒤 4월 13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선포했다.

안창호는 1919년 1월 20일 LA를 방문한 이승만과 회동하였다. 그 후 3.1운동 소식을 접하고 3월 13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삼일운동을 계승하자'고 연설하고 재정공급의 책임을 강조한 결의문과 포고령을 채택하였다. 3월 24일에는 파리강화회의의 참석대표 위임장과 경비3500달러를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에게 송부했다. 그리고 4월 1일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에서 모금한 6천 달러를 소지하고 미주를 떠나 5월 25일 상해에 도착하였다. 한 달여 동안 북경, 상해, 남경 등을 방문하면서 동지들과 회동하고 애국연설을 하면서 이승만 총리가 임시정부에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이승만은 오지 않았고 임시정부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없었다. 안창호는 6월 28일,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였다.

취임 연설에서 안창호는 한성, 노령 등과 통합된 하나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하여 모범공화국을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미주에서 가져온 자금으로 프랑스 조계 보창로 309호에 임시정부 청사부터 마련하였다. 또한 차장급 국무원 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에 직원을 두어 임시정부 사무를 집행해 나가면서 국무총리 이승만과 부총리 이동휘를 기

다렸다. 내무총장 안창호는 임시정부 시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 첫째는 재정 확보 문제였다. “인구를 조사하고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을 확보한다. 인두세를 징수하고 군사에 주력한다. 구국 재정단을 조직한다.”

이밖에도 내무총장 안창호는 “파리와 워싱턴을 중심으로 외교에 주력한다. 국내 비밀연락망인 연통제를 실시하고 교통국을 설치한다. 북간도와 서간도에 선전원과 특파원을 파견한다. 만주 독립군조직을 정부 산하로 통합한다. 사료편찬위원회를 조직하고 독립국의 역사정립을 위한 사료편찬에 착수한다. 인성학교를 정비하여 공립학교로 출범한다. 정부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발행한다. 대한적십자회를 재건하고 독립전쟁에 대비한다.”등의 임시정부 골격을 갖추는 임무를 수행해 나갔다.

마침내 1919년 9월 11일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되고, 11월 4일 대통령 이승만, 국무총리 이동휘, 내무총장 이동녕, 재무총장 이시영, 법무총장 신규식으로 내각이 구성되었다. 이 때 안창호는 노동총판으로 물러났다. 대통령 이승만이 상해에 도착한 것은 1년 후 1920년 12월 8일이었다. 그러자 1921년 1월에 국무총리 이동휘가 임정을 사임하고 연해주로 떠나버렸다. 임시정부는 계파 간 갈등으로 시련에 봉착했다. 안창호도 1921년 5월 11일에 노동총판직을 사임하고 임시정부를 나왔다. 이어서 이승만도 체제안정에 실패하고 6월 초 상해를 떠나 미국으로 돌아갔다.

4. 홍사단 중국조직의 발족과 활동

1919년 안창호는 통합임시정부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중국으로 망명해 있는 애국청년들과 접촉하면서 홍사단 중국 조직을 준비해 나갔다. 독립운동 진영의 혼란과 분열을 우려하여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고 청년층의 홍사단 영입을 조용히 추진해 나갔다. 안창호를 따르는 남녀 청년층이 하나 둘 모여들어 집회가 성사되고 활기가 넘쳤다. 정예 청년들이 도산의 입단문답을 거쳐 홍사단에 입단하였다. 1920년 봄, 안창호는 프랑스 조계 모이명로에 홍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목사인 박선제를 미주에서 불러들여 서무와 경리의 직책을 맡기고 김항주에게 조직책임을 맡겼다. 1920년 9월 20일 마침내 중국에서 홍사단이 발족할 수 있게 되었다. 발족위원은 안창호를 비롯하여 이광수, 주요한, 손정도, 차리석, 이규서등이었다. 그 해 12월 29~30일 홍사단 제7차 대회를 상해에서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 1916년 홍사단 연례대회 장면. 가운데 도산 안창호 선생이 보이며 사진 오른쪽이 도산의 부인 이혜련 여사이다. 건물 중앙에 홍사단의 영어 약자인 YKA (Young Korean Academy)와 건물 오른쪽 한문으로 興士團이 새겨져 있다

안창호가 홍사단 청년들에게 강조한 것은 첫째가 도덕적인 역량을 갖추는 일이었다. 그리고 체력과 지력을 기르고 대공(大公)을 위하여 봉사하고 희생하는 정신을 강조했다. 여기에 생산 기술로 경쟁력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이 힘이라고 강조했다. 단체 생활에서는 민주적 역량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훈련을 강조했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안창호는 신용의 힘, 지식의 힘, 금전의 힘이 민족의 3대 자본이라고 강조했다.

홍사단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이러한 힘을 길러나갔다. 특히 홍사단 조직의 중심부가 있는 미주지역에서는 벼농사로 크게 성공한 김종립, 임준기, 신광희, 광림대 등 홍사단원들이 북미실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일으켰다. 이들이 중심이 되어 1920년 2월 안창호의 지도로 군사연구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 군무총장 노백린을 앞세워 북 캘리포니아 윌로우市에서 한인비행학교를 설립했다. 1920년 10월 16일,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재무총장 이시영의 명의로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기부한 임준기, 김종립, 신광희, 김승길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중국에서 홍사단 조직이 성립되자 국내 평양과 서울에서도 홍사단 조직이 생겨났다. 국내의 경우는 일제 강점기로 치안이 살벌하였기 때문에 정치운동에 불간섭주의를 표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창호는 홍사단운동이 인격수양이라는 틀에 갇히는 것을 우려하여 ‘홍사단 운동이 곧 독립운동’이라고 환기시켰다.

안창호가 활동하고 있는 상해의 홍사단 조직은 임시정부의 재정후원사업과 교육사업, 이 상촌사업 등의 활동으로 집약된다. 특히 임시정부의 재정후원사업은 홍사단 원들이 중심이 되어 한국노병회, 임시정부경제후원회, 공평사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5. 홍사단과 임시정부 후원 사업

홍사단 중국 조직은 단체의 규약에 준하는 월례회, 반모임 등 수련활동을 전개해 나가면서 개인별로 안창호와 함께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독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1921년 3월 임시정부 노동총판인 안창호는 3.1절 기념식 연설에서 국민대표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2월 27일 이시영, 신익희가 안창호에게 이동휘 후임으로 총리직을 맡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안창호는 이를 사양했다. 안창호는 임시정부 내 계파 간의 갈등을 매우 우려하여 독립운동 진영의 대동 통일을 위한 국민대표회의 준비로 방향을 수정했던 것이다. 안창호는 국민대표회의 설립 준비에 공을 들였다. 이 일에 송병조와 차리석 등 홍사단원들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국민대표회의는 임시정부 고수파, 개조파, 창조파 등으로 대립된 채 2년여 만인 1923년 5월 15일 63차 준비회의를 끝으로 해산되었다.

국민대표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원동홍사단이 중심이 되어 계파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1922년 7월에 안창호 자택에서 시사책진회가 결성되었다. 시사책진회는 조상섭, 송병조, 이유필, 차리석, 이강, 손정도, 김봉준 등 홍사단원과 이동녕, 여운형, 조동호, 노백린 등 30명이 참석하였다. 그리고 11월 28일, 이들이 중심이 되어 임시정부 외곽단체로 한국노병회가 창립되었다.

한국노병회는 향후 10년 간 1만 여명의 노병을 양성하고 100만 원 이상 전쟁비용을 조성한 후 무장투쟁을 통해 조국의 광복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김구가 초대 이사장에 취임하였다. 경리부장으로 선출된 이유필은 전쟁비용과 운영 경비 마련을 위해 입회금, 기부금, 저금이자, 연금 등으로 하고, 연명별, 회원등급별, 납부 액수를 정하는 등 재정조달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추진해 나갔다. 한국노병회는 1932년 10월 28일 해산되기

까지 약 10년간 장기 존속했고, 독립전쟁 준비에 여러 가지 값진 교훈을 남겼다. 독립전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했던 것은 독립운동사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훌륭한 계획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유필 등 홍사단 원들은 이러한 위대한 장기구상의 중심에서 활동했다.

국민대표회의 결성이 실패한 이후 안창호는 이당치국에 착안하여 독립운동 진영의 통일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대독립당 결성운동을 구상하면서 홍사단 동지들과 함께 독립운동 근거지 건설계획에 전념했다. 남경과 진강 일대, 산해관, 금주, 남양, 광동지역까지 답사하는 등 후보지를 물색하느라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1924년 1월에는 북만주 일대와 서북간도 독립군 대표들과 만나 대독립당 조직을 호소하였다. 그리고 3월에 미주홍사단의 자금 후원으로 남경에 1500평의 기지를 구입하여 동명학원을 설립하였다. 상해에서는 4월 5일, 홍사단청년들이 모여 상해청년동맹을 결성하고 홍사단운동의 중요성과 대독립당의 필요성과 항일 역량을 결집시키고 이를 위한 근거지 건설추진의 결의를 다졌다. 유일당운동으로 칭해지는 이 과정에 임시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조상섭, 이유필, 안공근, 송병조 등 홍사단원들이 1926년 5월 독립운동축성회를 결성하고 안창호와 함께 대독립당 건설에 앞장섰다.

한편, 임시정부는 안창호가 미주 순회 방문차 상해에 부재한 가운데 1926년 5월 8일 안창호를 임시정부 국무령으로 선임했다. 마침 미주에서 5월 16일 상해로 귀환한 안창호는 국무령 취임을 사양하고 대신 미주 출신의 홍진을 국무령으로 추대하였다. 안창호는 조상섭, 박창세, 김보연, 엄항섭, 선우혁 등 홍사단원들과 함께 홍진 내각의 재정을 후원하기 위하여 6월에 임시정부경제후원회를 발족하고 초대 위원장을 맡았다. 조상섭은 초기에 서무주임을 맡아 7월에 여운형과 협력하여 임정경제후원회 명의로 1차 모금액 4백여 원을 임정에 전달하였다. 국무령 홍진은 그 해 11월 안창호와 함께 대독립당 추진을 위해 임정을 사임했다. 새 국무령에 김구가 선출되었다. 임정경제후원회는 군자금조달을 위하여 위원 6명을 두고, 이들을 국내외에 파견하여 상당량의 군자금을 모금하여 국무령 김구에게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지속하였다. 1927년 조상섭은 국무령 김구를 도와 신현창, 양기하와 함께 임시정부 재무간사를 역임 하기도 하였다. 홍사단원 송병조는 1930년 8월에서 11월까지 임정 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김구를 도왔다.

임시정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활동은 홍사단 중국조직을 중심으로 계속되었다. 1931년 3월 29일, 홍사단의 조상섭, 차리석, 장덕로 등 20여명은 경제합작운동으로 창립했

던 동인호조사를 재편하여 공평사를 조직했다. 조상섭은 공평사 이사장대리를 맡았고, 경리는 장덕로가 맡았다. 조상섭은 지난 10여 년간 임정을 후원하기 위한 독립운동 자금의 필요성을 절감해 오던 중 이를 조달할 목적으로 1931년부터 투자금을 모아 1932년 10월에 원창(元昌)공사라는 큰 상점을 내고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元昌은 조상섭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6. 맺음말

안창호의 좌우통일과 단결의 대독립당 운동은 1928년 7월 코민테른 6차 대회의 결의에 따라 좌익모험주의가 독립운동의 공식노선으로 채택됨에 따라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유일당추성회는 공식 해체되었다. 안창호는 이에 굴하지 않고 본격적으로 대공주의를 제창하였다. 즉, 이데올로기 대립을 상대화하고, 비타협적 항일투쟁 노선을 견지하고, 정치, 경제, 교육, 민족의 4평등을 기초로 민족우선의 통일주의로 민주주의적 통일국가를 이루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1929년 2월, 홍사단 동지들에게 “홍사단이 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혁명단체”임을 선언했다. 이러한 노선은 같은 해 11월 광주학생운동 이후 상해 홍사단의 신언준, 차리석 등 지도부 중심으로 미주와 중국과 국내의 세 지역의 홍사단 이념과 노선을 일치 시키기 고 ‘혁명대당의 일지대’로 한다는 위상을 재정립하게 된다. 이리하여 1931년 12월 초 홍사단 사무소에서 우선 민족진영 만으로라도 중국 국민당측과 항일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대일전선통일동맹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그리고 1932년 1월18일부터 상해에서 좌우통합을 강조한 제18차 홍사단중국대회가 개최되었다.

안창호는 원동홍사단과 의열단, 한국독립당 간부를 중심으로 강령, 정책, 조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고 토의하면서 대일전선통일동맹 회의를 일주일 간격으로 소집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거로 안창호가 피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독립운동 진영은 큰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안창호의 형무소 수감이후에도 홍사단원들은 안창호의 통일운동의 뜻을 되살려 1932년 10월 25일 민족주의 진영으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공식 발족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1937년 7월,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그리고 미주의 대한인국민회, 애국부인회, 애국당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좌우연합의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일명 한국광복진선)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독립운동은 일본의 중국침략과 대평양전쟁 발발 등으로 매우 험난한 여정을 걷게 된다. 미주와 중국 홍사단원들은 각자의 속한 위치에서 생명과 재산을 바치면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였다.

홍사단은 처음 창단시기에는 독립운동의 기초훈련단체로 출발하였으나, 1919년 3.1운동 이후 적극적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1930년대 이후로는 독립혁명단체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었다. 이는 시대 변화와 요구에 따라 홍사단의 사명도 적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정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해체되고 한데 비해 홍사단이 꾸준하게 100년의 역사를 이어 온데에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각자의 삶을 존중하고 단결하면 힘이 될 수 있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녀의 구별도 없고 계층이나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홍사단을 특수한 교육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도산 안창호가 독창적으로 마련한 ‘동맹수련’이라는 교육방법 때문이다. 건전인격과 신성단결은 바로 동맹수련을 통해서 힘을 가지며, 그 힘으로 독립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규식(金奎植, 1881.2.~1950.12.)과 김순애(金淳愛, 1889.5.~1976.5.)



윤 경 로
한성대 명예교수

1. 머리말

20세기 제국주의시대 외세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해야했던 나라와 민족이 적지않았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만큼 40여년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외세의 침략과 식민지배로 고통을 받은 민족과 나라는 흔치 않다. 더욱이 이토록 국권을 강점당한 긴 기간동안 한시도 쉬없이 줄기차고 가열차게 독립운동을 전개한 민족 또한 찾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렇듯 긴기간 동안 국내는 물론 세계 각처에서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함성과 투쟁이 쉬지 않았으니 이를 추동한 독립운동단체와 독립운동가들 또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어느 단체와 한 인물을 꼽을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애국지사들이 있다. 역사적 보배이자 자랑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에 소개하는 김규식 박사와 김순애 여사 부부 경우도 한국독립운동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의 한 부분이라 할 것이다. 애국지사이자 독립운동가로서의 김



▲ 파리강화회의에 참석한 김규식 선생(맨 앞줄 오른쪽)

규식 박사와 김순애 여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양인의 세세한 독립운동 궤적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양인의 개인사를 주로 살펴보았으면 한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한국독립운동사에 나타나는 수많은 애국지사 부부 가운데 김규식·김순애 만큼 부부가 동등하게 평가받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양인의 경우 부부관계이면서도 독립운동의 독자적 영역을 갖고 다양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2. 미국에서 귀국후 조은수와 첫 결혼

김규식과 김순애 부부는 1919년 1월 28일 김규식 39세, 김순애 31세로 당시로서는 대단히 늦은 만혼의 나이에 결혼의 연을 맺었다. 이렇듯 김·김 부부 인연이 늦어진대는 남다른 사연과 인연이 있었다. 김규식은 1906년에 이미 결혼한 바 있다. 그해 5월, 어린시절부터 출석했고 미국 유학후 귀국해서도 줄곧 봉사하고 있던 한국 최초의 장로회 조직교회인 새문안 교회에서 11살 아래인 15세의 조은수(趙恩受)와 결혼하였다. 당시로서 신부의 나이는 적령이

었으나 26세의 신랑은 매우 늦은 노총각이 아닐 수 없었다. 신부 조은수는 과거 지방군수를 지낸 조창식(趙昌植)의 무남독녀였다고 한다.

이날 혼례식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혼례식으로 치러졌으니, 이는 신랑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어린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다년간 미국유학을 다녀온 신랑이고 더욱이 교회에서 하는 혼례를 우리의 전통 방식으로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혼례식을 고집한 사람이 다름 아닌 신랑 김규식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김규식이 그만큼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과 의식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아닌가 싶다. 다시 말해 김규식의 이러한 자기인식은 그가 미국생활을 하면서 자기 정체성(identity)이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아무튼 이렇게 조은수와 결혼한 김규식은 여성도 앞으로 신학문을 공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신부를 정신여학교에 보냈다. 한편 김규식은 노일전쟁의 전운이 감돌고 있던 1904년 미국에서 돌아온 후 여러 회유와 유혹을 물리치고 자신의 모교회인 새문안교회 재직으로 선교사 언더우드의 비서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황성기독교청년회(YMCA)와 경신학교, 배재학교 등에 나아가 강의하는 등 기독교계 일에만 전념하였다. 이 시기 그의 활동 중 별반 알려지지 않은 행적을 하나 소개하면 1908년 ‘대한매일신보 사건’ 때 통역을 맡은 일을 들 수 있겠다. 1908년 7월 ‘국채보상회령협약’로 대한매일신보 사장 베텔(Betell, 裴說)이 구속되고 편집인 양기탁(梁起鐸)이 공판에 회부되어 재판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영국인 검사 출신으로 당시 일본 고베(神戸)에서 활동하던 변호사 크로스(C. N. Crosse)가 본 사건의 변호사로 선임되어 변론을 맡았다. 그는 물론 영어로 변론과 증인 신문을 했는데 이때 그의 영어변론과 증인 신문 일체의 통역을 맡은 이가 바로 김규식이었다. 이때 김규식의 통역은 매우 완벽하고 훌륭했다고 한다. 통역이 끝난 후 김규식의 역언(譯言)은 ‘통역의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provide an admirable interpreter)’는 평은 이러한 사실을 잘 전해준다.

1910년 결혼한 지 4년만에 김규식·조은수 부부 사이에 사랑의 첫 열매인 진필(鎭弼)이 태어났으나 생후 6개월만에 사망하였다. 그해는 민족적으로도 김규식 개인에게도 매우 불행한 해였다. 그러나 2년 뒤 1912년 건강한 둘째 진동(鎭東)을 얻고 가정이 안정되는 듯 했으나 그도 오래가지 못했다. 그해 6월부터 재판이 시작된 일종의 기독교대박해사건에 해당하는 「105인사건」을 조작날조한 일제당국에 의해 신민회(新民會)를 비롯한 국내 반일민족세력과 기독교계 지도부 인사들이 줄줄이 묶여져 영어(囹圄)의 몸이 되었다. 김규식은 이 사건의

전말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참아오던 일제에 대한 분노와 반일감정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다. 말하자면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기도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중국으로의 망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3. 중국으로의 망명과 김순애와 결혼

1910년 8월 일제에 의해 국권이 강점된 이후 김규식은 깊은 시름과 분노에 빠졌다. 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열심으로 신앙생활에 전력했지만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민족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만 갔다. 김규식은 힘의 지배논리 앞에 조국의 허약함과 자신의 무력함을 이때만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없었다. 따라서 실추된 국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역시 독립운동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32세되던 1913년 4월 중국 상해로의 망명은 이러한 배경에서 결행되었다. 이로써 우사(尤史) 김규식은 1945년 11월 한국하기까지 만 32년간의 해외 망명생활을 하게 된다. 이 긴 기간에 우사는 독립운동 지도자로 혹 외교관으로 그리고 대학교수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했지만 대체로 분노와 좌절과 실의의 시간이 더 많았다. 더욱이 그는 언제부터인가 지병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여건으로 그에게는 옆에서 그를 간호하고 돌보아줄 손길에 절실하게 필요했다. 그러나 그의 부인 조은수 또한 병약한 몸으로 결국 1917년 말 폐병으로 작고하고 말았다.

김순애와의 결혼식은 1919년 1월 중국 남경(南京)의 한 선교사 집에서 조촐하게 올려졌다. 김규식과 김순애의 부부인연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되었던 일이었는지 모른다. 남경에서 결혼식을 갖게된 연유는, 이때 김순애는 남경에 있는 명덕여자학원(明德女子學院)에 수학중이었는데 그녀의 친오빠이자 김규식의 절친한 친구인 김필순(金弼淳)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익히 알고있듯 김필순과 김규식은 어린시절부터 가까운 친구로 새문안교회에 함께 다니는 등 가까이 지내던 터라 집안간에도 잘 알고 지내던 형제같은 사이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조은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김순애와의 혼담이 오고간 바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순애와 조은수는 정신학교 동창으로 둘 사이도 매우 가까웠다고 한다. 조은수가 병이 깊어지자 남편 김규식에게 자기가 죽으면 “김순애와 꼭 결혼하라”고 유언했다는 말이 전해질만큼 김규식과 김순애 사이의 인연은 일찍부터 있었고 결국 두 사람은 부부인연을 맺

게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순애와의 남다른 인연에도 불구하고 조은수와 사별 2년 후에야 비로소 양인의 혼인이 이루어졌으니 그 이유는 이러했다. 김규식이 중국으로 망명할 즈음 김순애는 국내에서 정신여학교를 졸업한 뒤 부산 초량소학교(草梁小學校) 교사로 재직 중이었다. 말하자면 김규식은 중국으로, 김순애는 부산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런데 김순애에게 문제가 생겼다. 교사 재직중 일제의 한국역사 교육금지 조치가 있자, 김순애는 자신의 하숙집에 학생들을 불러모아 우리역사를 가르쳤는데 이 일이 발각되어 신변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에 그녀는 세브란스병원 의사로 근무하고 있던 오빠 김필순에게 이러한 사정을 전했다. 이때 김필순 역시 일제의 감시를 받고 있던차라 차제에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기로 결심하고 1912년 만주 통화현(通化縣)으로 망명하였다.

이후 김순애는 1915년 9월 남경(南京)으로 옮겨 명덕여자학원(明德女子學院)에서 수학중이던 1917년 조은수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오빠 김필순 역시 소식을 들은 후 동생 순애와 친구 김규식에게 결혼할 것을 강력하게 권유했다고 한다. 그 결과 2년 뒤인 1919년 1월 두 사람은 드디어 혼례의 연을 맺게 되었다. 결국 두 사람의 만남은 운명적이었고 망명 독립운동가로서의 동지적 결합이었다.



▲ 20대 무렵의 김순애 선생

결혼 후, 상해(上海)로 이주한 이들 부부는 이후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다. 1차세계대전이 종언을 전후하여 세계 역학관계의 대변화의 움직임 속에 러시아 혁명과 월슨의 민족자결주의 제창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약소민족국가들은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1918년 8월 상해에서 여운형(呂運亨)·서병호(徐丙浩)·김철(金澈)·조소앙(趙素昂)·조동호(趙東祐) 등을 중심으로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이 조직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이어 김규식이 1919년 1월 파리강화회의에 한국민족대표로 파견되고, 김순애 또

한 신한청년당의 이사(理事)의 한사람으로 선우혁(鮮于赫), 서병호 등과 함께 국내에 밀파된 것도 이때였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국내에 전함과 동시에 독립운동 자금모금을 위해 국내에 잠입한 김순애는 1919년 2월 선편으로 부산으로 가 그 곳에서 백신영(白信永), 대구에서 김마리아, 서울에서 함태영(咸台永) 등을 만나 김규식 일행의 파리강화회의 파견 등 최근 정세변화를 설명하며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의 움직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간행된 이정식(李庭植) 교수의 저서 내용 가운데 김규식이 파리로, 김순애가 국내로 파견되기에 앞서 두 사람 사이에 아래와 같은 대화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나는(김규식) (파리에) 가서 일제의 학정을 폭로하고 선전하겠다. 그러나 나 혼자의 말만을 가지고는 세계의 신용을 얻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신한청년당에서 서울에 사람을 보내어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 가는 그 사람은 희생을 당하겠지만, 국내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어야 내가 맡은 사명이 잘 수행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독립에 보탬이 될 것이다”(이정식, 『여운형』, 160~161쪽, 서울대학교출판부, 2008)라고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은 김규식·김순애 부부의 기대는 적중했다. 파리로 파견된 김규식은 일제의 학정과 한민족의 독립의 정당성을 알리는 동안 국내에서 3·1운동이 발발하여 이를 만국평화회의의 참석한 각국 대표자들과 언론에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독립운동을 펼쳤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국내에 머물며 정세를 파악하고 있던 김순애는 국내에서도 독립운동이 준비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자 그녀는 중국으로의 귀환을 미루고 만세운동에 참여하려 했다. 그러나 주위 여러 동지들이 적극 말렸다고 한다. 특히 함태영은 “그러다 잘못되면 파리에 가 있는 김규식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러면 민족의 대업 완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며 극구 말려 중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4. 김규식에 못지 않은 김순애의 독립운동 활동

김규식이 파리와 미주를 무대로 다양한 외교독립운동을 전개하던 1919년 1월부터 1920년 말까지 아내 김순애는 상해에서 대한애국부인회(大韓愛國婦人會)를 결성하여 임시정부 요인들을 돕는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3·1만세운동을 눈앞에 둔 1919년 2월 중국 여자로 변장

하고 압록강을 건넌 김순애는 흑룡강성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던 오빠 김필순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국내에서 3·1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을 접한 그녀는 그 지역의 한인동포들을 규합하여 독립만세시위운동을 계획 추진하던 중 일경에 피체되어 일본영사관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그 지역에서 의사로 신망이 높았던 오빠의 주선으로 중국 관원의 호의를 받아 상해로 돌아올 수 있었다.

상해로 다시 귀환한 김순애는 1919년 7월 이화숙(李華淑)·이선실(李善實)·강천복(姜千福)·박인선(朴仁善)·오의순(吳義順) 등과 함께 ‘여성의 독립운동 참여와 지원’을 목적으로 대한애국부인회를 조직하여 회장직을 맡았다. 이 단체는 곧 국내에서 김마리아 등 정신여학교 출신을 중심으로 비밀리에 서울에서 결성한 대한민국의애국부인회, 평양에서 김정희(金敬喜) 등이 조직한 대한애국부인회 등과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리고 독립자금을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동시에 독립운동자들의 가족들을 뒷바라지하고, 우리나라 지도와 태극기 등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직·간접적인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밖에도 김순애는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 조직된 대한적십자회의 사검(查檢)·이사 등으로 활동하였고, 이듬해 1월에는 그 부설기관으로 간호원양성소를 설립하여 다수의 간호원을 양성 배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1920년 9월부터 상해의 대한인거류민단(大韓人居留民團)을 중심으로 해외 한인교육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한 민족교육기금 조성운동에도 앞장섰다. 당시 여운형(呂運亨)이 교장으로 있던 상해 한인동포 자제들을 위해 세운 인성학교(仁成學校)의 유지비를 지원하고, 교사 신축비를 모금하는 등 상해지역 거주 한인들의 자녀교육을 위한 후원기금 모금에도 적극 나섰다.

김순애는 1923년 1월부터 5월까지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의에 대한애국부인회 대표로 참석했다. 이때 임시정부의 향후 노선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즉 창조파(創造派), 개조파(改造派) 등으로 대립하면서 임시정부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어 독립운동력이 전보다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김순애는 애국부인회 여성동지들을 독려하며 개인적으로 사바느질도 하고, 하숙도 치고, 와이셔츠 공장도 경영하면서 임시정부 운영에 필요한 자금마련에 앞장섰다. 1926년 7월 안창호(安昌浩)·송병조(宋秉祚)·엄항섭(嚴恒燮) 등의 이름으로 조직된 임시정부경제후원회(臨時政府經濟後援會) 역시 김순애를 중심한 애국부인회 소속 여성동지들의 헌신적인 활동이 큰힘이 되었다.

한편 이 시기 파리강화회의와 구미위원부에서의 활동하던 김규식은 1921년 1월 상해로 돌

아와 다시 그해 11월 상해를 다시 떠나 몽골과 러시아 이르크츠크를 거쳐 1922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동방피압박민족회에 대표로 참가하여 다시한번 외교독립론을 펼치는 등 주로 해외에서 활동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그에따라 심신이 매우 지쳐있었다. 본래부터 병약한 몸메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그는 이후 한동안 독립운동 일선에서 물러나야했다. 누구보다 아내 김순애의 간곡한 뜻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얼마간 쉬면서 몸과 마음을 추수린 김규식은 1923년 남화학원(南華學院) 설립을 계기로 한동안 교육자 활동에 하였으니 이때 복단대학(復旦大學)과 동방대학(東方大學) 등에서 영어교수로 활동하였다. 이 기간동안 그간 함께 지내지 못했던 아내와 모처럼의 단란한 가정생활을 가질 수 있었다. 1928년 3남 진세(鎭世)가 태어나는 기쁨을 얻게된 것도 이때의 일이다.

1930년 초부터 다시 김규식·김순애 부부는 독립운동 일선에 나서게 된다. 그해 김규식은 임시정부 학무장에 피선되었고, 김순애 또한 한국독립당 산하의 여성 독립운동단체인 한인여자청년동맹(韓人女子靑年同盟)의 집행위원으로 선임되었다. 본 동맹은 한국독립당과 임시정부를 측면적으로 지원하면서 3·1운동 기념일에는 항일 격문과 전단을 제작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그러던 중 1932년 4월 29일 윤봉길 의사의 홍구공원 투탄 의거가 있었다. 이 의거는 독립운동 진영을 크게 고무시키는 한편 일제의 탄압 또한 매우 강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1933년 1월 김규식이 중한민중통일동맹(中韓民衆統一同盟) 대표자격으로 도미하여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강연회모금운동을 펼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였다.

그러나 반면 이 사건 이후 임시정부 등에 대한 일제의 탄압과 공격은 더욱 심해졌다. 임시정부가 상해를 떠나 항주(杭州, 1932)·진강(鎭江, 1935)·장사(長沙, 1937)·광둥(廣東, 1938)·유주(柳州, 1938)·기강(1939) 등지를 떠돌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러다가 중국 국민당의 후원으로 1940년 9월 중경(重慶)으로 옮겨오면서 민족의 모든 역량을 대일 항전에 결집하기 위한 민족통일전선 형성에 나서자 각각의 사회단체들도 주의와 정파를 초월하여 통합운동이 추진되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규식은 1941년 1월 조선민족혁명당 주석에 선임되었고 이어 임시정부 국무위원과 선전부장에 피선되었다.

부인 김순애 역시 1943년 2월 중경에서 한국애국부인회 재건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차원에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는데 이 대회에서 그녀는 재건된 한국애국부인회 주석에 선임되었다. 재건 한국애국부인회는 “국내외 부녀는 총단결하여 전 민족 해방운동과 남녀평등이 실현되는 민주주의 신공화국 건설에 적극 참가하여 분투하자”는 행동강령을 선포한 뒤, 각종 매체를 통해 국내외 동포 여성들에게 민족적 각성을 촉구하며 독립운동 참여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외에도 의연금품을 모아 광복군을 위문하는 등 독립운동 지원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던 중 1945년 8월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던 것이다. 김규식 또한 1944년 4월 임시정부 부주석에 피선되어 활동하던 중 해방을 맞이하여 그해 11월 23일 김구주석 등 임정요인들과 함께 귀국하여 혼탁한 해방정국에 직면해야 했다. 익히 아는대로 해방공간에 진행된 복잡한 정치적 국면과 혼미한 남북협상은 결국 좌절되었고 이어 우리민족사의 최대비극인 6·25전쟁이 터지고 말았다. 전쟁이 발발한 그해 김규식은 납북되어 1950년 12월 평북 만포진 부근에서 서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내 김순애는 1976년까지 생존하여 활동하였는데 귀국 후 모교인 정신여자중·고등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 등으로 활약하면서 주로 기독교 육영사업에 진력하던 중 1976년 5월 17일 87세를 일기로 영면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맺음말

이상에서 약술했듯 김규식·김순애 부부는 명실상부한 애국독립운동지사 반열에 우뚝 선 독립운동가 부부이다. 역사에서 만약이란 가정은 성립되지 않지만 이들 부부가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 활동했다면 이들 양인은 누구보다 훌륭한 학자와 교육자로서 한국사회에 크게 기여한 부부가 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규식의 성품과 개성에 비추어 볼 때 그는 정치가, 독립운동가보다는 교육자 혹은 종교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타고난 인물이다. 상해로 망명하여 1919년 1월 신한청년당의 특사자격으로 파리강화회의에 참가한 이래 상해 임시정부 외무총장·학무총장·부주석, 그리고 민족혁명당의 주석을 거쳐 환국 후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하는 등 평생을 민족문제에 진력했지만 사실 그의 선천적인 자질과 성품은 정치쪽보다는 교육자·학자, 그리고 종교지도자로의 천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학자·교육자로서의 자질은 중국 망명생활 동안 십수년간의 대학교수생활에서 잘 나타난다.

우사는 1923년부터 상해 복단대학(復旦大學)과 동방대학(東方大學)에서 영문학 강의를 시작으로 이후 중국의 여러 대학에서 영문학 교수와 학자로 이름을 떨쳤다. 1924년 모교인 로노크대학(Roanoke College)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후 1920년대 말부터 1945년 환국하기 전까지 영문학 교수와 저술가로서 우사의 명성은 높았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천진(天津) 북양대학교(北洋大學校)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1936년부터는 성도(成都)의 사천대학(四川大學)에서 영문학 강의를 했고 또한 남경(南京) 중앙정치학원(中央政治學院)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또한 영문학 저술가로서의 명성이 높았으니 그의 영문 저서로 『엘리자베드시대의 연극입문』(Introduction to Elizabethan Drama, 1940)을 비롯해 『실용영문작법』(Hints on English Composition Writing, 1944)과 『실용영문』(Practical English, 2vols, 1945), 그리고 1945년 일본군에 대한 연합군의 승리에 접하며 ‘자유·평화·정의를 위해 싸우다 이름없이 쓰러진 중국·한국 그밖의 연합국 용사들에게 바친다’는 『양자유경(揚子幽景) : 전승을 기념하여』(The Lure of the Yangtze : In Memoriam Victoriae, 1945) 등이 말해주듯 우사 김규식은 학자·교육자로서의 품성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러한 성품과 인격은 아내 김순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겠다. 

일제식민통치시대 기독교와 민족운동



박 정 신
숭실대 기독교역사학 교수

하나 : 기독교와 우리 겨레의 각별한 만남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기독교(개신교)와 우리 역사, 특히 민족운동의 역사와 이어 보려는 노력에 인색하다. 그 이유는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독교가 서양제국의 아시아 침탈과 더불어 왔다는 부정적 생각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가 보편종교여서 우리의 특수한 역사로부터 잉태된 민족주의와 이어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도식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초월적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기독교와 특수한 우리의 민족주의 운동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이념적·조직적 이음새를 아예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운동의 역사에 술하게 등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도 말이다. 이러한 도식적이고 몰 역사적인 시각으로는 우리 역사의 마당에서 기독교와 우리 겨레가 뒤엉켜 씨름하면서 엮어 놓은 그 특수한 모양새들을 읽어낼 수가 없다.

물론 기독교는 서양 제국주의의 '서세동점' (西勢東漸)의 거센 물결을 타고 아시아 여러 나라에 왔다. 그래서 약탈자요, 침략자의 종교로 인식되어 토착민들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를테면, 인도를 식민지로 만든 영국이 전해준 기독교를 인도 사람들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없었고, 아편전쟁까지 벌리며 중국에 들어온 영국이 전해준 기독교를 중국 사람들이 마음

열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그 보기도.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총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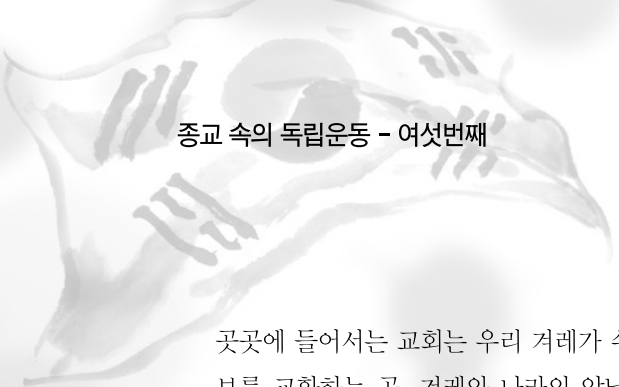
그러나 기독교와 우리 겨레의 만남은 이와는 너무도 달랐다. '서세동점'의 물결을 타고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왔지만, 19세기 말에 펼쳐진 특별한 역사적 상황은 우리 겨레로 하여금 기독교를 적대시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의적으로 바라보게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줄지어 교회로 들어가는 이변을 낳게 되었다. 익히 알고 있듯이, 1876년 운양호 사건을 획책하여 강제로 강화도조약을 체결케 한 일본제국은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 광산개발이나 산림개발 등에 착수하면서, 명치유신으로 특권을 잃은 수많은 사무라이 실업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 약탈과 수탈의 경제활동을 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나라가 기독교를 전한 서양제국이 아니라 비기독교국가인 이웃나라 일본이었다는 사실이 서양 기독교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졌다는 말이다.

일본제국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개혁하려는 젊은 지식인들과 유교사회에서 천대 받던 하층민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 서양문물을 전하는 교회로 들어왔다. '서양화한' 일본의 침략 야욕 앞에 놓인 조선에서는 개혁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당시 개혁 지식인들(젊은 양반들)은 기독교화(化)가 조선 개혁의 길이고, 조선 개혁이 곧 기독교화로 인식할 정도로 기독교에 호의적이었다. 그래서 다른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와는 달리 이 땅에서 유독 기독교가 빨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 뻗어나갔던 것이다. 이른바 '개혁공동체'로서 말이다.

요컨대, 19세기 말 20세기 초, 그러니까 일본제국이 우리나라를 강탈하기 전에 펼쳐진 '새 교육·새 문화·새 사회운동'의 한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가 있었고,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운동을 주도하였다. 가령, 독립협회 운동이 그 큰 보기도. 구한말 펼쳐진 우리의 특수한 역사상황에서 기독교와 우리 겨레는 이처럼 각별하게 만나 서로 손잡고 함께 역사를 만들어 갔던 것이다.

둘 : 일제 식민통치시대 기독교와 민족운동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우리 겨레를 수탈한, 이른바 일제식민통치시대에는 기독교와 우리 겨레가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나라 잃어 애통하고 낙담하는 우리 겨레를 위로하고 해방의 새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기독교였다. 특히 일제식민통치 초기, 이른바 무단통치시기에 우리 겨레는 집회·언론·결사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인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활동공간이 종교 활동과 조직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우리 겨레는 종교 활동과 조직을 소중하게 여겼다. 기독교가 우리 겨레의 종교로 자리매김한 것이 바로 이 암흑기였다. 나라



곳곳에 들어서는 교회는 우리 겨레가 쉬이 모일 수 있는 곳, 만나 서로 위로 하는 곳, 여러 정보를 교환하는 곳, 겨레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곳, 독립운동을 도모하고 모의하는 곳이 되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독립 쟁취 움직임이 기독교 공동체 안팎에서 일어났다. 20세기 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 미국인은 기독교를 반일 혁명 활동의 “온상”(hotbed)이라고 했을 정도였다. 일제 식민통치세력의 한 기밀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는 반일 독립운동의 “소굴”(巢窟)이었다. 밀정들을 보내 교회를 감시하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한 이유가 그 때문이다.

일제 식민 통치세력은 “교회로 몰려드는 크리스천 무리를 보고 이들은 왜 이렇게 자주 모이고 또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예의 주시하고 감시하였다. 매일 새벽에 모이는 새벽기도회, 수요일 기도모임, 일요일 낮 예배와 저녁예배 등 적어도 일주일에 열 번이나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 감시다”, “십자가 군병들이 주 위해 일어나”와 같은 전투적 찬송가들을 소리쳐 불러댔다. 이집트에서 노예 살이를 하다가 해방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족속의 역사를 읽고 또 읽으며, 우리 겨레의 ‘해방’을 간절히 기리는 공동체가 기독교였다. 강대한 이웃 블레셋과 싸워 이긴 일, 소년 다윗이 팔레스타인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유다 민족이 바빌론에 포로 되었다가 풀려난 역사와 같은 구약성서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그날을 고대하는 계시록을 비롯한 신약 성서를 읽으며, 낙담을 털어버리고 새 소망을 꿈꾸는 공동체였다.

원산에서 시작된 작은 회개운동이 1907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간 ‘대부흥 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어서 1910년과 1911년에는 ‘백만 구령운동’이 일어났다. 한 곳에서 숙식을 함께 하며, 앞서 말한 전투적 찬송가를 목청 높여 불렀고, 성서의 ‘해방’ 언어와 상징을 공유하였다. 이런 운동을 통해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대한 종교 공동체로 성장하였다. 긴 이야기를 짧게 줄이면, 증가되어만 가던 신자 수, 확대되어만 가던 교회 조직과 전국적 조직망, 빈번한 모임, 이들이 가진 해방의 언어와 상징, 그리고 묵시론적 소망과 전투적인 찬송가 등을 함께 묶어 새길 때, 당시 기독교는 그야말로 우리 겨레 최대의 조직 공동체였고, 또한 새 소망을 지닌 활기 넘치는 피식민지인의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일제 식민통치세력이 기독교를 반일운동의 ‘소굴’로 간주하고 감시하며 탄압하였던 것이다.

셋 : 일제시대 “삼대박해”(三大迫害)를 통해 본 기독교 민족운동

기독교와 우리 겨레의 근·현대사 사이의 이음새를 연구하며 한국기독교사연구의 첫 돌을

놓은 역사학자 김양선에 의하면, 일제 식민통치시대에 있었던 “삼대박해”는 1911년에 일어난 <105인사건> 때, 1919년 <삼일만세운동> 때, 그리고 1930년대 후반의 <신사참배거부운동> 때 일어났다고 한다. 흥미롭게도 이 ‘삼대박해’는 기독교 공동체와 깊게 이어져 있다. 아니 기독교가 없었다면 이른바 ‘삼대박해’를 초래케 한 사건이나 운동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삼대박해’를 초래케 한 사건과 운동을 되새기면서 기독교와 우리 민족운동의 이음새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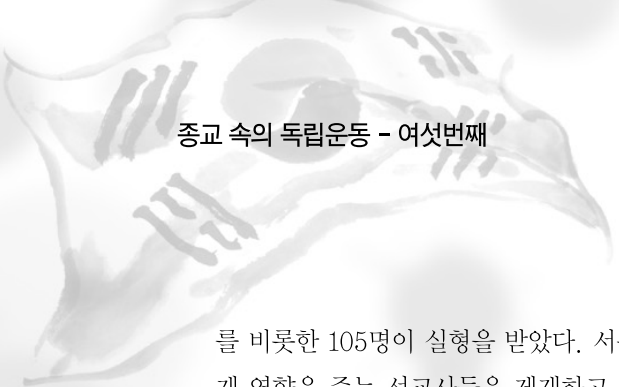
가. <105인사건>

1905년 통감부가 설치될 때부터 우리 겨레는 일본의 식민지화 획책에 강력하게 맞섰다. 일본제국과 손잡은 이완용 등을 처단하려는 <이재명사건> 등이 그 보기다. 그러다가 1910년 우리나라를 강탈하고 총독부를 세워 식민통치를 시작할 때 가장 큰 골칫거리가 기독교 공동체였다. 일제가 무시할 수 없는 서양 여러 나라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 그리고 나라 잃어 기댈 곳 없어 애통하는 조선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공동체, 신앙적으로 심리적으로 굳게 뭉친 기독교인들, 해방과 소망의 언어와 상징을 가지고 활기 넘치게 반일 혁명 활동의 ‘소굴’이 된 이 종교공동체가 눈엣가시였다. 아무래도 이 공동체 안팎에서 반일독립운동이 터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이에 철퇴를 가한 것이 바로 <105인사건>이다.

1910년 12월 안중근 의사의 사촌동생으로서 북간도 망명 중인 안명근이 평북 선천지방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던 중 평양역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제는 황해도 지방, 그 중에서 유독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성장하고, 교육·문화·정치적으로 큰 영향을 행사하던 안악 일대의 기독교인들과 신지식인들, 재산가들을 엮어 160여 명을 검거하였다.

일제 식민통치 세력의 이 음모 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평양을 중심한 서북지방의 기독교 조직과 영향력의 급등현상, 또 이에 터한 민족운동 세력의 우려할만한 움직임에 철퇴를 가하기 위해, 서북지방과 서울 중심의 기독교 공동체를 함께 엮어 역모사건으로 확대·날조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신민회>나 <상동청년학원> 그리고 <청년학우회>와 같은 단체들이 윤치호, 안창호, 이승훈, 이동휘, 전덕기 같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움직임을 미연에 차단하고, 기독교와 민족운동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괴하기 위해 이른바 ‘데라우찌’(寺內正毅 총독 암살모의) 사건으로 확대시켰다.

윤치호, 양기탁, 유동열, 이승훈, 안태국, 변인서, 차이석, 윤원삼, 길진형, 김두하 등 수백 명을 체포했는데, 그 중 조사와 공판에 회부된 사람이 122명이었고, 1차 공판에서 윤치호



를 비롯한 105명이 실형을 받았다. 서북지방과 서울의 기독교 민족주의자들, 그리고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선교사들을 제재하고 억압하려는 일제 식민세력의 조작극이 이른바 <105인 사건>이었다.

공판에 회부된 122명 가운데 112명이 평안도 출신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야, 비로소 이 사건의 실체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구한말부터 다른 지방에서와 달리 평안도와 황해도, 그러니까 서북지방에서 기독교가 재빨리 뿌리를 내리고 가지를 쳐 뻗어나갔다. 서북지방의 중심도시인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대학인 기독교대학 숭실이 모든 것의 중심인 한양이 아니라 평양에서 문을 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선천 신성학교 교장인 맥쿤(George S. McCune) 등 여러 선교사들도 고초를 치렀는데, 맥쿤은 이 사건으로 추방되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기독교가 우리 겨레의 종교 공동체로 급성장하고, 우리 겨레의 염원인 독립을 쟁취하려는 움직임이 이 공동체 안팎에서 나오자, 일제 식민통치 세력이 철퇴를 가한 사건이 <105인 사건>인 것이다. 보편종교인 기독교가 당시의 특수한 우리네 역사 전개에서 민족주의와 손을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나. <삼일운동>

1919년에 일어난 <삼일운동>이 어떤 운동이었고 언제, 왜 발발하였는지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거족적으로 일어난 일제 식민통치 시대 최대의 반일대중운동인 이 <삼일운동>이 우리 겨레 모두가 일제 식민통치 세력에게 한꺼번에 원한과 분노를 분출시켜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전국규모의 대중운동으로서 <삼일운동>을 엮어낸 ‘민족대표’라는 중앙지도부의 형성과정은 어떠했고, 중앙지도부와 각 지방 시위세력과의 연락 및 연대는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어떤 조직과 연락망을 통하였기에 서울에서 촉발된 시위를 각 지방, 각 지역, 각 도시와 각 마을에서 따라 거의 동시에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는가 하는 사회사적 이해는 부족하다.

중앙지도부의 형성과 운동 초기의 지도적 운동꾼 포섭에 <신한청년단>(新韓靑年團)의 역할이 우선 눈에 띈다. 이 단체는 기독교계의 여운형, 김규식, 선우혁 등이 <105인사건>을 전후하여 상해로 망명해 만든 독립운동 단체다. 국제정세에 밝은 여운형과 김규식 등은 1차 세계대전 이후 펼쳐지는 국제 정세를 읽고, 특히 유럽의 평화정착 과정에서 나온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고무되어, 조선민족도 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할 적절한 시기가 왔다고 인식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어를 잘하는 김규식을 평화회담장으로 보내 각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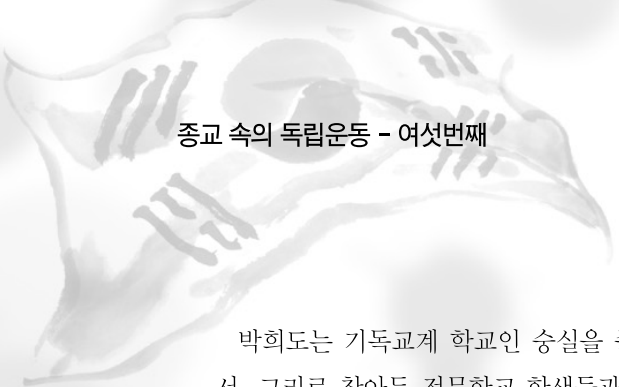
외교관들에게 조선민의 독립 열망을 알리기 위하여 파리로 파견하였다.

한편, 국내운동을 위해서는 선우혁, 서병호, 김철 등을 국내로, 장덕수를 일본으로 비밀히 파견하였다. 자신이 기독교인이자 서북 기독교계와 깊은 관계가 깊은 선우혁은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방에, 역시 기독교인이자 서울 기독교계를 잘 아는 서병호는 서울에, 천도교계와 밀접한 김철은 서울로 비밀리에 들어와, 각기 맡은 지방의 종교 지도자들과 접촉하였다. 전국적인 대중시위를 위해서는 조직적인 토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조선 사람들의 유일한 조직 공동체를 가진 종교계 지도자들의 선도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신한청년단> 간부들은 간파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북지방에 밀파된 선우혁은 당시 조선교회를 대표하는 길선주 목사, 양전백 목사, 이승훈 장로 등을 만나 국제 정세를 설명하고, 독립을 위한 전국 만세 시위운동에 앞장설 것을 설득했다. 이들이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이른바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였던 것이다. 이후 선우혁은 길선주의 주선으로 앞서 말한 오산학교의 이승훈 장로를 비롯한 이 지방 기독교계 중견 지도자들인 변인서 목사, 김선두 목사, 강규찬 목사, 도인권 목사, 윤원삼 목사, 김도삼 목사, 김동원 장로, 이덕환 장로 등을 만나 이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약속 받았다. 아, 그리고 보니 이들은 바로 <105인사건> 때의 동지들이 아니었던가. 서병호와 김철도 역시 서울에서 각기 기독교계와 천도교계 인사들을 만나 선우혁과 비슷한 활동을 하였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

서북지방 기독교 공동체의 대표적 지도자들과 각 지방의 중견 지도자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받아냈다는 것을 이들의 개인적인 참여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전국 규모의 대중시위를 위해 지도부를 이를 대표단 확보에 더하여, 지방지도자, 연락망, 조직, 그리고 시위를 촉발할 대중 동원을 확보한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바로 이들이 시위를 비밀리에 계획하는 장소, 곧 교회를 가지고 있고, 각 지방과의 연계를 위한 연락망이 될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위를 촉발키 위한 선도 시위대, 곧 교인들을 동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대중운동으로서 <삼일운동>의 역사를 새길 때 장로인 이승훈과 와이엠씨에이(YMCA) 청년부 간사인 박희도의 역할 또한 지나칠 수가 없다. 이른바 민족대표로 나타난 중앙 지도부 구성을 위해 천도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지도자들과 합작하는 과정, 그리고 서울과 서북지방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연계·연합시키는 과정은 이승훈의 역할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조선 사람들, 특히 기독교 지도자들이 삼엄한 감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훈은 종교행사 참석을 구실로 서울과 서북지방 사이를 빈번히 오가며 종교지도자들의 연합전선을 구축하는가 한편, 각 지방교회 지도자들을 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끌어들이었다.



박희도는 기독교계 학교인 숭실을 졸업하고 신학을 공부한 뒤 와이엠씨에이에서 일하면서, 그리로 찾아든 전문학교 학생들과 중학생들을 조직하여 시위를 모색하고 있었다. 연희의 김원벽과 윤하영, 보성의 강기덕과 주익, 세브란스의 이용설과 김성구 등이 이 그룹에 속해 있었다. 바로 이 기독교학생들과 청년들이, 그리고 그들의 친구들이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집집을 돌며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이 있고 이어 시위가 있을 것이라는 운동계획을 알린, 이를테면 ‘현장 운동꾼들’이었다. 이들이 바로 그들의 고향 등 각지로 가서 시위를 선무하고 주도한 이들이었다. 이들이 중안 지도부와 대중 사이를 잇지 않았다면 3·1운동은 전국적 대중운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희도 산하의 학생과 청년 그룹을 보기로 들었지만, 당시 각 교회의 학생, 청년들이 모두 이러한 현장 운동꾼들로 활약하였다.

짧게 말해서, 사회, 정치 조직과 활동이 금지된 암흑기에 교회, 교회계통 학교, 교회관련 기관이라는 조직, 연락망이 없었더라면, 그리고 사회, 정치 지도자들이 없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도 없었더라면 3·1운동의 내용과 규모는 실제로 나타난 것과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민족의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고, 그들은 그 역할을 스스로 떠맡아 그들이 갖고 있던 조직망을 이 거사에 동원하였던 것이다. 기독교가 정치집단은 아니지만, 집회·결사·언론의 자유를 송두리째 빼앗긴 일제 초기를 살아야 했던 조선 사람들에게는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들이 유일한 조직 공동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 공동체와 민족독립운동세력은 깊게 물려있을 수밖에 없었다.

다. 〈신사참배거부운동〉

1910년 일본제국은 조선을 식민통치할 때부터 신사참배를 권유해 오다가,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대륙진출을 도모하면서 국민정신 총동원을 구실로 우리 민족에게 그들의 신사에 참배할 것을 강요하기 시작했다. 특히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고 신사참배가 강요될 때, 우리 민족 구성원 거의 모두가 신도 신사에 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해 참배하였다. 비종교계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계 학교도 교장과 교사가 앞서고 학생들이 뒤에 서서 줄지어 신사를 찾아 참배하였다. 학교에서도 아침 조회를 비롯하여, 여러 행사 때마다 일본 천황이 일본제국의 수도에 산다고 하여 동쪽을 향해 절하는 의례인 이른바 동방요배(東方遙拜)를 하였다. 그런데 거의 모든 조선민족 구성원들이 황국신민(皇國臣民)으로 당연히 이 ‘국가의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일부 기독교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던 것이다. 1938년 그들이 속한 교단이 ‘국가의례’라고 신사참배를 결의하였을 때도 이들은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며, 감옥으로 가 고문 받거나 또는 망명하

였으며, 숭실대학과 같은 학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폐교의 길을 갔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신사참배거부운동에 들어서게 하였는가. 도대체 신도는 무엇이고, 신사참배는 또 무엇인가. 신도는 일본민족의 신이며 일본천황의 조상이라는 ‘아마테라스오미가미’(天照大神)을 신봉하는, 한마디로 일본의 국가종교이다. 이 신을 모시는 곳이 신사이며 이에 참배하는 것은 일본 사람으로서는 국가의례요, 종교적인 의식일 터이다. 1889년 일본은 제국헌법을 제정하여 발표했는데, 이 제국헌법 제1조에는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고 하였고, 제3조에는 ‘천황은 신성해서 침범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제정일치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본의 ‘고쿠타이’(國體)에 터한 ‘신도 국가주의’(Shinto nationalism)임이 분명하다.

여기서 일본제국의 제정일치의 전통, 특히 신도의 우두머리 신이 일본을 세운 ‘아마테라스오미가미’라는 주장, 일본의 천황은 사람의 몸을 입은 그의 후예로서 일본을 통치한다는 것, 그래서 신사를 찾아 그를 섬기는 것은 모든 일본 사람들의 도리라는 ‘신도 교리’를 밝히 읽게 된다. 짧게 말해, 천황은 신이고, 신도는 일본 종교이며, 신사는 종교 기관인 것이다. 이처럼 신도라는 일본제국의 종교가 천황제도와 ‘융해’(fused) 신사참배라는 종교의식이 국가의례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참다운 기독교인이라면, 특히 일제의 폭압 아래 짓밟히고 있는 조선의 기독교인이라면, 이 신사참배문제는 단순한 국가의례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믿는 바’의 문제, 다시 말하면 종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게 신사참배는 역사학자 김양선의 지적대로, ‘기독교와 신도를 동일진리’로, 또 ‘아마테라스오미가미와 그리스도를 동일동위의 신’으로 놓는 배역행위였다. 그리하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거부운동〉을 벌이게 되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라는 십계명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들이다. 평양에 있던 숭실대학이 이른바 신사참배거부로 1938년 폐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좁은 길’을 택하는 일이 얼마나 큰 희생을 담보로 한 결단인가를 새삼 성찰케 한다.

넷 : ‘기독교민족주의’가 있었다

일제식민시대 말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소수의 사람들이 그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진 보편종교, 곧 기독교 신앙 때문이었다. 이는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와 보편종교는 서로 엇갈 수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우리는 보편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특수한 민족주의에 대항한 여러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지 않는

다. 기독교 목사 본헤퍼(Dietrich Bonhoeffer)가 나치 독일의 인종주의적 민족주의와 치열하게 맞선 신념은 보편종교인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나왔다. 일본제국이 천황숭배를 골간으로 하는 국가(민족)주의를 내세울 때 무교회(無敎會)운동으로 유명한 우찌무라 간조(內村鑑三)는 이를 온 몸으로 거부하였는데, 이른바 1891년에 일어난 그의 '불경사건'(不敬事件)은 초월적이고, 그래서 보편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터한 그의 신념과 이어져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시각과 결론을 모든 경우에 도식적으로 적용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 보편적인 종교와 특수주의적인 민족주의 또는 국가주의가 서로 '결연'(alliance)되거나 '융해'(fusion)된 경우도 인류 역사에 숱하게 있기 때문이다. 가령, 중동의 역사를 읽으면 이슬람이라는 종교와 아랍민족주의가 어우러진 이슬람 민족주의가 있고, 폴란드에는 가톨릭과 민족주의가 이어져 저항한 솔리다리티(Solidarity)운동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으며, 신부 아글리페이(Gregorio Aglipay)를 따르는 아글리파얀(Aglipayan, 필리핀 독립교회)과 필리핀 민족주의와 얽힌 역사도 우리는 읽는다. 이처럼 종교와 민족주의가 공동의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역사적 상황에서는 둘은 결연하거나 융해되었던 것이다. 식민지 상황이 그러하고 정치적 억압이 있을 때가 그러하다.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종교와 민족주의가 식민세력이나 정치적 압제세력과 같은 공동의 '적'에 맞서 싸우는 이유나 동기가 다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둘이 취하는 방법과 수단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보편적인 종교와 특수주의적인 민족주의가 결연되거나 융해되었을 경우라도 둘 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있기 마련이다. 보편적인 종교의 가르침과 특수한 지역 또는 나라에 사는 이들의 종교공동체에 대한 기대 사이에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의 행동, 동기, 그리고 수단이나 방법은 비(非)종교적 민족주의자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 때문에 그들을 비(非)민족적이라든가 반(反)민족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는다. 역사에는 정치적 민족주의가 있는가 하면 문화적 민족주의도 있고, 경제적 민족주의가 있는가 하면 종교적 또는 윤리적 민족주의도 있는 것이다. 국수주의적 민족주의도 있고 자기 성찰적 민족주의도 있다.

그래서 한국민족주의를 연구하는 로빈슨(Michael Robinson)도 '민족주의란 아주 넓고 포괄적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열린 시각과 포괄적 인식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민족운동 또는 민족주의의 다양함을 읽을 수 있다. 

정읍 항일 운동사의 재조명



이 홍 로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I 머리말

1909년 군벌계열의 제2차 가쓰라다로(桂太郎) 내각 수상 야마가다 아리또모(山縣有朋)는 내각 첫 시정 연설을 통해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려면 주권선(主權線)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익선’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는 어쩌면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중국과 맞닿아 있는 조선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이익선의 논리는 일본의 주변국인 조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조선을 그들의 이익 선으로 먼저 발아래 두어야 한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상기시킨 말이다.

예로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차지하려는 야욕이 강한 나라였고, 그런 노력들 또한 집요했던 나라다. 특히 19세기에 앞서 16세기에 발발했던 임진왜란은 그런 그들의 야욕이 드러났던 대표적인 사례였다.

때문에 정읍에서는 우리나라 의병창의의 역사 또한 ‘임진왜란’을 크게 1차 국난 시기로 설정하고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이인좌의 난’ 등의 굵직굵직한 사건 당시

일어섰던 의병창의 역사가들이 결국 구한말의 의병창의로 연결되었다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읍의 향토사를 통해 바라본 정읍지역의 항일운동은 왜구들의 크고 작았던 침략 당시 때부터 때로는 부분 전으로, 때로는 전면전으로 대응했던 역사들도 고스란히 항일운동으로 구분하여 정읍지역 독립운동역사로 분리, 조명하고 있다.

또한 한말의 독립운동 역사 역시 일반적으로는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시작된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사로 인정하고 있지만, 정읍에서는 지역의 향토사적 특성상 1894년 9월 봉기가 대일 항전의 의거(義舉)였다는 해석과 함께 그 시기 또한 9월 봉기 당시를 그 시작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정읍지역에서의 항일운동 시작점은 한말에 있지 않고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이유는 중세와 근대로의 구분은 시간의 흐름일 뿐 일제의 침략은 시대를 뛰어넘어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항일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읍지역의 그런 일반적인 인식은 만일 동학농민혁명과 3·1운동이 없었다면 일제강점기 이후 36년 동안 수 없이 계속되던 독립운동사 역시 그 원류와 맥 또한 이어질 수 없었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읍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는 임진왜란 발발 초기부터 앞서 지역의 큰 학자이던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의 실천유학을 바탕으로 행동강령에 나섰던 창지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1537~1593), 고경명(高敬命, 1533~1592), 김제민(金齊閔, 1527~1599) 등 모두 42위의 제자와 후인들이 참여했으며 그 역사 또한 깊다.

정읍의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는 시대를 뛰어넘어 임진왜란 당시부터 시작된 구국을 위한 투쟁정신으로 이어져 훗날 정묘호란(丁卯胡亂)과 병자호란(丙子胡亂) 당시에도 수많은 의병과 열사들을 배출했다.

그런 투쟁 정신이 구한말의 국난상황에서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졌고, 그 정신이 계승되며 천도교의 3·1운동으로, 지속적인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던 오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을미의병(1895년) 이후 이어지던 을사·병오 항일항쟁에 이어 1907년 한국군 해산 이후 또 다시 시작된 정미 항일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던 해석과는 다른 것으로 구한말의 저항 방식 또한 민중과 유림 등의 저항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894년 9월 봉기다. 당시의 봉기는 서민 대중들을 이끌던 구한말의 첫 1차 항쟁이었으며, 2차 항일항쟁은 유림들을 주축으로 1906년 무성서원에서의 일어났던

병오년(丙午年) 무성창의(武城倡義)를 그 두 번째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읍지역 항일 독립운동사의 생성과 변천 과정을 비롯해 정읍의 항일 의병사가 인근지역들과는 연결되어 있었으며, 개인적 혹은 조직적 항일 운동을 펼치던 의병들이 어떤 활동들을 펼쳐왔는지를 문헌기록과 현장의 구전내용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정읍지역의 항일운동

1. 임진왜란과 정읍지역 항일운동

정읍지역에서 시작된 초기의 항일운동은 앞서 주지했듯 임진왜란 초기의 상황으로 참전의 병들 대부분이 일재(一齋) 이항(李恒, 1499~1576) 선생의 제자들이었다. 정읍지역 초기의 항일운동은 우리나라 항일의병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만큼 매우 빠르고 조직적이었으며 또한 매우 강력한 의병활동으로 전개됐다.

그것은 생전 일재 이항의 유지를 받들어 임진왜란 이전부터 차근차근 국난의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있던 제자들이 주축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임란 발발과 함께 거병에 나섰던 건재(建齋) 김천일(金千鎰, 1537~1593) 장군, 오봉(鰲峰) 김제민(金霽閔, 1527~1599) 장군 등의 일재 이항의 제자들 34위였다.

정읍선비들의 의병활동은 1592(선조 25)~1598년까지 2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일본의 침략 전쟁에 이어 1636년(인조 14) 12월부터 1637년 1월까지 청(淸)나라가 조선을 침략하여 일어났던 병자호란(丙子胡亂) 때에도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나 국가 수호에 나섰던 기록들이 현재까지도 남아있다.

정읍선비들의 그런 애국애족의 정신은 일재 이항 선생의 사상이 후대로까지 전해졌기 때문이다. 서울 출생인 이항 선생은 기묘·을사사화 이후 정읍에 낙향해 여생을 보내며 학문과 정치를 분리한 채 가급적 현실적 정치문제를 직접 거론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다.

그러면서도 병학(兵學)과 유학을 모두 섭렵하며 현실정치에도 관심을 버리지 못하고 제자들을 통해 국난에 대비토록 했다. 생전의 일재는 “학불식만리자통(學不息萬理自通, 배우기를 쉬지 않으면 모든 이치가 절로 통한다)”는 강마 정신을 주지시켰다.

아울러 주자의 “이(理)없는 기(氣)없고, 기(氣)없는 이(理)없다”는 말을 기본으로 삼아 이와

기의 관계에 관한한 “불상리 불상잡(不相離不相雜)”을 초지일관하면서 자신이 이기혼연일물설(理氣渾然一物說)론을 전개했다.

곧 “오직 나누어질 것을 말할 것 같으면 그 체는 하나라 할 것이요, 나누어진 것을 말할 것 같으면 둘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합하여 말할 것 같으면 하나라 할 것이니 대저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해야 할 것”이라는 사상이었다.

이항 선생의 이와 기, 태극과 음양, 도와 기의 관계에 대한 정립과 이론은 그의 자득에 의한 것으로 당시의 고봉 기대승(高峰 奇大升, 1527~1572)과 율곡 이이(栗谷 李珥, 1536~1584)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데, 훗날 율곡 이이의 십만양병설도 바로 ‘이기혼연일물설’의 영향이라는 설도 분분하다.

그런 이항 선생의 사상에 동조했던 주변사람들과 문맥들이 대부분 훗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전국으로 흩어져 의병활동에 나섰다. 앞의 김천일과 김제민을 비롯해 변사정, 안의, 손홍록, 김후진, 김대립 등과 같은 의병장과 수많은 의사들도 바로 그런 맥락에서 배출되었는데, 바로 이항의 그런 가르침 때문이었다.

이항 선생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비록 전장에 나아가 왜군과 맞서지는 않았지만 전주 경기전(慶基殿)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태조 어진(御眞)을 구하고 지켜내, 오늘날 국보 151-1호와 국보 317호로 지정되게 했으며, 그중 조선왕조실록은 1997년 10월 1일 유네스코가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도 했다.

임진왜란 당시 정읍의 선비 안의(安義, 1529~1596)와 손홍록(孫弘祿, 1537~1610)을 비롯한 다수의 정읍 선비들은 사재(私財)를 털어 조선왕조실록과 태조 어진을 구해내 내장산에서 1년여를 지키다 선조宣祖(1552~1608)의 명으로 충남 아산까지 운반한데 이어 정유재란에는 묘향산까지 자력으로 옮기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얼마 전까지도 이들의 공적은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임진왜란 당시 정읍지역에서 초기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인사들은 현재 문헌기록상으로만 나타나는 의사만도 약 100여 명에 이르지만 단순 또는 동조 참여자들을 합하면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연안 모든 해역의 제해권을 장악했던 성웅(聖雄) 이순신(李舜臣) 장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라는 불후의 명언을 남겼다. 이것은 ‘만약 호남이 없었으면 국가도 존속될 수 없었다.’는 말이다.

그 같은 언급은 1593년 7월 16일 그의 친구 사헌부 지평 현덕승에게 쓴 편지에 수록된

내용이다. 정읍의 초대 현감을 거쳐 전라 좌수사로 부임했던 장군의 그 같은 말은 국가존망의 위기에서 그나마 조선이 지탱될 수 있었던 것은 호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함이다.

또한 거기에는 호남의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一)과 초토사(招討使) 고경명(高敬命), 모의사(募義士) 김재민(金齋閔) 그리고 정읍의 선비 안의(安義)와 손홍록(孫弘祿) 등이 있어 우리의 역사가 지켜질 수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킨 말이다.

임진왜란 당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의병들은 위의 주요 인물들 이외에도 손승경(1540~1592), 이영국(?~?), 이경주(?~1592), 이수일(1524~1616), 김 명(?~1597), 김 성(1567~1629), 김등룡(1550~1637), 임희건(?~1597), 류희사(?~1597), 이천립(1541~1608), 김계복(?~?), 안양우(?~1592), 이원신(?~?), 하광수(?~1592), 김 습(1574~1638), 박문효(1568~1593), 송지순(1547~1615), 이대축(1555~1637) 등 모두 100여 명에 이른다.

『호남절의록(湖南節義錄)』에 기록된 임진왜란 당시의 정읍 전투는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 8월 16일, 왜군의 남원성 함락과 25일, 전주성의 함락 이후 직산(稷山)에서 전투에서 조차 패했던 전북의병들이 9월 14일, 금구현 전투에서는 치고 빠지는 접전을 벌이며 왜군 주력부대를 격파한 후 남하하는 적들과 대치하며 일어났다.

금구(金溝) 전투에서 패배한 왜장 유천조신(柳川調信)과 도진충풍(島津忠豐) 등은 정읍에 모여서 의논한 끝에 남으로 내려가기로 하였는데, 이를 정읍회의(井邑會議)라 한다. 이후 유천조신 등은 나주와 옥과를 경유하여 남해를 거쳐 사천성(泗川城) 등으로 남하했다.

당시 왜군들이 머물던 정읍 각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데 입암산성(笠岩山城)에서는 수성장(守城將) 윤진(尹軫)이 유경인(柳景仁), 유성인(柳成仁), 유극인(柳克仁) 형제와 함께 가동 50여 명을 거느리고 적과 싸워 적 20여 명을 참살하고 승세를 몰아 추격하였으나 격전 끝에 유경인이 적에게 해를 당했다.

임진왜란 당시 입암산성의 1문 3의사(一門三義士)는 바로 이들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밖에도 입암산성에서는 이경국(李敬國)이 안국(安國)과 영국(榮國)의 두 아우와 함께 입암산성을 방어하다 분투 끝에 전사하자 수성장 윤진이 칼을 빼들고 적들에게 달려들어 수 십여 명을 참살하고 적장의 칼을 빼앗았다.

하지만 윤진은 이튿날 아침에 활시위가 끊어지고 화살이 다하자 북향통곡하고 말하기를 “중과부적(衆寡不敵)이니 한이로다.”하고 적진에 돌격하여 이안국과 함께 순절하였다. 이후

조선 조정에서는 윤진을 선무원종공신(宣武原從功臣)에 녹훈하고 병조판서(兵曹判書)를 증직했다.

입암산성 수호를 위해 나섰던 또 다른 의병 유윤근(柳潤根)은 산성 북문 밖 오봉치(五鳳峙) 아래에서 졸지에 적의 기습을 받았다. 이 때 여러 군졸들이 모두 흩어졌으나 그는 홀로 창을 들고 적진에 돌격하여 수십 명을 참살하였는데 갑자기 창이 부러지자 적을 피해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산 위까지 추격해 올라오는 적을 보고 암석을 굴리며 대항하다 형세가 급박하게 되자 돌연히 뒤따라 온 적장 한 사람을 붙잡고 함께 바위 아래로 떨어졌다. 왜적은 둘이 모두 죽은 줄 알고 그대로 철수했는데 그는 얼마 후에 소생했다.

입암산성 밖 전투에서는 사현(沙峴)에서 벌어진 이허량(李許樑)과 왜군의 전투가 가장 치열했다. 이허량은 장정들을 뽑아서 사현에서 적들과 항전했지만 휘하의 군사들이 모두 전사하자 홀로 단도를 가지고 수십 명의 적을 참살하고 몸에 많은 상처를 입고 전사하였다. 이때 유희진(柳希津)도 이 당시의 전투에서 희생됐다.

위의 입암산성을 비롯한 우치(牛峙), 사현(沙峴), 등지의 전투를 편의상 정읍 전투라고 『호남절의록』은 기록하고 있다.

2. 병자호란과 정읍지역 항청운동

병자호란(丙子胡亂, 1636년 12월~1637년 1월) 당시에 출병했던 의병들은 임진왜란 때보다는 수적인 측면에서는 참여가 작았지만 일제 이항의 학맥을 이어받은 후인들이 임진왜란 때처럼 항청의병에 나섰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뜻 깊은 역사가 아닐 수 없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관민(官民) 모두에게 그 어느 변란보다도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남한산성에 피신해 있던 인조(仁祖, 1595~1649, 조선 제16대 왕)가 적에게 포위·고립된 채 국왕으로서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아울러 청의 태종이 황제를 자칭하며 조선으로 하여금 명에 대한 사대(事大)를 단절하고 그와의 군신관계를 요구하며 쳐들어 왔다는 측면에서 앞서 임진왜란을 경험했던 조선의 관민들에게 청의 침략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때문에 조선의 관민 대부분은 청을 배척하는 척화(斥和)를 부르짖었고 각 지방의 선비들은 위기에 처한 국왕을 구하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창의가 대거 일어났다.

병자호란 당시에 참여했던 당시의 의병들은 수 없이 많지만 문헌에 남은 인물들은 『호남병자창의록(湖南丙子倡義錄)』 제1권의 「열읍유사제현명록(列邑有司諸賢名錄)」에 나타난 지역 대표들 28위만 수록되어 있을 뿐이다.

병자호란에 참여했던 정읍 의병장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정읍(井邑) : 오언방(吳彦邦), 고원후(高遠厚). 고부 : 도유사(都有司) 조극눌(趙克訥), 최경행(崔敬行), 김지문(金地文), 김지영(金地英), 박광형(朴光亨), 김지서(金地西), 김 습(金 習), 김지수(金地粹), 김남식(金南式), 김태운(金泰運), 김 기(金 基), 김세무(金世茂), 손 실(孫實). 태인(泰仁) : 김득룡(金得龍), 김 정(金 淵), 김기종(金起宗), 김계종(金繼宗), 김우민(金友敏), 김우정(金友正), 김휘정(金輝挺), 김두정(金斗挺), 김 감(金 堪), 최응립(崔應立), 권 박(權 璞), 백함생(白咸生), 배용성(裴龍成).

3. 구한말 정읍지역 항일운동

구한말 정읍지역에서의 항일운동 지역 향토사의 특성상 구국을 위한 오랜 항쟁의 역사에서부터 비롯됐다 할 수 있다. 특히 구한말의 항일 저항운동은 앞서 주지했듯 1894년 9월 제3차 봉기를 그 시작점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아직도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는 못하고는 있지만 1894년 9월 봉기는 침략국 일본을 격멸하기 위해 일어섰던 민족항쟁이자 자연 발생적으로 정읍지역 백성들이 일어나 ‘보국안민, 척양척왜(輔國安民 斥洋斥倭)’를 외쳤던 민중항쟁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국제정세는 19세기에 접어들며 자본주의를 앞세운 서구 열강들은 세계 곳곳을 식민지화 시켜 그 나라들의 정치, 경제 등 자원적 측면의 모든 자산들까지 모두 침탈하는 참담한 상황이 자행되고 있던 상황이었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국제정서에는 둔감하기만 했었다.

당시까지도 중국의 중화사상에 젖어 중국을 향해 신하를 자처하며 조공을 바치던 조선은 중국이 1839년 경제적 갈등으로 시작된 4년 동안의 아편전쟁으로 인해 당시까지만 해도 신흥제국에 지나지 않던 영국에게 일방적으로 무너지는 수모를 당하며 서세동점(西勢東漸)의 시대가 되어가던 상황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하지만 무능했던 조선 조정은 그런 청을 내란을 잠재우겠다는 구실로 불러들였고, 그것이 국내외적으로는 어떤 파장으로 이어지게 될지조차 예상하지 못한 채 청을 불러들여 일본이 또 그것을 빌미로 들어오게 되는 우를 범했던 것이다.

무능한 조선 조정은 1894년 4월 21일 양호초토사(兩湖招討使) 홍계훈(洪啓薰, ?~1895)이 이끌던 경군이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농민군들에게 패하고 농민군들이 빈 전주성을 입성하자 서둘러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을 수락하고 전주화약(全州和約)을 성립시킨 이후 비밀리에 청(淸)에 원군(援軍)청했었다.

그러나 청과 일본은 이미 1885년 천진조약을 통해 조선에 대한 동시 출병권(出兵權)을 보유하고 있어 청에 이어 일본군이 국내에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그렇게 자국의 거류민(居留民) 보호를 핑계로 국내에 들어온 일본은 예고 없이 조선의 궁성을 침범했고 나아가 중국의 함대를 선전포고 없이 공격하며 전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후 일본군의 경복궁을 무단 침범했고 조선의 조정을 유린했다. 전국의 선비들은 경악했고 속수무책으로 바라만 보던 전국의 선비들도 이때부터 일제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며 서서히 일어서기 시작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1894년 9월 봉기가 일어났지만 공주 우금치에서 모두 희생되는 비극으로 끝나며 한동안 일제에 항거하던 조선 민중들의 움직임도 시들했다. 9월 봉기 이후 청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한 일제는 1895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의 지배권을 장악할 흥계를 꾸며나갔다.

우선 일제는 친일 개화파의 인물들로 내각을 개편하는 한편 그들을 내세워 조선의 내정개혁을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과격분자인 육군 중장 미우라고로를 공사로 임명하여 조선의 국모인 민비를 시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급기야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乙未事變)을 일으켜 국모를 시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미우라가 민비의 폐출조서를 꾸며 고종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사이 일제의 흉도들은 민비의 침실로 난입하여 무참하게 살해한 후 시해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민비의 시체를 불태워 버리고는 그들의 꼭두각시로 대원군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때부터 김홍집을 비롯한 친일내각은 11월 15일 조서를 통해 명년부터는 태양력과 함께 건양(建陽)이라는 새로운 년호와 함께 단발령을 실시한다고 공포하기에 이르렀고 조선의 유림들도 항일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게 시작된 유림들의 항일운동은 을미사변 직후인 10월 11일, 충청도 보은에서 처음 시작되었지만 공주부에 의해 곧바로 해산되고 의병활동이 시작된 시기는 단발령 발표 이후인 1896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으며 주로 남한산성 서남쪽 지역인 이천과 여주, 광주, 용인, 과천, 안산 등지에서 먼저 본격화됐다.

반면 전라도 지역에서의 구한말 의병봉기는 타 도에 비해 다소 늦은 2월 초부터 장성의 유생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 등이 광주 향교에 광산 희맹소를 설치하고 의병을 모집함으로써 현재의 전남 지역에서 시작돼 나주, 해남, 광주, 담양 지역으로 확대되며 친일세력들과 일본인들에 대한 무력항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1896년 2월 초부터 일기 시작했던 을미의병 활동 기록에 현재의 전북지역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기록은 없다. 전북지역 의사들이 인근지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고 있었음에도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지역에서 치열하게 일어났던 동학농민혁명이 유림들에게도 큰 중압감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을미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일기 시작했던 을미항쟁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다. 그것은 항일정신은 투철했지만 무기나 전술전략이 부족한 오합지졸인데다 의병들 대부분이 유생들로 이루어져 있어 관군과 일본군의 강한 화력과 체력 앞에서 창의와 함께 각 지역에서 속속 맥없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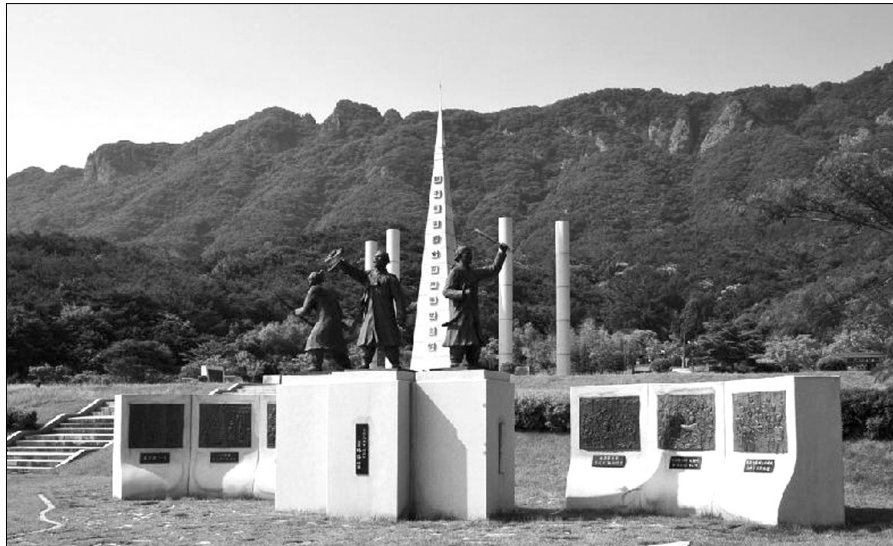
바로 이 시기에 정읍에서는 9월 봉기 이후 주춤했던 동학농민군들이 하나 둘 다시모여 1899년 정읍 입암면 왕수리에서 최익서(崔益瑞, 1858-1918)를 중심으로 보국안민(輔國安民)이라는 기치아래 전라도 서남부 지방의 농민 300여 명이 또다시 기해(己亥)정읍농민봉기를 일으켰지만 일제에 의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했다.

별왜·별양(伐倭伐洋), 보국안민(輔國安民)을 기치로 당시의 봉기는 이 해의 간지에 따라 기해정읍농민봉기(己亥井邑農民蜂起)라 한다. 이 당시의 봉기는 비록 이전의 농민봉기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일어났다는 측면에서 9월 봉기의 의미를 더하게 했던 의거였다.

이 당시의 조선 정국은 일본군이 전국에서 창궐하는 의병들을 진압하기 위해 시선을 돌리는 사이 고종의 아관파천(俄館播遷)으로 정국이 변해 러시아, 미국, 프랑스 세력들까지 국내로 들어와 조선의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침탈 권을 놓고 서구 열강들이 전쟁까지 불사하며 각축을 벌여 조선의 외교권이 상실되는 상황에 있었다.

급기야 일본은 노일 전쟁을 위해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일본 정부가 추천하는 인사들로 하여금 우리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기에 이르렀고 우리나라를 그들의 전쟁기지로 만들어 노일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전쟁이후 러시아는 포오츠머드 강화조약을 통해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했고 미국과 영국의 묵인 속에서 일본은 강제로 한국 조정을 장악한 채 1905년 11월 18일, 기어코 을사늑약(乙巳勒約)을 강제 체결하고 말았다.



▲ 갑오동학혁명 100주년 기념탑

이 시기에 정읍에서는 명성왕후의 추모를 위한 대보단 집회 이후 일기 시작한 유림들의 호남회합이 정읍 유림들의 주도로 1905년 내장산에서 ‘호남유림대회’로 열렸다. 내장산에 모인 호남의 유림대표 54인은 조선의 국모를 시해한 일본인들에 대해 피의 복수를 다짐하며 서보단(誓報壇)을 쌓고 공식적인 항일운동을 천명했다.

이때의 모임이 이듬해인 1906년 6월 4일, 최익현(崔益鉉, 1833~1906)과 당시 정읍 산내면 종성리에 등지를 틀고 있던 임병찬(林炳瓚, 1851~1916)의 주도로 병오창의(丙午倡義)로 이어졌고 1907년 군대해산 뒤에는 정미의병(丁未義兵)으로까지 이어지며 항일의병운동의 맥이 호남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했다.

구한말 또다시 정읍에서 촉발됐던 당시의 병오창의는 유림들이 한말 최초로 집단적 항일 무장투쟁에 나서게 되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의 창의는 현재의 정읍시 산내면 종성마을에 위치한 ‘임병찬 창 의 유적지’라는 주요 거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06년 6월 4일, 현재의 정읍시 칠보면의 무성서원에서 호남 유림대표 면암 최익현과 돈현 임병찬이 주축이 되어 봉기한 병오창의(丙午倡義)는 앞서 1895년 10월의 민비시해 사건과 그 해 11월 단발령의 강행 이후 일기 시작한 항일정서가 호남에서도 의병창의로 촉발됐던 최초의 창의였다.

병오창의와 함께 전라도 지역에서도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항일의병 활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활동했던 주요 의병대는 다음과 같다.

덕유산을 거점으로 활동했던 신명선(申明善) 의병대(義兵隊), 순창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삼았던 신보현(申甫鉉) 의병대, 순창 회문산 지역을 거점으로 삼았던 양춘영(楊春泳) 의병대, 임신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활동했던 이석용(李錫庸) 의병대, 정읍과 회문산 일대를 주요 거점지역으로 삼고 활동했던 임병찬(林炳瓚) 의병대, 전남 장성 일대를 거점으로 삼았던 전기홍(金基泓) 의병대, 남원 지역을 주요 거점지역으로 삼았던 고광순(高光洵) 의병대, 영광·무장 지역을 주요 거점지역으로 삼았던 기삼연(奇三衍) 의병대, 충남 논산 일대를 주요 거점지역으로 삼았던 김동신(金東臣) 의병대, 덕유산 일대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문태서(文泰瑞) 의병대, 순창과 정읍지역을 주요 거점지역으로 삼았던 최익현(崔益鉉) 의병대가 바로 그들이다.

Ⅲ 정읍 항일의병사의 역사적 발자취와 그 평가

현재까지 국가 보존처에 등록된 우국지사는 의병이 230명으로 가장 많고 3.1운동 관련된 인물이 223명, 국내항일운동 154명, 학생운동 22명, 광복군 12명, 나머지는 모두 10명 이내이다. 그중 구한말 당시 정읍출신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했던 인물들은 백정기 의사를 비롯해 거론되는 이름만도 100여 명에 이른다.

정읍에서는 임진왜란 당시부터 한말의병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의사들이 일어나 국가수호에 나섰다. 그러한 예를 반영하듯 1907년에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에서 전라북도 1,500여 명, 익산 1,100여 명이 의연금 모금에 참여했던 반면, 정읍에서는 2,000여 명이 참여했을 만큼 주민들의 의식수준 또한 높은 지역이다.

그런 정신이 고대로부터 후대로 이어졌고, 1919년 3월 16일 태인 장날에서는 박지선, 송한호, 송진상 등이 청년 2백여 명이 태극기를 만들고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는 등 자주적 항일운동이 전개되게 했던 것이다. 정읍에서는 3월 23일과 4월 2일 태인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수많은 인사들이 붙잡혀가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도 민중의 열망을 담은 새로운 정부수립을 위해 보천교에서는 암암리에 상해임시정부에 막대한 독립운동 자금을 정기적으로 전달했고, 안으로는 차천자 등극설을 내세워 민중들을 끌어 모아 항일정신을 고취시키기도 했다.

1920년대 또 하나 특이할 만한 사실은 정읍지역에서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신교를 전한 최중진 목사의 자주교회사건인데, 최중진은 사건 이후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당시의 천민들을 모아놓고 인간대우를 받고 살 수 있다는 형평(衡平)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후 백정출신의 이학찬, 장지필 등이 1923년 진주에서 조선형평사를 결성하고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게 되자 1927년 4월, 정읍에서도 신간회(1927년 2월 창립) 지부가 결성되기도 했다.

신간회는 정읍 지역을 시작으로 5월에는 전주, 6월에 군산·임실·화호, 7월에 김제, 8월에 남원, 1928년 2월에 순창, 3월에는 부안지역에 지부가 창립되었다.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에는 정읍농업학교 1·2학년 학생이 동맹휴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37년에는 남차량 조선 총독 주재하의 31본산 주지회의가 있었을 때 태인 출신의 만공은 조선불교의 진흥책을 강조하고 총독부의 간섭을 성토했기도 했다. 그런 지역적 특성 때문인지 1946년에는 이승만의 “남측의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발언이 정읍에서 언급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정읍은 민주화의 성지로, 지류가 아닌 저항정신의 본류로 자리매김 되어 왔을 만큼 우리 근·현대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사의 현장이었다.

뿐만 아니라 정읍은 임진왜란 초기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매 국난의 시기마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가수호를 위해 일어섰던 의병들이 거듭 반복되었지만 그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그동안 어느 시기까지는 그 공로가 인정되기도 했던 반면 어느 시기는 역사적 재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된 전북출신은 총 699명이다. 하지만 아직도 조명받지 못하고 이름 없이 스러져 갔던 수많은 의병들은 오직 나라를 위해 자신의 안위 보다는 조국 수호에 몸 바쳐 싸우고도 역사적 조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들의 행적과 공로에 대한 후인들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구한말의 의병들과 3·1운동, 광복군, 국내항일운동, 중국과 만주, 일본지역 항일운동, 문화운동, 애국계몽운동, 의열투쟁, 임시정부, 학생운동 등을 벌인 인사들은 우리의 오늘을 만들었던 우국지사들 이었다.

아울러 현재까지도 시대사의 질곡 속에서 동학농민혁명 당시 3두 장군 중 하나인 김개남(金開南, 1853-1895) 장군을 밀고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도 역사적 조명을 못 받고 있는 임병찬 장군을 비롯해, 역시 역사적 재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9월 봉기와 그 주최자들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도 뒤따라야 마땅할 것이다. 

‘친일재산환수법’을 만들어내는데 중심에 섰던 최용규 변호사를 만나다.



정 솔
연세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 전공

반민특위는 실패로 끝난 후 수년간 불가능해 보였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의 환수에 관한 특별법」(이하 「재산환수법」)을 만들어 내는데 법률재정 가장 중심에 섰던 최용규 변호사를 지난 4월에 만났다.

1885년 제27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1988년부터 인권변호사 활동을 시작으로 1991년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중 무소속 후보로 인천시의원에 당선된 후 부평구청장을 거쳐 국회의원 2선(16·17대) 으로 활동했다.

재임 기간 중 “친일과 재산환수는 역사적 소명”임을 강조하며 「친일파재산환수법」 「친일진상규명법」 등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입법 활동에 앞장서왔다. 그런 그가 「사회보호법 폐지」 등 인권옹호에 거듭 앞장서더니 국회에서 ‘한 우크라이나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국적없이 떠돌아다니는 무국적 고려인의 참혹한 현실을 보고 그들의 국적 회복에 적극 나섰다.



▲ 빅토르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방한 때 (왼쪽에서 3번째가 최용규 변호사)

그의 선택 후 2년간의 험난한 여정

최용규 변호사의 자서전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제목처럼 최고의 선택이었냐는 질문에 “내 인생의 최악을 선택이었죠...(웃음)”라며 짓궂은 답변이 돌아왔다. “사실 후회는 없어요. 최고의 위기는 지났고...더 이상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은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며 지난 시간을 술회했다.

국회의원 불출마를 선언하고 우크라이나 거주 무국적 고려인들의 국적 취득과 새로운 개혁의 역사를 손수 만들어 내고 계신데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묻자 “나는 이제 더 이상 나 빠질 것이 없습니다. 어떤 방해에도 상관없이 내길 갈 것이고 내 일을 해낼 것입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포부를 밝혔다.

최용규 변호사는 2008년 정계은퇴를 선언한 후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자신의 저서를 발간한 뒤에 펄박은 시작되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2년 동안 출국금지로 발이 묶여있었고 재판을 받아야했다. 한마디로 이긴 폭력이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무죄로 인정받긴 했

으나 나아가야 할 행보에 차질을 빚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해까지만 고생한다면 조금은 경제적인 문제도 풀릴 것이라며 인터뷰 내내 희망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리는 **с о б а к а**(사바까 : 개)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 적극적인 요청이 있어 “2006년 12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국적자들에게 국적을 줄 테니 당신들은 언어, 역사와 문화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국민들이 외면하지 말고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 측에서 1300만평의 농장 부지를 받아 150만평 가량 실질적으로 먼저 활용하여 농장건설을 추진 중으로 합법적인 농사를 지어 고려인을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용규 변호사와의 인터뷰 전 보았던 무국적자들의 실상은 매우 참혹하였기에 우크라이나 내 고려인의 처지를 물었다. 최용규 변호사는 언론매체에서의 다소 과장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생활은 집시와 다를 게 없다고 전했다.

1937년 연해주 지역에 모여 살고 있던 고려인들의 강제이주 후 그들에게 민족정체성이란 말은 호사이며 사치가 되어버렸다면서 민족의식조차 희미해지고 많은 고려인들이 직업도 없이 주변부로만 맴돌고 있다면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고려인 스스로 “우리는 **с о б а к а**(사바까 : 개)입니다 알아는 듣는데 말은 하지 못한다.”라며 언어를 잃어버리고 국적 없이 떠돌이 신세가 되어 보호받지 못한 채 살고 있다면서 실상을 전했다.

작은 동포사회 형성을 위한 길

이어 “앞으로 풀어나갈 숙제는 고려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게 국적회복 뿐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적도 없고 여권도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당장 먹고살기 힘들다. 자녀들은 국적이 없어 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교육도 받을 수 없다. 그들에게 미래가 없다는 것이 가장 가혹한 현실이다. 그들에게 필요한 일은 실질적인 교육을 통한 자립을 도와주는 일이다. (그들의 소질에 맞는)농업에 종사하도록 농장을 만들어 합법적인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여 가난에서 벗어나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있다.” 고 전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고려인 3~4대 대부분이 한국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학교설립과 문화원, 농업기술센터·유통센터 설립 등을 조성하여 하나하나 풀어나가되 커다란 한국 특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닌 작은 단위의 동포사회 건립을 바라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왜 누구는 ‘동포’ 이고 누구는 ‘고려인’, ‘조선족’ 인가?

최용규 변호사가 인터뷰에서 꼭 전달됐으면 하는 내용이 있었다. 코리아 디아스포라의 재미교포, 재일교포, 고려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명칭(명칭에 내포된 의미)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했다.

최용규 변호사는 “재일교포, 재미교포, 고려인, 조선족이라 칭하는 명칭에서 차별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다 같은 동포인데 왜 누구는 동포이고 누구는 고려인이고 조선인가? 재미교포는 현재도 동포이고 고려인은 과거의 동포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이것이 재외동포 정책의 현주소이다.” 라며 생각해볼 문제임을 지적했다.



▲ 국적을 회복한 올가가족(2008.11.2)

동포애는 가슴속에 숨겨두고

재임기간 당시「친일재산환수법」과 「친일재산국고귀속법」제21조와 함께 제25조「독립유공자예우법」이 같이 제정되었던 사실을 기억해내며 질문을 하자 최용규 변호사는 「독립유공자예우법」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자연스럽게 제정된 법률인데 우리는 때 늦은 법률제정이었다며 한탄했다. 또한 「친일재산환수법」도 한시법[限時法]이며, 현재는 친일조사위원회도 해체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최용규



▲ 감사박수를 보내는 고려인들(2006.12.10)

변호사는 법률제정 준비시기에는 친일파 행적에 서글픔을 느꼈지만 지금은 이 시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서글프다면서 역사의식에 불을 지피야 한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리하여 불을 지피는 순간 무국적 재외동포 문제라든지, 독립선열들의 재조명 문제, 다양한 역사문제 등 역사에 무관심하던 사람들도 역사흐름에 많은 참여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무국적 고려인의 동포사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농장이 우선적 경제적인 문제가 풀려야 할 일이지 동포애는 가슴속 깊이 숨겨두고 실질적인 경제적 안정에 매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인 노력의 결실이 금년 10월이면 작은 결과물이라도 나올 예정이라며 활기찬 음성으로 인터뷰를 마무리 지었다.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



성 대 경
前 성균관대 교수



백암 박은식(1859~1925) 선생

100년 편지로 백암 박은식 선생님께 이 글을 올리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선생님은 일제가 한국 침략의 야욕을 드러내자 애국계몽 운동의 최선두에서 교육과 언론 활동으로 이에 저항하셨고, 대한제국 멸망 후에는 중국으로 망명하여 동제사(同濟社)와 신한혁명당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으며, 그 기관지 『독립신문』의 사장과 제2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어 1925년 돌아가실 때까지 전 생애를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진력하셨습니다. 선생님이 남기신 항일 투쟁의 업적은 실로 많고 또 커서, 제한된 이 지면으로는 다 펼칠 수 없으므로 여기서는 역사에 대한 얘기만 할까 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처음 뵈옵게 된 것은 대학생 시절 인사동 고서점에서 『한국통사』(韓國痛史)를 만났을 때입니다. 저자가 태백광노(太白狂奴)로 쓰여 있어 누가 저술한 책인지도 모르고 구입했습니다. 이 책의 서언(緒言)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직접 쓰신 글이라 알고 계실 터이지만 여기 인용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기를 나라는 망할 수 있어도 역사는 망할 수 없다고 했다. 크게 보아 나라는 형체요 역사는 정신이다. 지금 대한제국의 형체가 허물어졌는데 정신이 홀로 존재할 수 없지 않은가. 이것이 내가 통사를 쓴 까닭이다. 정신이 망하지 않고 존재해야 형체가 때를 만나 부활할 것이다.” (번역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을 비롯한 한말의 애국계몽 운동가들은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 학문으로 역사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한국 사학사에서는 근대 민족주의 사학이라 이름하고 그 선구자 자리에 선생님을 모시고 뒤이어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문일평, 장도빈으로 계승·발전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추구한 ‘낭가사상’(郎家思想), ‘얼’, ‘조선심’(朝鮮心) 등이 모두 민족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음은 자명합니다. 선생님이 통사에서 말씀하신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민족정신만 살아 있으면 나라의 부활은 가능하다’는 신념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통사를 저술하신 까닭도 망국민이 된 동포에게 국혼(國魂)이 담긴 역사서를 읽게 하여 올바른 민족정신을 심어주자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항일독립투쟁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가 국사(國史)라고 생각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민족정신에 뿌리내린 근대 민족주의 사학은 일제 식민지 시대 독립투쟁에서 강력한 이데올로기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근현대사 연구자들이 일제와 맞서 목숨 바쳐 투쟁한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민족정신을 소중하게 계승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역사학계는 수구세력의 역사 왜곡 책동으로 골병을 앓고 있습니다. MB정권이 들어서면서 건국절 논란으로 소란을 피우더니 얼마 전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검정과정에 장관이 수정지시를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교과서검정제도를 무력화시켜 국정 교과서로 바꾸어서 역사 교육을 정권의 취향에 맞춰서 마음대로 개정하겠다는 심산입니다. 고등학교에서는 국사가 선택과목으로 되었고 대학에서도 한국사 교육이 위축되어 폐강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언론, 방송, TV의 역사 조작 활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습니

다. 반민특위를 해산하여 친일파 청산작업을 저지하고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으로 헌정을 유린한 이승만과 4.19혁명을 군화로 짓밟고 유신독재로 인권과 헌정질서를 파괴한 박정희를 찬양하는 기념관과 동상을 전국 곳곳에 세우는 기막힌 일이 공공연히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선열들과 민주영령들이 어떤 심정으로 내려다보고 계실지를 생각하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식민지 시대에 민족의 역사적 과제가 국권회복=민족독립이었다면 오늘날 우리의 역사 과제는 분단극복=남북통일입니다. 1945년 해방 이후 우리 민족이 경험한 분단, 6.25 전쟁, 냉전체제하 남북 갈등은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그것보다 처참하고 고통스런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듯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적 성장과 민주화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업은 남과 북의 동포가 화목하게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갈 통일 국가를 만드는 일입니다. 68년간 분단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통일의 역사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선생님이 개척하신 민족주의 역사학이 겨레의 미래를 여는 이 일에 하나의 거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영화 <제로 다크 서티>, 전쟁과 인간의 얼굴



이 두 희
자유기고가

2001년 9.11 테러 이후, 사건의 배후인 알카에다와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에 대해서 미국은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은 미국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빈라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졌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전쟁은 테러에 대한 보복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두 차례 전쟁을 거치면서도 빈라덴에 대한 추적을 포기하지 않은 미국은 수차례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1년 5월 파키스탄의 교외 지역에 은거중이었던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 작전에 성공한다.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제로 다크 서티>(2012)는 이처럼 십년에 걸쳐 진행된 오사마 빈라덴의 추적 과정을 그리고 있는 영화이다.

영화의 전반부는 주인공인 CIA 요원 마야가 포로 심문 등을 통해서 빈라덴에 대한 실마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 때 영화는 CIA의 비밀 포로수용소인 블랙사이트와 포로에 대한 고문 장면 등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는 이 영화에 대한 적잖은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블랙사이트에 대한 존재 여부와 포로 고문 사실에 대한 진실 공방과 함께 영화가 이러한 비인권적 행위를 옹호하고 있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감독이 직접 영화에 있어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게까지 된 이러한 논쟁은 결코 사사로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영화의 후반부에서 그려진 바와 같이 타국의 주권을 무시하고 특수부대를 직접 파견해 군사작전을 감행하는 나라가 미국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CIA의 불법수사에 대한 논란조차 자신들의 윤리성에 어떤 흠결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미국의 이중성과 과민반응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영화에서 재현된 빈라덴의 추적 과정이 잘 짜인 각본처럼 마냥 매끄럽게 흘러 간 것은 아니었다. 정보분석 요원인 마야가 생경한 파키스탄의 수용소에 처음 지원하면서부터 결국 현장을 지휘하기에 이르기까지, 수년에 걸쳐 수집해온 단서들이 한 순간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가까운 동료들이 잃거나 떠나보내며, 관료 조직의 의사결정 시스템과 부딪히는 일련의 과정들을 영화는 픽업픽업 단편적이고 불연속적으로 그리고 있다. 역사가 신화나 전설과는 달리 보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더라도 사실적인 방법으로 역사적 사건을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영화의 중반부, 빈라덴의 안가에 특수부대가 침투하는 야간작전 과정에서 영화는 대단원의 극적인 긴장감을 잘 연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작전 종료 후, 목표의 주검을 직접 확인한 마야가 본국으로 귀환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영화는 마야의 얼굴을 통해서 묘한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어떤 표정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이다.

<제로 다크 서티>의 마지막 장면과 주인공의 눈물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다. 긴 세월의 집념 끝에 이룬 성과에 대한 기쁨 혹은 허무함, 그리고 결과에 대한 허망함이나 돌이켜본 지나간 날들에 대한 회환 등을 그 예로 들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떤 단

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은 차라리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한 인간의 얼굴이라고만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감독의 연출 의도를 알 수 있다면 그 표정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감독이 영화를 통해 드러낸 의도란 결국 그 표정의 의미를 모호한 채로 그대로 남겨두기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우리는 십년에 걸쳐 진행된 작전 과정과 그 결말을 모두 보았지만, 결코 인간의 표정만은 알 수는 없다는 당황스러운 사실과 맞닥뜨린 것이다.

참고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의 전작 <허트 로커>(2008) 역시 전장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로서 이라크에 파병된 폭발물 제거반원의 생활을 그리는 영화이다. 사제폭탄과 자살 테러를 소재로 하는 이 영화는 전쟁의 비장함과 냉혹함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극한 상황에 처한 인간의 광기와 집착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느 소설가의 말했듯이 전투의 격렬한 황홀감이 때로는 마약처럼 강력하고 치명적인 중독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주인공에게 잘 들어맞는 것이다. 결국 <허트 로커>의 주인공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생존해 제대까지 하지만 이내 전장을 찾아 다시 군대에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영화는 단순히 인간의 본성에 전쟁의 광기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는 때로 우리가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전쟁에서 보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리라. 어쩌면 <제로 다크 서티>의 주인공에 대해서도 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녀의 마지막 표정을 보면서 질문해야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인간성이란 무엇인가가 아닐까 싶다.

영화의 역사에서 인간의 얼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성영화 시대에 배우의 얼굴을 확



▲ 영화 <제로 다크 서티> 중에서..



대해서 담은 클로즈업 촬영을 통해서 영화는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영화는 단순한 사진 기계적 발명품에서 영화만의 예술적 차별성과 가능성을 품게 된 것이다. 영화학자 자크 오몽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은 영화의 궁극적인 재현 대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 그리고 한 때 얼굴이란 인간의 영혼을 담은 그릇으로서 곧 인간성 자체이기도 했다. 하지만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을 거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인간성에 대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에 대한 신화가 깨어지고 나자, 인간의 얼굴 역시 과연 그렇게 투명하고 가시적 대상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인간의 얼굴은 조금씩 해체되기 시작했다. 이미지 과잉 시대인 지금에 이르러 이제 영화 속의 얼굴은 더 이상 신비롭지 않고 아무도 그로부터 깊은 의미를 찾지 않는다. 얼굴들은 이제 기호화되었고 익숙하고 관습적인 감정의 표현 이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혹은 테러리스트를 마주하거나 그에 대한 복수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정작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찾기가 어려워졌다. 어쩌면 <제로 다크 서티>의 마지막 장면은 작품이 의도와는 무관하게 누구도 답하기 어려운 그 질문을, 어린 아이처럼 순진하거나 그래서 무책임하기도 한 질문을 던지고 있지는 않나 싶다. 영화에서는 공교롭게도 생전이나 그 후에 빈라덴의 얼굴을 한 번도 명확히 보여주지 않는다. 영화의 제목 제로 다크 서티는 자정이 지난 30분 후 작전시간을 의미한다고 한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두운 밤에 있기 때문인 것은 아닐까. 이 전쟁과 테러의 시대에 인간성에 대한 물음은 역시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 영화 <제로 다크 서티> 중에서..

또 다시 억압의 역사를 꽃피우리라 - 대한광복단 창설 100주년에 부쳐 -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백두대간의 맑고 거룩한 정기
소백에서 한라까지 이어지던 유구한 단군의 땅
총칼 앞세운 일제의 경술국치 검은 구름
끝내 소백을 뒤덮던 날

포악한 착취와 식민지 만행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거센 항일의 깃발 높이 들어
대한광복단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신 이여

“우리는 대한독립 광복을 위해 목숨을 바치노라
우리는 자손만대까지 불공대천의 왜놈들을 처단하리라”
숫구치는 붉은 피로 천지신명께 맹세하며

타오르던 조국광복의 한 서린 붉은 화염으로
교활한 제국주의 침략의 오만함을 불사르고
이천만 조선인 가슴에 희망의 불씨를 심어준 임이시여

임들이 지켜낸 금수강산
무궁화동산 되어
또 다시
억겁의 역사를 꽃피우리라
억겁의 역사를 꽃피우리라

※ 대한광복단이란

“우리는 대한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죽음으로써 원수 일본을 완전히 몰아내기로 천지 신명에게 맹세한다.”는 신념으로 조국광복을 위해 1913년 대한광복단(大韓光復團)이 조직되었다. 경상북도 풍기(현 영주시)에서 결성되어 풍기광복단으로도 불린다. 대한광복단에는 의병 출신 독립 운동가들과 계몽운동가, 영남 지역의 유림 등 여러 계층의 인물들이 참가했으며, 비밀 결사로 조직되어 암살 등 무력을 통한 독립 운동을 벌였다. 대한광복단의 채기중 등 일부 세력은 1915년 박상진의 조선국권회복단과 통합, 대한광복회를 결성하여 대한광복회를 대한광복단의 후신으로 보기도 한다. 영주시에 대한광복단 기념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위 시는 2013년 4월 28일은 대한광복단 창설 100주년 기념을 맞아 서대문형무소에서 기념식을 거행 할 때 낭송한 시이다.

이 윤 옥 시인

《문학세계》 시 부문 등단. 세계문인협회 정회원.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 소장. 왜곡된 역사를 시를 통해 밝히는 작업을 하고 있다. 특히 무명의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여 시로 승화한 『서간도에 들꽃 피다』 1권을 시작으로 현재 3권까지 발간하였으며 앞으로 1,000여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시로 승화 시키는 작업을 목표로 뛰고 있다. 시집 『사쿠라 불나방』, 『서간도에 들꽃 피다』 1·2·3, 일본말 찌꺼기를 걸러낸 『사쿠라호민정음』 등



3·1독립운동과 김덕원 의사

(박성수, 신용하, 김호일, 윤병석 지음/모시는 사람들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이 책은 3·1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의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강원도 홍천지방에서 동창기미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덕원 의사의 생애와 그 업적, 그리고 동창마을 3·1운동을 상세히 조명하였다. 김덕원 의사는 동학혁명, 의병전쟁, 3·1운동이라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핵심 운동에 모두 참여한 이력을 가진 분이지만, 그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나 사료가 부족하여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는 분이기도 하다. 따라서 김덕원 의사를 연구하는 일은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살신성인하고도 역사의 이면에 묻혀 있는 수십만 선열들의 흔적을 간접적으로나마 찾아가는 여정의 시발점이기도 하다. 부족한 실증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현지 주민들의 관련 증언 사료를 수록(부록)하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이 책의 저자-박성수 신용하 김호일 윤병석-등은 한국 근대사 학계의 원로학자들로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3·1운동을 학문적으로 연구한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이 책의 발간을 시발로 하여 오는 2019년의 3·1운동 100주년의 시점까지, 3·1운동의 역사적 진상과 그 의의를 온전히 드러내는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투혼어린 약속이라는 점도 길이 기억되기를 기대한다.

김덕원, 그는 누구인가

민족운동의 발원지라 불리는 강원도 홍천군 물걸리 동창마을에서 태어난 김덕원 의사는



역사 속에 묻혀진 독립운동가로, 19세 당시에 동학혁명에 가담하여 강원도 지역의 대표적인 동학혁명 전투인 홍천 자작고개 전투에 참여하였으며, 그 뒤 항일의병 전쟁을 지원하였고, 국권 상실 후에는 치밀한 준비 끝에 동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오랜 피신 생활 끝에 일본 경찰에 잡혀 3년여의 옥고를 치르다 실명까지 한 이후 쓸쓸한 말년을 보내다가 돌아가신 항일운동 지도자이다. 동창마을에는 기미만세상을 비롯하여 김덕원 의사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 이 마을이 3대 민족운동이 잇따라 전개된 역사적 성지란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동창마을과 3·1운동

동창마을의 3·1운동은 어느 지방의 3·1운동보다도 강렬한 만세시위운동이었다. 인근 다섯 면에서 2, 3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결하여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래서 이 운동을 4.3 동창만세운동이라 하기도 했다. 동창마을의 시위운동에서만 8명의 열사가 일제의 총칼에 목숨을 잃었고, 20여 명이 총상을 입어 쓰러졌으며 수백 명이 다치는 치열한 국면이 전개되었다. 동창마을의 만세시위는 인근 지역에도 크게 파급되었으며 지역 주민들이 품앗이 하듯 지역별 시위에 참여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창마을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덕원 의사는 이후 3년 동안 숨어 살았으며 일본 경찰에 잡혀 4년간이나 옥고를 치르는 등 7년이나 고생하다가 일경의 모진 고문에 눈이 멀어 세상을 보지 못하다가 순도하였다.

3·1운동! 4·3운동?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여 전 민족이 일어난 운동인 3·1운동은 비폭력적이고 평화적인 만세시위운동으로 비단 민족사적 의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약속민족의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친 우리 민족의 용감한 투쟁이었다. 그러나 3·1운동에 가려져, 한 달 뒤 1919년 4월 1일부터 시위운동의 확산이 폭발적으로 일어나(4·3운동이 그 정점), 이후 3·1운동이 6개월 이상 맹렬하게 타오르고 해외에까지 그 영향을 끼치는 직접적인 동력으로 작용한다. 이 3월 한 달 동안의 운동 전개 양상을 훨씬 능가하는 전국적인 만세시위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다. 동창마을의 기미만세운동은 바로



이 4·3만세운동의 한복판에 있는 운동이었다. 경기도 지역에서 제암리 사건(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일제의 만행으로,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십명의 천도교인/기독교인이 교회 안에서 방화와 무차별 발포로 순국한 사건, 4월 10일 전후)이 있었다면 강원도에는 바로 이 동창만세운동이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은 3·1운동 역사 연구의 종결점이 아니라 시작점

올해는 경술국치 103주년이 되며, 3·1운동 94주년의 해로, 100주년을 불과 6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는 이 책이 3·1운동 100주년과 민족통일의 시대를 전망하면서, 그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민족 운동 세력”의 정기와 정당성을 되살려 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역사적 정의가 명시되고 불의의 세력이 승리자로 추앙되며, 민족적 양심이 몰락하고 반민족적 현실주의자가 득세하는 시대적 혼돈을 극복하는 길은, 그 동력은, 다시 역사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이 책은 그것을 위한 절절한 출사표라고 할 것이다.



조봉암 평전

-잃어버린 진보의 꿈

(이원규 지음/한길사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좌·우 이념을 넘어서 그가 먼저 걸어갔던
참된 진보의 길

한국 진보의 태동, 오늘날 더 절실했던 죽산의 이상
죽산(竹山) 조봉암(曹奉岩, 1899~1959)은 한국 근
현대사의 이단이다. 그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투쟁
해 장기간 옥고를 치른 독립투사였다. 조선공산당 창
당을 주도했으나 광복 후 전향해 초대 농림부 장관으
로서 농지개혁을 성공시켜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
는 것을 막은 공로자였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에 맞
선 일로 사형선고를 받고 법살당했다. 그리고 반세기

동안 어두운 역사 속에 누워 있다가 대법원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햇빛 속으로 나왔다.

새가 좌·우의 날개로 날아가듯,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작용해야 한
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한국의 진보는 분단 모순의 현실 속에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다.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았듯이 진보의 한계는 아직도 넘지 못
한 우리 사회의 벽이다.

한국에서 ‘진보’라는 말을 정치에서 처음 쓰고 실현하려 한 사람이 바로 죽산이었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일을 없애고 모든 사람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고 모든 사람
이 착취당하는 것이 없이 응분의 노력과 사회적 보장에 의해서 다 같이 평화롭고 행복스럽게

잘살 수 있는 세상, 이것이 한국의 진보주의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조봉암의 진보당 창당대회 개회사

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이미 진보의 미래를 꿈꾼 죽산의 소망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못
했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 극심한 빈부 격차, 남북한의 첨예한 대립 등 해방기 대한민국
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을 뿐이다. 책임정치, 수탈 없는 정의로운 경
제, 평화통일 세 가지를 부르짖은 죽산 조봉암의 이상이 오늘날 더 절실했다. 조봉암의 일
생은 곧 한국 진보의 태생적 한계와 그것을 초극하는 길을 보여준다.

좌·우를 넘어서 국민을 위한 진보를 꿈꾸다

조봉암은 일제강점 직전 강화도의 한미한 농가에서 태어났고 정규학력은 보통학교 졸업이
전부였다. 군청 사환, 임시 고원, 대서소 보조원 등으로 일했으나 진정성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화술, 뛰어난 강연술, 그리고 탁월한 사회기(司會技) 등을 스스로 갖추면서 비범한
인물로 성장했다. 고학으로 세이소쿠영어학교와 모스크바동방노동자공산대학에서 잠시 수
학하기도 했다.

강화도의 3·1만세운동에 참여하여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
했다. 공산주의가 조국 독립의 최선의 길이라고 판단해 조선공산당 창당의 주역이 됐으며,
상하이 망명 투쟁 중 체포당해 7년간 신의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8·15광복 후 좌익계의
권력욕이 국가를 위해 옳지 않다고 느껴 우익으로 전향했으며, 대한민국 초대 농림부 장관
으로서 농지개혁을 입안했다. 조봉암 덕분에 한국은 세계 최고수준의 토지 균등성을 빠른
속도로 이룩해냈다.

조봉암은 국회부의장을 지내고 대통령선거에서 두 번이나 차점 낙선을 한 거물 정치인이
었다. 그러나 젊은 날 조국 독립을 위한 최선의 방편으로 선택했던 공산주의가 전향한 뒤에
도 원죄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이승만 정권의 북진통일 정책에 맞서 평화통일을 주장한 것
이 빌미가 되어 국가변란과 간첩죄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사형을 당했다. 그의 생애는 식
민지 피지배와 민족분단으로 얼룩진 한국 근현대사의 축소판이다.



판화처럼 복원해낸 인간 조봉암의 생애

이승만 대통령과의 건곤일척의 대결, 은밀한 조선공산당 창당과 조봉암의 모스크바행 밀사, 뱀새를 맡고 그를 추적하는 일정의 기밀 보고서들이 치밀한 서사구조로 짜여 있으며, 위기를 맞을 때마다 폭포를 거슬러 오르는 물고기처럼 솟아오른 조봉암의 분투가 판화처럼 선명하게 복원되었다. 그를 사랑한 네 여인의 가슴 아픈 사연도 숨김없이 그려져 있다.

그밖에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상하이에서 행방불명된 아우 조용암, 일본 유학시절에 처음 만나 그를 현실참여와 공산주의로 인도한 동지 김찬, 창랑 장택상과의 좌·우를 뛰어넘은 우정 등, 죽산에 관한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가 펼쳐진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대통령은 한강다리를 폭파하고 도망치고 있을 때, 국회부의장 조봉암은 국회 문서를 챙기고 국가변란을 수습하느라 정작 자기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 허겁지겁 쫓아가 임시수도를 꾸리는 조봉암에게 이승만이 ‘인민위원장이 되었다더니……’라며 오해의 눈길을 보내는 동안, 조봉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아내 김조이와 처남 김송학이 무참히 납북되는 장면은 가슴을 아프게 한다.

저자 이원규는 죽산의 제헌의원 선거구이자 정치적 활동의 기반이었던 인천 출신이다. 유년기부터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고, 중고교 시절에는 강화 출신 친구들이 많아 수없이 강화를 드나들었다. 죽산을 알기 위해 학연과 지연, 혈연 등 온갖 인맥을 총동원하여 죽산 주변 인물들에게 생생한 증언을 얻어냈다. 입을 굳게 다문 인천 원로들의 입을 열어 증언을 얻어내고, 그것을 사료와 대조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책으로 엮는 일은 오로지 저자만이 해낼 수 있는 작업이었다. 끈질긴 추적과 인터뷰, 사료분석으로 자료수집에만 2년 반, 집필에만 3년이 걸린 이 책 『조봉암평전』이 완성된 것이다.

중국·러시아·일본 등 항일 유적지를 20여 차례에 걸쳐 답사하고 오랫동안 르포를 연재했던 저자의 경험은 이 책 『조봉암평전』을 비롯하여 전작인 『약산 김원봉 평전』과 『김산 평전』 등 사회주의 독립투사들의 평전 집필에 바탕이 되었다고 말한다. 이 책에 그려진 공간으로 저자가 직접 밟아보지 않은 곳은 없다. 이렇게 이 책은 치밀한 사전조사와 답사로 넘치는 생동감과 현장감을 갖게 되었다.

책에는 100여 장의 사진자료와 300여 개의 주석 및 200여 개의 참고문헌이 수록되어 있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만만치 않다. 조씨 문중 등에서 나온 미공개 사진자료를 비롯해 독립운동사와 공산주의 운동사 관련 자료가 풍부하다. 그렇게 죽산의 존재를 한국독립운동사와 공산주의운동사 속에 되살려 놓았다.



조봉암의 사형은 잘못된 판결이므로 바로잡는다.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로서 건국에 참여했고 국회의원, 국회부의장,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우리 경제체제의 기반을 다진 정치인임에도 잘못된 판결로 사형이 집행됐다. 재심 판결로 그 잘못을 바로잡는다.”

지난 2011년 1월 20일 대법원 전원 합의부는 재심을 열어 죽산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우리가 못 한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후배들이 해나갈 것이네.

결국 어느 땐가 평화통일의 날이 올 것이고

국민이 고루 잘사는 날이 올 것이네.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나는 씨만 뿌리고 가네.”

— 조봉암 옥중 유언



돌베개

(故장준하 지음 / 세계사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돌베개』는 청년 장준하가 일본군 학도병으로 끌려가 탈출한 이후, 임시정부 시절을 거쳐 광복과 함께 한국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수기이다. 광복군에서 언론인, 그리고 광복 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온몸으로 독재정치에 맞섰던 현실 정치인이었던 장준하. 죽음과도 타협하지 않을 만큼 냉철한 순수주의자였고 행동하는 양심가였으며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 한 사람이지만, 의문사의 그늘에 가려 참모습이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장준하의 삶을 그렸다.

조국애를 몰라서 조국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고, 조국을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여 우리의 선조들은 조국을 팔았단가. 우리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으

려다. 나는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의 피눈물을 삼키며 투쟁하련다. 이 길을 위해 나는 가련다. 나의 인생의 과정은 ‘또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라는 이정표의 뜻을 쫓고 이제부터 나를 안내할 것이다.

— ‘블로하 강변의 애국가’ 부분

그립다는 말은, 내게는 그리 많지 않은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리움은 고사하고 어느새 앓고 있었다. 고향이, 고국의 어느 곳이든 한 땅덩이 마을이, 아니 내 한 번이라도 지나가 본, 살아본 곳이면 어느 마을이든, 내 머릿속에 다시 한 번 지나가고 있다. 그 풍경 그 모습대로 나를 앓게 만들며 지나가고 있었다.

‘나는 끝내 조국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 ‘잊혀지지 않는 얼굴들’ 부분

* 저자소개



故 장준하 1918년 8월 27일 평북 의주에서 태어나 선천 신성중학, 일본 도쿄 신학교를 다녔다. 1944년 1월 일본군 학도병에 입대하여 중국으로 끌려갔으나 그해 7월에 탈출하였다. 1945년 1월 광복군에 편입, 광복군 대위에 임관되었으며 『등불』 『제단』을 간행하였다.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한국하여 김구 주석 비서, 비상국민회의 서기 및 민주의원 비서 등을 거쳐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

련소 교무처장, 대한민국 정부서기관, 국민사상연구원 사무국장 등을 역임하였다. 1953년 『사상계』를 발행, 자유·민주·반독재 투쟁에 헌신하였으며, 1962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했다. 1967년 야당통합을 추진하여 신민당에 입당하였으며 그해 4월 국가원수모독죄로 투옥되었고, 6월 옥중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1973년 민주통일당 창당에 참여, 최고위원에 임명되었다.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구속되었으나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에서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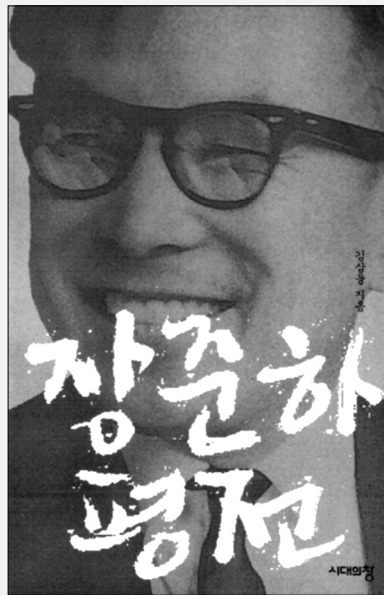
“이 의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위원회 활동 결과 사고사가 아니라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뒤 추락했다’는 감식결과가 발표됐다. 국가차원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도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둘러싼 진실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겠다.



장준하 평전

(김삼웅 지음 / 시대의 창 출판사 펴냄)

서 평 : 출판사



‘금지된 동작’을 제일 먼저 시작한 위대한 혁명가 장준하 선생을 “흙탕물과 같은 한국현대사에 핀 한 떨기 연꽃과도 같은 존재”라고 평한 저자 김삼웅이 한국현대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장준하 선생의 삶을 재조명하는 책을 냈다. 《장준하 평전》은 장준하 선생의 삶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정권 시절 고통 받던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잡지 《사상계》를 한 데 묶어 그 역사적 의의를 되살렸다.

이 책 초반부에서는 장준하 선생의 성장 과정을 다룸으로써 그의 사상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 준다. 저자는 장준하 선생이 광복군으로 일제와 맞서면서 그리고 해방 뒤 김구 선생과 함께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상의 폭을 넓혔고, 이러한 사상의 성장은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 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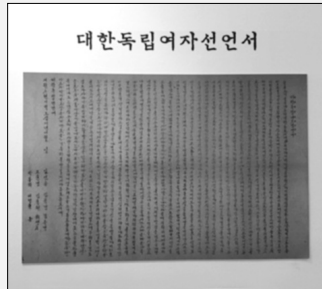
주의 투쟁과 민권 투쟁으로 이어졌다고 말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 《사상계》라는 잡지가 우리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주로 다루었다. 저자는 1957년 3월호에 실린 함석헌 선생의 〈할 말은 있다〉라는 글이 이승만 독재 시절 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국민들의 입을 대변하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이는 《사상계》의 존재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이후 《사상계》는 시사 문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고 4.19혁명기에는 ‘이론지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불릴 만큼 그 영향력이 지대했다. 그러나 저자는 오점도 있다고 지적한다. 친일 지식인 ‘최남선’ 추모 및 5.16쿠데타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 등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계》는 당시 시대정신이었다. 이후 《사상계》는 박정희 정권의 고사작전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져 1970년 5월 1일 통권 205호를 끝으로 폐간되었다.

아울러 이 책은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장준하 선생은 1945년 광복군 자격으로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해 여의도공항에 도착한 지 만 30주년이 되는 1975년 8월 17일에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계곡에서 의문사했다. 여기서 ‘의문사했다’라고 말한 이유는 장준하 선생이 실족사한 과정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자료 미확보’란 이유로 ‘진상규명 불능’이란 판정을 내렸다. 저자는 장준하 선생의 의문사를 역사의 미제사건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책 부록에 민주당이 직접 조사한 ‘사인규명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게재했다. 또 장준하 선생 사후 이청준, 고은, 김수환, 법정, 문익환 등 각계 인사들의 추모글도 함께 게재했다. 30여 년 전에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삶을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장준하 선생의 장남 호권 씨는 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제기한 장준하, 백기완 선생을 비롯한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정권과 점점 닮아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즉 장준하 선생이 청산하고자 했던 것들이 다시 현재화되고 있다는 뜻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권위주의로 회귀하는 현 정부, 갈수록 대결 양상을 띠고 있는 남북관계, 어용지식인, 어용언론인들의 반시대적인 갈춤 등이 그것이다.

이 책은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장준하 선생의 삶을 재조명함으로써 지난 시절의 암울했던 유산을 추종하는 정치인들, 언론인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리고 한국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다.

제 94주년 3.1절 기념 사진전 “그 날의 기억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 위치한 국립여성사전시관은 지난 3월 1일, 제94주년 3·1절을 기념하며 이들 여성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한 사진전 ‘그 날의 기억전’을 열었다.

‘그 날의 기억전’은 여성독립

운동가들의 활동을 계몽운동, 지원운동, 무장투쟁 등의 세 가지 테마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보훈처가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16명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사진 자료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가고 있는 여성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재조명한 이 전시는 5월 6일까지 계속된다.

제 9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

4월 13일 오전 10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4주년을 맞이하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원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 각계대표,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이 날 기념식은 박유철 광복회장의 대한민국임시정부 약사 보고, 국무총리 기념사, 기념공연, 기념노래 순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기념식에 이어 오전 11시에는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광복회(회장 박유철)주관으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광복회 임직원 및 회원,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독립운동관련 단체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임시정부요인들을 추모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선열 추념식」이 개최되었다.

한편, 중국 상하이와 충칭에서도 12일 오전 11시 중국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현지교민 등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뜻을 기리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민족지도자故장준하 선생 겨례장

3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민족지도자故장준하 선생 겨례장’이 열렸다.

이날 예식 행사는 장 선생의 유족과 시민들 200여명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서울광장 동편에 마련된 빈소에는 노무현 재단, 김대중 평화센터에서 보낸 화환이 놓여 있었고, 일반 시민들 및 사회 각계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장준하 선생의 가족들이 차례로 헌화를 한 뒤, 한국기독교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주최로 장준하 선생의 장례 예식이 거행되었다.

장준하 선생의 장남 장호권씨는 “장준하 선생님이 대한민국 시청 광장에서 장례식을 치르게 됐다는 사실, 정말로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됐다”며 “이제 남은 것은 정부 입장에서의 공식적인 사인 규명과 장준하 선생이 꿈꿔왔던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둘째 날인 29일에는 원불교개혁신무단, 4대 종단 추도식, 추모문화제가 개최되었고, 3일장의 마지막 날인 30일에는 서울광장-광화문 사거리-경교장-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이어지는 추모행



진이 열렸다. 노제는 역사관에 도착해 진행되었고,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장준하 공원에서 안장식이 개최되었다.

장준하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 필요성을 주장한 혐의로 체포돼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1974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나 같은 해 건강악화로 풀려났다. 그러나 장준하 선생은 이듬해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사망 원인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장준하 선생의 유골은 2011년 8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선생의 묘소 옹벽이 폭우로 무너져 지난해 이장을 진행하던 중 두개골의 함몰 골절이 발견되었다. 이에 장준하 선생 사인에 대한 규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지난해 11월부터 위원회가 꾸려져 유골정밀검사가 진행돼 지난 26일 ‘머리를 가격당해 사망한 뒤 추락했다’는 감식결과가 발표됐다.

한반도 평화축구 범국민연대 541인 제 1차 시국선언

학계와 언론계, 시민사회 원로들을 포함한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한반도 평화축구 범국민연대’는 4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평화를 촉구하는 541인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북 정부에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등 기존 합의사항 준수 ▲군사적 대결 중단과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신속한 가동을 요구하며 이를 남북 신뢰회복의 시금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김자동 회장 및 임재경 부회장,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했으며,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까지 2·3차 시국선언과 시국강연회,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제 40회 윤봉길 상해의거 81주년 문화축제



매현 윤봉길 의사 4·29 상해의거 81주년 기념 다례행제가 4월 29일 충의사 본전에서 안희정 충남도지사, 홍문표 국회의원, 이우재 월진회장, 최승우 군수, 유족, 참배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열렸다.

다례행제에 앞서 27일부터 3일간 충의사 도중도일원에

서 열린 매현 윤봉길의사 4·29 상해의거 81주년을 기념하는 제40회 문화축제는 월진회와 본회를 포함한 31개 사회단체 등이 주최 및 주관한 가운데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찾아’, ‘아시아를 넘어 세계평화로 큰 잔치’ 등 30여개의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었다.

축제 첫날(27일) 세시봉과 함께하는 윤봉길 평화페스티벌과 불꽃축제, 축제 둘째 날(28일) 청소년 글짓기 및 사생대회, 윤봉길평화의 길 걷기 행사, 매현음악축제 등 다양한 공연행사도 마련되어 주말을 이용해 축제장을 찾은 가족단위의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축제 마지막 날(29일)은 윤봉길의사 상해의거 81주년 기념다례 행사가 윤봉길의사 영정 행렬을 시작으로 중앙, 도 및 군 단위 기관장 등 총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0시 충의사 윤봉길의사 사당에서 엄수됐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3년 3월, 4월 회비납부자 명단◆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회원명	3월	4월
강재욱	20,000	20,000	박원표	50,000	50,000	이종범		50,000
강찬모	20,000	20,000	박은봉	30,000	30,000	이종찬	100,000	
곽태원	50,000	50,000	박익란	30,000	30,000	이창복	20,000	20,000
권경업	50,000	50,000	박인석		10,000	이 철	10,000	10,000
권상윤	10,000	10,000	박정근	30,000	30,000	이학노	20,000	20,000
권순갑	20,000		박형순	10,000	10,000	이학호	10,000	10,000
권영관	10,000	10,000	반병률	10,000	10,000	이항중	30,000	30,000
길사원	10,000	10,000	배해원	30,000	30,000	이해준	20,000	20,000
김경애	10,000	10,000	백낙청	10,000	10,000	이화순	30,000	30,000
김광림	30,000	30,000	백영미	10,000		이호현	20,000	20,000
김동현	10,000	10,000	변병식	100,000	100,000	이후삼	10,000	
김봉현	30,000	30,000	서영훈	30,000	30,000	임재경	10,000	10,000
김삼웅	10,000	10,000	서홍관	30,000	30,000	임진택	5,000	5,000
김상백		30,000	성인제약(주)	100,000	100,000	임형진	10,000	10,000
김선군	10,000	10,000	신명식	10,000	10,000	장두원	20,000	20,000
김성곤	10,000	10,000	신영연	10,000	10,000	장팔순	10,000	10,000
김성록	10,000	10,000	신영한	10,000	10,000	전창일	20,000	20,000
김소중	10,000	10,000	심재권	30,000	30,000	정동익	30,000	30,000
김숙정	50,000	50,000	양인선	10,000	10,000	정만기	30,000	30,000
김연실	10,000	10,000	양진호	10,000	10,000	정범구	10,000	10,000
김영방	10,000	10,000	엄기남	10,000	10,000	정재경	10,000	10,000
김영일	10,000	10,000	염승훈	10,000	10,000	정지완	5,000	5,000
김용수	5,000	5,000	오성근	10,000	10,000	정철승	30,000	30,000
김원규	10,000	10,000	오승숙	10,000	10,000	정환기	10,000	10,000
김 위	20,000	20,000	오은주	20,000	20,000	조기식	10,000	
김위현	50,000	50,000	오정수	20,000	20,000	조명숙	10,000	10,000
김윤수	30,000	30,000	오학래	10,000	10,000	조세현	10,000	10,000
김자동	100,000	100,000	우상호	30,000	30,000	조영빈	5,000	5,000
김재홍	10,000	10,000	유기수	10,000	10,000	조용준	30,000	30,000
김정경	10,000	10,000	유은숙	10,000	10,000	조인형	10,000	10,000
김정인	10,000	10,000	유원목	10,000		조정훈	30,000	30,000
김종규	10,000	10,000	유종하	10,000	10,000	조준표	10,000	10,000
김정록	50,000	50,000	윤경자	30,000	30,000	주세영	30,000	30,000
김종성	30,000	10,000	윤영소	10,000	10,000	주철기	30,000	30,000
김종배	20,000	20,000	윤종순	5,000	5,000	차영조	10,000	10,000
김준상	50,000	50,000	윤한옥	10,000	10,000	천정배	10,000	10,000
김중숙	10,000	10,000	이건웅	10,000	10,000	최낙현	20,000	20,000
김진경	10,000	10,000	이계환	10,000	10,000	최문성	10,000	10,000
김진모	20,000	20,000	이규중	30,000	30,000	최문순	10,000	10,000
김진영	10,000	10,000	이두희	30,000	30,000	최영진	10,000	10,000
김진한	20,000		이병윤	10,000	10,000	최정식	10,000	10,000
김진현	50,000	100,000	이상준	200,000	200,000	한의석	10,000	10,000
김판수	5,000	5,000	이성배	10,000	10,000	함세웅	30,000	30,000
김학근	10,000	10,000	이영국	10,000	10,000	해진스님	10,000	10,000
김호진	10,000	10,000	이영숙	10,000	10,000	홍용희	10,000	10,000
김희선	10,000	10,000	이영후	30,000	30,000	홍승현	10,000	10,000
남만우	30,000	30,000	이우재	10,000	10,000	황용만	5,000	5,000
노웅래	20,000	20,000	이원혁	100,000	100,000			
노시선	30,000	30,000	이윤옥	20,000				
노영택	20,000	20,000	이응국	5,000	5,000			
문재선	30,000	30,000	이인석	10,000	10,000			
박복삼	10,000	10,000	이일선	30,000	30,000			
박동기	10,000		이재선	5,000	5,000			
박두곤	10,000	10,000	이정재	50,000	50,000			
박양수	10,000	10,000	이종락	30,000	30,000			

2013년 3월, 4월 특별회비

회원명	3월	4월
(주)오토모티오	5,000,000	5,000,000
(주)아팩철강	3,000,000	3,000,000

◆ 입 회 원 서 ◆

이름 (한자)		연락처	핸드폰
			자택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주소			
직업		소속	
비고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CMS자동납입 신청서 ◆

은행명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	15일 ☐ 25일 ☐	출금시작월	()월
납부금액	1만원 ☐ 2만원 ☐ 3만원 ☐ 4만원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자유지정금액 ☐ (원)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서대문형무소를 거쳐 간 독립운동가 ⑥

강우규 의사의 의열투쟁



강화도조약 이후 우리나라의 침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제병합하면서 빠른 식민지제도 정착을 위해 무단(武斷)통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무단통치는 우리민족의 거센 저항을 받아 거족적, 전국적인 봉기인 3·1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일제는 통치정책을 바꾸어 회유책인 문화정치를 실시함으로써 3·1독립만세운동으로 고양된 민족적 분노를 가라앉히려 하였다. 일제는 조선총독을 무관에서 문관으로 헌병경찰제도를 일반경찰제도로 바

꾸는 등 탄압을 완화하였으나 이는 명목상일 뿐 실질적으로 식민통치체계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취하였다.

강우규 의사는 성장하면서 개화파의 사상과 행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기독교에 입교하면서 애국심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계에 투신,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그의 이러한 교육활동은 독립운동의 일환인 애국계몽운동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교육을 통한 독립운동은 의열투쟁과 비교해 소극적 대응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적극적인 독립운동의 형태인 의열투쟁을 택하기로 하였다. 의열투쟁은 테러행위가 아니며 식민지하 국민들이 독립운동의 여러 방략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투쟁방법이었다. 강우규 의사는 독립의 염원과 일제 처단을 목표로 한 의열투쟁을 행동으로 옮기고자 1919년 9월 2일 새로 부임한 조선총독부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향해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일으켰다.

이 의거는 3.1독립만세운동이후 최초로 시도한 의열투쟁으로 한국의 독립의지를 세계에 알리고 일제의 식민지 지배체제가 지니는 침략정책을 강력히 비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자주독립의 의기를 더욱 고조시켰고 의열단, 한민애국단 등 의열투쟁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항일운동의 방략으로 자리잡는 데 일조하였기에 강우규 의사의 의거는 숭고한 희생정신의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제공〉

일본 항일 독립운동 사적지를 찾아서 독립정신 답사단 제 9기를 모집합니다.



2013. 7. 19. 금 ~ 2013. 7. 23. 화 (4박 5일)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수 있습니다.)

선발인원 _ 국내외 대학(원)생 50명 내외

선발대상 _ 역사와 민족의식에 관심이 많은 남녀대학생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접수기간 _ 서류접수 2013년 5월 15일(수) ~ 2013년 6월 5일(수)

신청방법 _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에서 접수

답사지역 : 도쿄 - 도야마 - 가나자와 - 교토 - 오사카

참가비 _ 75만원 (일체경비 포함)

선발발표 _ 2013년 6월 10일(월)

선발자워크숍 _ 2013년 7월 3일(수) 백범기념관

※ 미참석자는 포기로 간주, 예비후보 선발

기타 _ 세부일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www.kopogo.com)참조

참가자 전원에게 답사 수료증 수여

주최 _  (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후원 _   내일신문
국가보훈처